

‘기독 정당’ 자유통일당, 이번 총선에선 ‘국회 입성’ 꿈 이룰까

최근 여론조사서 지지율 5.9%... 차별금지법 저지 등 공약
17대 총선서 첫 도전, 21대까지 번번이 고배
22대 여론조사에선 3% 이상 나오며 기대감
의원 배출시 헌정사 최초 기독당 원내 진출

기독교 정당임을 표방하고 있는 자유
통일당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통해 역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원을 배출
할지 교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2~3일 전국 18세 이상 1,004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비례대표 정당 지
지도 조사에서 5.9%를 기록했다. 비례대
표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는 최소 정당
득표율 3%를 훌쩍 넘긴 수치다.

그러자 당 관계자들은 자력 원내 진출
기대감에 한층 고무된 분위기다. 자유통
일당은 현역인 황보승희 의원이 국민의힘
에서 탈당해 입당함으로써 현재 원내 정
당이긴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자력 진
출을 꿈꾸고 있다.

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론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계속 상승해 왔다. 여론조
사에서 여야 대중정당이 아닌 자유통일
당을 지지한다고 밝힌 이들은 그만큼 지
지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기에 실제 본
선거에서 투표에 나설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라며 “본선거에서 여론조사 결과 이
상의 정당 지지율도 기대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자유통일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한
다면, 이는 기독교 정당이 국회에 입성하
는 헌정사 최초의 일이다. 자유통일당은
당헌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독교의
사회적, 정치적 책임을 다하여 세상의 실
패와 성공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목적
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자유통일당의 역사는 지난 2004년 제
17대 총선에서 228,837표(1.07%)를 얻은



자유통일당이 지난 6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범국민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기독일보DB

것이 그 시작이었다. 4년 뒤 제18대에선
비록 원내 진입엔 실패했으나, 그 두 배에
가까운 443,775표(2.59%)를 얻어 기대감
을 높였다. 하지만 제19대에서는 257,190표
(1.20%)에 그치며 다시 고배를 마셨다. 제
20대 총선에선 역대 가장 많은 626,853
표(2.63%)를 받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
원 배출 기준인 3%엔 미치지 못했다. 지
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선 513,159표
(1.83%)를 기록했다.

그 사이 당명은 기독교자유민주당, 기독

자유통일당 등을 거쳐 지금의 자유통일
에 이르고 있다. 현재 당명에 ‘기독이 빠
진 것에 대해 당 관계자는 “비록 다른 종교
를 가졌다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자
유시장경제, 한미동맹 등의 가치에 동의
하는 이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연대
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러나 기독교 정당
으로서의 정체성은 결코 약화되지 않았
다”고 했다.

그는 “故 김준근·조용기 목사 등이 기
독 정당운동에 나섰던 것은 신앙의 자유

를 보호하고 기독교 가치를 실현하기 위
해 기독교가 정치를 외면해선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자유통일당은 그
정신과 취지 위에서 계속 활동할 것”이라
고 밝혔다.

자유통일당은 3대 정책으로 ①헌정질
서 바로 세우기 ②청년의 삶 책임 ③차별
금지법 저지를 내세우고 있다. ①과 관련
해선 △검수완박법, 공수처법, 사전투표
제, 제주도 43 특별법 폐지 및 대공수사
권 원상회복 △주사파 척결법 제정 △5.18
유공자 명단 공개법 제정 △반국가행위
자 공무원임권 금지법 공약하고 있다.

특히 교계의 관심은 정책 ③에 있다. 자
유통일당은 “차별금지법을 막는 유일한
정당”임을 자처하고 있다. “포괄적 차별금
지법을 목숨 걸고 막아내겠다”며 “자유
의 가치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공
언한다. 지금까지 ‘원외에서 집회시위 등
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목소리를
내왔던 교계로서, 자유통일당이 ‘원내에
서 힘을 실어줄 경우 훨씬 수월하게 입법
을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자유통일당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지난 약 3년 간의 ‘코로나
나 사극’에서 현장에 배제한 사태 등을 계
기로, 교계의 목소리가 제도권 정치에 보
다 직접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사실
이다.

교계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대한민국
에서 교회는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
치 아래에서 신앙과 선교의 자유를 누려
왔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 등 갈
수록 교회의 활동을 제한하고 선교를 위
축시킬 수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며 “교회와 복음을 지키고 선교를 확장하
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독 정당
의 국회 진출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
라고 했다.

한편, 자유통일당 관계자는 전광훈 목
사(사망제일교회 담임)에 대해 “현재 당
의 상임고문으로 있다”며 “당이 원내에 진
출해도 대표 등 직접적인 당직은 맡지 않
을 것이다. 그분은 복음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정당 활동을 하는 것이 직접 정치
를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
다. 김진영 기자

‘국민·국가 위해 봉사할 훌륭한 지도자 선출되기를’

전국 교회들, 제22대 총선 앞두고 투표 참여 당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전
국의 교회들은 기독교 유권자들이 반
드시 투표하고 공명선거를 실현해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할 훌륭한 지도자가 선
출되기를 기도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이하 세계성시화)는 한국교회총연
합(한교총),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협력한 가운데,
“투표하는 당신이 애국가입니다”와 “투표
하는 당신이 나라의 주인입니다”라는 슬
로건을 걸고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
고 있다.

서산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백종석 목
사(서산시성시화운동본부 직전 대표본
부장)가 시무하는 서산이룸교회는 슬로
건이 적힌 손팻개를 들고 투표 참여를 다
집했다.

백종석 담임목사는 “서산기독교연합
회와 서산시성시화운동본부, 서산기독
교장로연합회 공동으로 지난 3월 30일
오전 10시 서산시청 대회의실에서 더블

어민주당 조한기 후보와 국민의힘 성일
종 후보를 초청해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를 개최했다”며 “기독교 유권자들이 후
보 선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질
의하고 답변을 받았다. 반드시 투표하
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성시화운동본부 부회장 유현형
목사가 시무하는 논현주안장로교회도
세계성시화운동본부 투표 참여 슬로건
이 적힌 손팻개를 들고 투표 참여와 공
명선거를 다짐했다. 그는 “4년 만에 한번
찾아오는 국회의원선거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기독교인이 믿음과 기도
의 표를 행사하여 좋은 지도자를 뽑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전남 완도군 군외면 교인리에 소재한
교인리교회는 7일 주일예배에서 투표참
여를 다짐했다. 김형석 담임목사는 ‘하나
님께서 주신 직분’이라는 설교를 통해 지
도자 선출의 중요성과 직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나님께서 국가와 교
회에 중요한 직을 감당하도록 사람을 세
운다”며 “또한 직분을 맡은 사람이 제대



서산이룸교회 교인들이 투표 참여를 다짐하고 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로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버리신
다. 그러므로 이번 총선에서도 기도하면
서 좋은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는 제22대
총선에서 유일하게 투표참여·공명선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며 “국내외 성시
화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
하는 한편 신문 기고, 방송 인터뷰, SNS
와 단톡카톡 등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하
고 있는 데 호응이 무척 좋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일과 6일 실시된 사전투표
율도 역대 최고인 31.28%를 기록했다. 4

월 10일에 꼭 투표하여 지난 21대 국회의
원선거 투표율 66.2%를 훌쩍 뛰어넘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또한 “1948년 5월 10일 실시
된 제헌국회의원 선거 슬로건은 ‘투표는
애국민의 의무, 기권은 국민의 수치였다.
세계성시화운동본부의 투표하는 당신이
애국가입니다’라는 슬로건과 맥을 같이
한다”며 “우리나라 최초로 대의민주주의
를 실현한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투표하
여 나라사랑을 실천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김정석 목사, 광림교회 담임직 걸고 감독회장 도전?



기독교대한감리회
(기감)가 올해 임기 4
년의 새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광림교회
김정석 담임목사(사
진)의 출마 여부가 관

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그의 출마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 목사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그가 교단 최대 교회 중 하나
인 광림교회의 담임인 것도 있지만, 만
약 김 목사가 감독회장에 당선될 경우
광림교회 담임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
문이다. 기감은 교단법으로 감독회장이
교회를 담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김정석 목사는 아버지인 김진도
목사에 이어 지난 2001년 광림교회 담
임으로 취임했다. 1961년 생인 김정석
목사는 현재 만 63세로 교단이 정한 정
년인 만 70세까지는 7년이 더 남았다.

만약 그가 출마하고 올해 9월에 있
을 감독회장 선거에 당선돼 임기 4년을
채워도 정년에는 이르지 않는다. 교단법

에 따르면 감독회장 퇴임 후 다시 교회
담임을 맡을 수 없다. 즉, 교단법이 개정
되지 않는 한, 김정석 목사가 감독회장
이 될 경우 광림교회 담임직에선 완전
히 물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물론 김 목사가 낙선하면 담임을
유지할 수 있다.

일견 아직 임기가 꽤 오래 남은 대형
교회 담임목사가 그 직을 걸고 감독회
장이 되고자 하는 것에 의문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교단 내 분위기는 “충분히
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교단 한 관계자는 “감독회장은 임기
가 4년으로 임기 1년의 장로교 총회장
과 다르고, 무엇보다 교단의 행정과 재
산, 인사 등과 관련한 권한이 막강하
다”며 “그야말로 감리교단을 대표하는
실질적 수장으로서, 아무리 대형교회
담임이라 하더라도 감독회장의 명예와
상징성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올해 기감 감독회장 선거 후보
등록은 오는 7월 17-18일이며, 선거는 9
월 26일 치러진다. 김진영 기자

강남 초역세권 아파트 마지막 실투자금 3억대~ **마감임박!!**



실사용면적 25평

4Bay 구조

2ROOM ALPHA ROOM 1ROOM

즉시입주 가능 중개수수료 無 청약통장 無

02) 3448-0208

시흥광역시 (주)비와이디산업개발의 시공사 더요종합건설(주) 시흥수학사 및 사업부제 (주)우공화신학

코로나 당시 '현장예배' 강조했던 원성웅 목사 은퇴

옥토교회, 담임목사 은퇴 및 취임 감사예배 드려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연회 제20대 감독을 역임한 원성웅 목사가 그가 1987년 개척한 서울 노원구 옥토교회에서 은퇴했다. 후임으로는 김창겸 목사가 취임했다.

옥토교회 담임목사 은퇴 및 취임 감사예배가 최근 교회 본당에서 드려졌다. 교회 교인들을 비롯해 교회가 속한 서울연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원 목사의 은퇴와 김 목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감리교신학대학교와 동 대학원을 졸업한 원성웅 목사는 옥토교회를 개척하고 서울연회 감독을 역임했다. 이 밖에 감신대 객원교수 및 대학원 영성멘토, 서울연회 노원지방회 교육부 총무, 서울연회 목사 과정고시위원, 배재동문 목사회 회장을 지냈다.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 등 교단 밖에서도 활발히 활동했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 전국연합) 상임대표,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 대표회장, 서울차별금지법반대연합(서울차반연) 공동대표로 있었다.

특히 그가 서울연회 감독으로 있던 지난 2020년,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예배가 제한되던 상황에서 정부 방역지침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목회서신을 발표해 교계 안팎에서 주목을 받았다. 최근 있었던 제44회 서울연회에서 정년은퇴했다.

담임직을 이임한 원성웅 목사는 이날 감사인사에서 "교회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섬기고 선교하는 삶을 살겠다"고 전했다.

원 목사에 이어 옥토교회 제2대 담임으로 취임한 김창겸 목사는 취임 감사인사에서 "깊은 사랑을 기억하고 값으며 살겠다"고 말할 뒤 권은미 사모, 그리고 딸과 함께 사명이라는 찬양을 불렀다. 한편, 이날 예배에서 '나눔보다 다름'이 가복을 316-1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용원 서울연회 감독은 "원성웅 감독님은 옥토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감리교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으셔서 일하셨다. 감독 재임시 말씀에 근거해 방향성을 제시하셨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말씀대로



새 담임으로 취임한 김창겸 목사(맨 오른쪽)가 옥토교회에서 은퇴한 원성웅 목사(가운데)와 이평숙 사모(맨 왼쪽)에게 은퇴찬하패를 증정한 뒤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옥토교회에서 은퇴한 원성웅 목사(오른쪽 두 번째)와 서울연회 이용원 감독(맨 왼쪽) 등이 옥토교회 제2대 담임으로 취임한 김창겸 목사를 위해 안수기도를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사시는 삶을 보아셨다"고 했다. 이 감독은 "우리는 최고가 되려 하거나 남보다 내가 더 낫기를 바라기보다, 다름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이임하시는 원성웅 감독님, 그리고 취임하시는 김창겸 목사님도 그런 삶을 살아 주께 헌신하며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임한 원성웅 목사를 위해 축사한 도준순 감독(전 서울남연회 감독)은 "코로나

나 상황에서 교회가 어두워지려고 할 때, 원성웅 감독님께서 길을 제시하셨다"며 "주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무엇보다 옥토교회에 남기셨다"고 전했다. 김장규 장로(미아중앙교회)도 원 목사에 대해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현장예배가 제한되고 있었을 때, 원성웅 목사님은 감리교의 감독으로서 목회서신을 통해

현장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다. 그 때 감리교 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도 힘을 얻었다"고 했다. 신현주 목사(서울연회 총무)는 취임한 김창겸 목사에게 격려사를 전했다. 신 목사는 "김창겸 목사님은 집중력이 강하고 목적성이 분명하다. 원성웅 감독님에 이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계속해서 달려가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순종함으로써

생명을 살려가는 목회의 길을 가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예배는 이후정 목사(전 감신대 총장)의 축도로 모두 마쳤다. 이 목사는 축도 전 찬사에서 "원성웅 목사님께서 옥토교회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을 보면서 참 기쁘고 감사하다. 그 사역이 김창겸 목사님을 통해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진영 기자

“총선, 자유민주주의 지키는 데 중요한 선거”

살롱나비 논평

살롱나비(살롱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롱나비)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를 앞두고 이와 관련된 논평을 최근 발표했다.

살롱나비는 "여태까지 비난과 갈등, 대립으로 얼룩져지는 여의도 정치의 문법은 새로운 신세대의 상식과 공정, 협력의 정치문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며 "로마는 당대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정치 시스템이 차례로 무너지고 새로운 정치 시스템이 등장했기에 천 년 번영이 가능했다고 한다. 무너져야 할 것이 제때 무너지지 않으면 한국사회는 새로워질 수 없다"고 했다.

또한 "천안함 음모설을 퍼뜨리며 막말하던 자들이 줄줄이 공천되는 부조리가 발생했다. 북한의 군사 테러에 눈감으며 대한민국 정부와 국군을 공격한 자들은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다"며 "열린 사회의 자유 덕분에 이들은 지금 공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로 달려가는 중"이라고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22대 총선에서 끝

없는 정쟁의 구태를 끊어내고 오직 나라와 민족을 위해 새로운 정치를 이룰 정치인이 당선되어야 한다"며 "한국 정치가 난장판인 것은 함량 미달의 정치인들을 뽑아준 국민들 책임이다. 이들 저질 정치인들이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지지해 주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여야 정치권은 586 운동권이 주도한 독선과 내로남불, 정쟁의 구태를 끊어내고 새로운 정치를 이룰 역량을 갖추기 위해 혹독한 혁신 경쟁을 감행해야 한다"고 했다.

살롱나비는 "중복세력 주사파 운동권 및 위헌 후보, 천안함 음모설 유포 후보,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들이 국회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국민주권을 실행해야 한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을 발의하고 찬동하는 자들을 대표자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들은 "이제 우리 사회는 선진국 위상에 걸맞게 국민들의 정치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 한국은 산업과 기술, 문화, 예술에서 세계적 찬사를 받고 있으나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흔히 이러한 책임을 정치인들에게 전가하고 있

으나 근본적으로는 이런 함양미달의 정치인을 뽑는 국민들에게 그 책임이 있다. 정치 수준은 국민 수준을 넘어설 수 없다"고 했다.

살롱나비는 "4월 국회의원 총선은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데 중요한 선거"라며 "여야는 정당의 파당적 전략을 넘어서 국가를 위하여 의회에서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천명하고 실현시키는 인사들을 선거에 내보내고 국민의 뜻이 국회에서 제대로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그동안 국민들은 여야 정치인들의 이기주의적이고 당리당략적인 의회 운영을 보고 실망하였다. 국회의원직을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보고 특권을 누리기 위해 출마한 자들은 뽑지 말아야 한다"며 "이러한 권력지향적이고 기본 자질이 되어 있지 않는 정치인들은 선출하지 말아야 한다. 그 대신 국회의원을 봉사직을 생각하고 국회의원 특권을 사양하고 세비를 적게 받는 것에 동의하고 당리당략이 아니라 국가를 위하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자를 국회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아프리카미래재단, 신임 이사장·대표 및 임원 취임 감사예배 드려

사단법인 아프리카미래재단이 최근 서울 고려대학교의료원 청담 고영캠퍼스에서 신임 이사장·대표 및 임원 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행사는 유관 단체장, 교계의료계사회복지학계 인사 및 정부와 기업 관계자·홍보대사 등 약 100명 내외의 귀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재걸 이사장(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핵의학과 교수) 취임과 홍순철 대표(전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의 임명, 그리고 11명의 신임 임원 임명 및 위촉이 있었다.

김억 (사)아프리카미래재단 사무총장의 사회와 이경희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원목실 목사의 대표기도를 시작으로 황형택 새은혜교회 담임목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설교 말씀이 이어졌다.

이후 조재철 외교부 본부대사, 용태순 국제보건의료학회 회장, 조대식 KCOC 사무총장 그리고 최동환 (사)아프리카인사이트 이사장이 축사를 전했으며, 문인교회 박재전 목사의 축사와 (사)아프리카미래재단 홍보대사인 송솔나무



아프리카미래재단의 신임 이사장·대표 및 임원들. 맨 왼쪽이 최재걸 신임 이사장, 맨 오른쪽이 신임 홍순철 대표. ©아프리카미래재단

플루티스트의 연주로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새롭게 취임한 최재걸 이사장과 홍순철 대표는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되고 이어진 이 박상은 대표의 꿈을 이어받아 귀하고 막중한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재단을 위해 기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사)아프리카미래재단은 2007년 외교부에 등록된 공익법인으로서 아프리카 25개국과 협력해 보건의료와 교육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단체다. 또한 매년 아프리카 비전트립을 떠나 의료서비스로부터 소외된 계층에 무료 의료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Good Neighbors effect

소외된 이웃을 향한 당신의 관심이
따뜻한 마음을 담은 당신의 손길이
세상을 위한 좋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세상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지난 33년간 전 세계 좋은 이웃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Good Neighbors Effect 입니다.

굿네이버스는 1991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북한 및 해외에서 굶주림 없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전문사회복지사업과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NGO입니다. 굿네이버스와 함께 세상에 좋은 변화 만들기

“세대 통합 예배, 3대 동일 신앙 목표 위해 나아갈 것”

[인터뷰] 목포창조교회 담임 서인석 목사

목포창조교회는 1897년 3월 5일 배유지 선교사가 세운 목포의 첫 교회이며 양동교회의 그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127년의 역사를 지나면서 몇 번의 분리 독립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지만, 노회로부터 분립 청원의 건을 허락받아 최초의 양동교회 역사의 계승하고 있다.

서인석 목사가 부임하기 이전 현 광신대 총장인 김경윤 목사가 창조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며 '3대 동일 신앙'을 위해 전 예배를 세대 통합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게 되었으며 3대 동일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진행되는 일반 주제별 제자훈련과는 다른 훈련체계를 만들었다.

현재 담임 목사인 서인석 목사를 만나 목회를 하게 된 계기, 목회 철학, 세대 통합예배를 드리게 된 계기, 교회의 비전 등을 들어볼 수 있었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오즘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찬양 〈은혜〉라는 가사처럼, 저의 인생은 정말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 '방주(창 6:14)와 '갈대상자'(출 2:3)는 히브리어 원어 '테바흐'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사실 두 사건에 사용된 도구나 재료들이 다른데도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인약과 구원'이라는 관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단어에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다. 즉 방주와 갈대 상자에는 사람의 힘을 이용하는 노가 없다. 그리고 바람의 힘을 사용하는 돛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을 뿐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로, 더구나 저의 삶이 마치 그런 것이었다고 밖에 고백할 것이 없다.

저는 청년 때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후, 목사가 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성경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마음에서 신학교 입학하게 되었다. 대학 때 전공이 문헌정보학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광신대학교 도서관 장리에 간여하게 되었고, 이것을 계기로 광신대학교 사서로 약 3년간 근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학교 도서관 확장 및 전산화를 구축하게 되었다. 그러나 결혼 이후에 계속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느끼게 되었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학업을 마치고 목회를 하게 되었다.

처음 화정동에 있는 성도교회(이신현 목사 시무)에서 교육전도사로 섬기다가, 나주 반남에 있는 신촌교회 담임 교역자로 부임하게 되었다. 이후 광주서현교회 부목사를 거쳐 광주 새날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받아 약 15년을 섬겨왔다. 그리고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자, 최근 이곳에서 나의 역할은 다했다는 마음을 주셨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내 욕심대로 다른 교회나 선교지로 갈 수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의 원칙을 정해놓고 아내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나온 청빙 광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 그러나 개인 청빙이

나 추천을 통한 청빙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알고 응하리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현재 창조교회 담임목사, 광신대학교 역사신학 교수, 바이블동서남북(원장 윤대명목사) 한국 부원장으로 섬기고 있다.”

▲목회자가 된 계기는 무엇인지?

“제 진가 쪽은 원래 유교 문화와 불교 문화 가운데 있던 집안이었다. 제 아버지는 남평 향교 총무를 맡아 섬길 정도로 유교적이었고, 제 어머니는 보통 시골 사람처럼 불교와 토속적인 무당 종교를 믿는 분이셨다. 그러나 제가 청년 때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고 성경에 대한 목마름으로 신학교 들어간 후, 목회자 집안의 딸이었던 제 아내와 결혼하면서 목회자로서의 소명이 더 분명해지기 시작했다.

감사하게도 저의 처가는 모두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목회자 집안이었다. 제 장인어른이 시골교회 목회를 은퇴하시고 소천 하셨으며, 7남매 자녀 중 처남 셋과 처형 두 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하고 있는 가정이다. 제가 목회의 힘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제 아내와 처가 식구들의 기도 후원이 크다고 생각한다.”

▲창조교회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창조교회는 1897년 3월 5일 배유지 선교사가 세운 목포의 첫 교회인 양동교회와 그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비록 몇 번의 분리 독립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이지만, 노회로부터 분립 청원의 건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최초의 양동교회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경일 원로목사님께서 1990년 6월 노회로부터 분립허가를 받았고, 전임 목회자인 김경윤 목사의 목회를 거쳐 지금에 이르게 되었다.

오랜 전통을 가진 교회인만큼 전 세대가 통합예배로 전환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런데도 현재 광신대 총장으로 부임하신 김경윤 목사가 창조교회에 부임한 후, '3대 동일 신앙'을 위해 전 예배를 세대 통합예배로 전환하여 드리고 있다. 이를 위해 김 목사는 목회학 박사 과정을 공부하며 세대 통합예배를 연구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논문 출판 및 해외 저널에 게재하여 그 당위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3대 동일 신앙을 세워가기 위하여 일반 주제별 제자훈련과는 다른 훈련체계를 만들었다. 통전적으로 성경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3대가 함께 훈련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는 세대통합 경건훈련' 교재를 출판했다.

이를 통해 우리 창조교회는 '3대 동일 신앙' 전수를 위한 '세대통합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목적 지향적 성장을 추구해가고 있다.”

▲김경윤 목사의 뒤를 이어 창조교회의 담임목사로 부임하게 되었는데 목회 철학과 비전, 계획은 무엇인지?



목포창조교회 담임 서인석 목사. 서 목사는 “김경윤 목사님 뒤를 이어 저 또한 마찬가지로 3대 동일 신앙 전수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 철학과 비전을 계승하고자 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우리 교회는 '3대 동일 신앙' 전수를 위한 '세대 통합예배'라는 목적 지향적 교회이기 때문에 후임 목사로 세움받은 저 또한 같은 신앙과 비전을 가지고 3대 동일 신앙 전수를 중요하게 여기며 그 철학과 비전을 계승하고자 한다. 세대 통합예배, 세대 통합 성경대회 및 찬양대회, 세대 통합 수련회, 세대 통합 영어도서관 운영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성경적인 신앙 전수를 위한 기독교 대학교를 꿈꾸고 있다.”

▲교회 표어가 '전 세대가 함께 세대통합예배를 드리는 교회'인데?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주일학교가 없거나 부교역자가 없어서 아쩔 수 없이 세대 통합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전 세대가 함께 세대 통합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아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주도적으로 전 세대가 함께 세대 통합예배를 드리면서 3대 동일 신앙을 이루는 일이다.

3대 동일 신앙이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3대(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은 말씀, 같은 신앙고백, 같은 기도, 같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3대가 같은 신앙고백과 같은 말씀으로 신앙을 전수해 영원히 복을 받는 가정이 되게 하자는데 목적이 있다. 감사하게도 오즘 3대가 함께 주일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기도회까지 세대 통합예배를 드려다 보니, 교회가 생동감이 넘친다는 말을 듣기도 한다.”

▲목회하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미국 흑인들의 애환을 그린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Alex Haley)는 자신의 사무실에 이상한 그림을 걸어놓았다고 한다. 거북이가 높은 담장을 뛰어넘어 올라가 있는 그림이다. 사람들이 그림

을 보고 '왜 이상한 그림을 걸어 놓았소?'라고 질문하자 헤일리는 '난 내가 쓴 작품을 볼 때 어떻게 이런 위대한 글을 쓸 수 있었는가, 어디서 이런 영감을 얻을 수가 있었는가 생각하며 스스로 교만심이 들 때가 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 그림을 보고 생각한다. 저 거북이가 제 힘으로 스스로 저 높은 담장에 올라갈 수 있었을까? 누군가의 도움으로 올라갈 것이다. 내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으므로 가능한 것이었다. 이런 생각을 함으로써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이야기의 핵심처럼 마치 누군가 거북이를 들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거북이가 담장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저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순전히 그분의 손길로 여기에 올려놓으셨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3일 길 앞서가시며 인도하심같이, 저에게는 순간순간이 가적이요 은혜임을 고백한다.”

▲창조교회의 비전은 무엇인지?

1) 스토리가 있는 세대통합 경건훈련 완성 최근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많은 교회의 출석을 저하와 다음 세대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고 인구동성으로 말하는 형편이다. 우리 창조교회 역시 그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세대 통합예배와 신앙교육을 통해 3대가 동일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므로 새벽예배에서부터 자녀들이 부모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 그러므로 김경윤 목사가 체계를 세워놓은 〈스토리〉가 있는 세대통합 경건훈련'을 토대로 지속적인 훈련을 해나가고자 한다.

또한, 이 시스템은 우리 교회만의 것이 아닌 세



목포창조교회 전경 ©구글 어스

계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확신한다. 김경윤 목사가 은퇴와 함께 광신대학교 총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신학교와 연계하여 본 세대 통합 경건 훈련을 체계화하고 교재를 발간하여 각 교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적용하는 일이다.

2) 우리 동네 오케스트라, 작은 도서관 활용 및 기독교 대학 교준바; 두 번째 목회 주안점은 세대 통합예배를 보완하기 위한 자구책이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통합예배 외에는 별다른 교제와 소모임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이전처럼 활동이 활발해졌기 때문에 세대 통합예배에서 소홀히 하기 쉬운 부분을 파악하여 보완하려고 한다. 그 대책 중 일환으로 교회 아이들과 주변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교회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오케스트라 구성과 레슨을 진행하고 있고, 또한 세대통합 찬양팀 운영, 영어도서관 및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여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차근차근 대안학교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3) 국내 외국인 선교팀 운영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이 약 250만 명이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가는 해외선교사도 중요하지만,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섬기고 훈련시켜 자국 선교사로 파송시켜 3대 동일 신앙을 해외에도 전하는 일 또한 중요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것을 위해 현재 국내 외국인 선교팀을 운영하고 있다.

▲끝으로 더 하실 말씀이 있다면?

“알래스카는 원래 러시아 땅이었으며 1867년 재정 궁핍으로 미국에 720만 달러에 매각했다. 당시 미국인들은 쓸모없는 땅이라고 비판하며 가장 어리석다고 조롱했다. 그러나 이후 알래스카는 금, 석유, 천연가스 등이 생산되고 삼림 자원과 수산 자원도 풍부한 땅으로 변신하면서 미국에 엄청난 부를 안겨 주었다. 아무 쓸모도 없던 알래스카 땅이 보물이 땅이 되었으며 한 사람의 해안과 그 선택이 국가에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었다.

알래스카 이야기는 단지 알래스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교회가 있어 알래스카는 '세대통합, 3대 동일 신앙'을 다음세대에 전수시키는 것이다. 이 가치에 대한 눈이 뜨여질지 소망하며 열심히 준비하고 세워가도록 노력하겠다.” 최승연 기자

환경부는 혁신형 물기업 지정 지원 등 물산업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물기업 지정 제도란?

연구개발 및 수출실적 등이 우수한 중소 물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진단 및 고도화, 해외진출 등의 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을 육성하는 제도입니다.

그간의 주요성과

혁신형 물기업 지정을 통해 평균 매출액 12%, 연구개발비 33%, 수출액 7%, 고용창출 6% 증가(*22년 기준, 30개사 평균)



혁신형 물기업 지정·지원사업

2024년도 혁신형 물기업 모집

신청방법	접수기간 2024. 4. 12.(금) 18:00까지		접수방법 이메일(innowater@kwp.or.kr)
지원내용	지원규모 기업당 연간 75백만원, 5년간 지원		
1 혁신기술 진단 및 고도화	2 혁신기술 해외진출	3 판로개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현황진단 및 R&D 전략 설계 지원 연구시설 개선 지원 제품 상품화 제작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지 테스트 및 기술 검증 지원 해외 맞춤형 시제품 제작 지원 국제인증 획득 및 벤더등록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외 현지 공동 연구개발 지원 해외 물시장 판로개척 지원 	
문의처			
한국물산업협회의 혁신형물기업 담당자(02-2634-6784 / innowater@kwp.or.kr)			

“성경적 세계관, 모든 영역에 확장되는 것이 문제해결 열쇠”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
6일 ‘지정학적 분쟁과 선교’ 주제로 학술대회 개최

한국복음주의선교신학회(회장 하광민 박사)가 6일 오전 서울 금천구 소재 주님앞에제일교회(담임 노윤식 목사)에서 ‘지정학적 분쟁과 선교’라는 주제로 123차 정기학술대회 논문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안희열 박사(집신대)를 좌장으로 전호진 박사(인도차이나연구소장)가 ‘구스타프 바르네크와 현대선교운동’ ▲하광민 박사(총신대)를 좌장으로 장훈태 박사(아프리카미래협회)가 ‘지정학적 갈등과 분쟁 상황에서의 선교’ ▲소윤정 박사(아신대)를 좌장으로 유은혜 박사(연세대)가 ‘모형과 원형-분열과 화일의 양극화를 넘어서기 위한 세계기독교의 기반’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바르네크의 자립 이론과 성경에 기초한 전략 실천해야

먼저, 특별강연을 한 전호진 박사는 “구스타프 바르네크(Gustav Warneck :1834-1910)은 현대 선교학의 개척자이며 아버지이다. 바르네크는 독일 복음주의 선교 이론의 기초를 낳은 세계적 선교학자”라며 “그의 선교사상은 미국 복음주의 선교운동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전 박사는 “바르네크는 1896년 할레대학교 선교학 교수로 취임하는데, 할레대

학교는 1692년 독일 경건주의자 Philipp J. Spener와 August H. Francke가 세운 학교이다. 모라비아 선교운동의 창시자 진젠돌프도 이 학교 출신”이라며 “바르네크는 1896년 이 대학교 선교학과 교수로 취임한다. 할레대학교가 구라파에서 선교학을 시작한 최초의 학교가 된다. 그 뒤를 이어 튀빙겐 대학을 위시한 몇개 대학교에서 선교학이 정식과목으로 채택되었다”고 했다.

이어 “바르네 연구의 필요성은, 그가 영국과 미국의 복음주의 선교운동과 신학에 미친 영향 때문”이라며 “그의 선교 신학의 뿌리는 독일 경건주의로서, 경건주의 핵심은 영적 부흥과 교회내 교회의 교회관”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건주의 교회관은 참신자의 범위를 많이 좁힌다. 이것이 신학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된다. 영적으로 참신자여부는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는 것이 우리들의 교회관”이라며 “바르네크는 교회내 교회 이론에 근거, 교회 소수의 헌신자들이 참 교회로, 이들이 세계 선교의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그의 사상은 후일 초 교파 선교이론에 기초를 제공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는 “바르네크의 학문적 업적 중 중



펜케어넷 협동조합 창립사에서 주요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에 임하고 있다. 맨 앞줄 왼쪽에서 3번째가 이사장 황덕영 목사. ©펜케어넷

요한 것은Algemeinen Missions-Zeitschrift를 1874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이 선교 저널은 독일어 세계에 선교 정보와 이론을 제공하였다”며 “또, 1909년 가을에 스웨덴 선교회 대표 Dr. Waldenstrom은, 바르네크를 1910년 문학 노벨상 후보자로 스웨덴 학술원에 강력하게 추천하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아시아 기독교회의 저성장론은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19세기 독일 자유주의 신학이 절정에 도달한 시대에 바르네크는 복음주의 신학의 수호자 역할을 하였다”며 “지금 한국 선교는 선교지에서 이양의 단계라고 말하는데도, 이양과는 거리가

먼, ‘돈 선교’를 하고 있다. 바르네크의 자립 이론과 성경에 기초한 전략은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갈등과 분쟁 상황에 놓인 미래 사회 선교 방향 모색, 사역자의 책무

이어 두 번째로 발제한 장훈태 박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위기는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이 세계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강요한다. 인류 역사의 현주소와 선교적 미래의 방향을 알기 위해서는 영성과 지식의 지정학 지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신학교 교육 과정은 시대에 뒤쳐진 채 이러한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않는다”며 “지구촌의 갈등, 분쟁,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정치적 이해와 접근 없이 미래 선교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갈등과 분쟁 상황에 놓인 미래 사회의 선교 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 사역자의 책무”라고 했다.

장 박사는 “창조 이래 세계를 뒤흔든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이라며 “하나님의 특별 명령을 어긴 인간의 에덴동산 추방은 창조 이후 최대의 사건이다. 아담과 이브는 인류 역사에서 독점할 수 없는 갈등의 원인이자 동시 추방을 받은 자”라고 했다.

이어 “에덴동산에서 첫 인간의 추방은 하나님의 문화를 집단-국가특수한 인간이 차지할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강력한 질책”이라며 “하나님의 명령만 잘 지켰더라면, 인간은 에덴동산 이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즐길 수 있는 강력하고 다층적인 존재였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에덴동산 추방 이후 흉미로운 일은 모두 인간의 멸망을 조망할 뿐이다. 창세기의 창조 교리는 인간이 수 세기를 흐르는 문화를 섬세하고 광범위한 시각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런 시각은 모두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조 이래 인류가 지정학적으로 갈등과 분쟁 그리고 전쟁을 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하고 한탄할 줄 알아야 한다’(겔 36:32)”며 “갈등과 분쟁은 좌악으로 인해 정결하지 않은 생각과 눈과 마음이 황폐한 상태, 가증한 말과 행위가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눈과 마음이 황폐한 곳에는 황량하고 적막할 뿐이다. 인간의 가증한 말은 상대에게 신뢰받지 못한다”며 “이

같은 태도를 가진 자들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선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면서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아 기록함으로 살도록 하면서, 복음의 강력한 선포와 양육, 돌봄을 행하는 선지자 정신으로 책무를 다함으로 ‘좋은 삶에 대한 관심은 생존 자체임을 인식하도록 하되 좋은 삶에 대한 관심이 밀려나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한 “바울사도와 같은 포용성, 다양성, 대면을 통한 영접으로 하나님 나라 증거가 있을 때 갈등과 분쟁은 감소된다. 로마에서의 2년간 셋집에 머물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과 분쟁을 개의치 않고 다양한 사람과 만나 틈새로 복음을 전했던 것과 같다”며 “따라서 세계는 위대한 성장의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축소되는 인구, 축소되는 자원, 경제는 이 세계를 점점 축소시키고 있다. 축소되는 부스러기를 찾기 위한 경쟁은 치열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박사는 “인류 사회는 많은 갈등으로 우리의 미래와 기독교 선교 사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며 “불완전한 지도위의 갈등의 붉은 선을 화평의 하늘 선으로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과 미래의 방향을 해석하는 열쇠는 모두 성경에 있다”고 했다.

아울러 “지구상의 복음사역자들을 통하여 성경적 세계관과 심비(心碑)에 세기는 성경을 토대로 하는 외교, 경제, 국제정치, 교육의 영역에 확장되는 것만이 문제를 풀어가는 열쇠”라고 했다.

◆세계기독교, 모형존재론에 기초할 때 큰 잠재력 가져

마지막 세 번째로 발제한 유은혜 박사는 “기독교제국은 동일성의 원리(A=A)를 나타낸다. 나 자신이 천국도사가 되기 때문이며, 자신 안에 신성을 체취 신화되어 가기 때문”이라며 “자신이 모형이 아니라 이미지, 원형 그 자체가 되어버리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모형 존재론이 없다면, 스스로를 모형이라고 묶어둘 수 있는 제재가 없이 곧 자신이 원형, 그 이미지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것이 전적인 동일성의 원리”라고 했다.

그러나 “모형 존재론은 존재와 모형 (being and figure)의 위격적 결합물로서, 이 존재론에 기반한 세계기독교는 그 모형이 이미지 자체가 될 수 없으니, 자기 자신의 상황성(being)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편적인 상황신학으로만 빠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모형이기에 원형을 대면하고 그 원형과의 유사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른 모형들과 동일성 내의 유사성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기독교제국과 달리 모형존재론(being and figure)에 기반으로 한 세계기독교는 ‘존재(숫자)와 모형(형상의 계산)을 모두 증가시켜, 단순히 교회가 수직 증가만이 아닌,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땅을 가득 채울 때에, 모형들이 그들을 낳은 전체 원형과의 일치가 커지게

된다”며 “우리는 천국의 이미지를 닮아가고, 결국 천국교회와 같은 존재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유 박사는 “세계기독교가 모형존재론에 기초할 때에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세계기독교가 본래 가지는 그 ‘가속적 유사성’은 ‘일의성 내에서의 유사성’을 통해 더욱 분명해질 수 있다. 세계기독교는 자신의 궁극적인 기반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단일성’과 ‘복수성’ 혹은 ‘파편화와 화일성’ 사이에서 고민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어떤 이들은 포스트모던적 차이의 절대화는 끝났다고 결론짓는 이들도 있지만, 우리는 또 한편으로 이제는 ‘일치’라는 이름으로, 차이가 오히려 더 복잡해진 위계적 차이로 강화되었음을 주지하였다. 중세 기독교제국의 패러다임, 즉 먼저 모든 것이 다르다고 보는 ‘차이의 해석학’ 안에서 다른 내외 투과할 수 있고 주입될 수 있는 일치를 추구하는 기독교제국적 패러다임이 다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차이의 신학에 초점을 맞춰 온 기독교는 이제 신성한 공기를 불어넣어 대응해야 한다. 세계기독교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신체의 존재성을 긍정하면서도 관계성을 유지하며 전체주의는 피하는, 고유한 개별성과 상황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보편성, 개인의 구별됨이 살아있는 보편성에 기반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흡모된다”고 했다.

더불어 “모형 존재론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실체를 희생시키지 않으면서도 그 구별성이 분리되지 않고 관계성을 이루는 ‘동일성 내의 유사성’이라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 박사는 “신학은 ‘시대를 충실히 분별하려는 구체적이고 현대적인 노력이다. 모형존재론을 통하여 우리는 동일성 내의 유사성이라는 새로운 관계성을 출발시킬 수 있다”며 “모형과 그의 근원인 이미지의 관계는 모든 차이에 기초한 지나치게 파편화된 상황 신학이나 중세 기독교제국의 화일성이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동일성 속의 유사성을 지닌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모형존재론에 기초한 세계기독교의 선교적 미래는 단순히 존재의 총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형의 대표성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제 세계기독교는 더욱 자신의 원형이자 이미지인 천국의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대변하고 계시하게 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형상을 이 땅 위에 점점 더 분명하게 증거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직 거룩한 성전 되시는 어린양은 은혜롭게도 그분의 모형인 우리들을 통해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가져오시길 기뻐하신다”며 “예수그리스도와 그분 나라의 모형으로 부르신 소명 앞에 우리 존재를 기뻐하며 담담함의 증거로 세상에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발표회는 이후 종합토론으로 모든 일정을 마쳤다. 정지동 기자

KB금융그룹 | **세상을 바꾸는 금융**

증권사
PB

한 명씩은

알면
좋아요

이제, 내 투자에도 믿는 구석이 생겼어

비대면 프라이빗
자산관리 서비스

KB증권
PRIME CLUB

- ☑ 자산관리 규모 제한 없이!
- ☑ 누구나 전화나톡으로 똑똑!

PRIME 센터
무료 자산관리 상담
1566-0055

투자용 특약 **개비증권**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번호 제23-03627호(2023.09.26~2024.09.25)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은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장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금융투자상품은 자산 가격 변동, 환율 변동, 신용 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일부 또는 전액)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수수료(비대면 계좌) HTS/증권이치 0.015%/모바일 0.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 거래 이자율은 비대면 계좌(또는 위탁수수료 혜택계좌)가 영연정 개심 계좌보다 더 높게 적용됩니다. (비대면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5.5%, 일반 계좌 최대 연 9.1%~최소 연 4.9%) *PRIME CLUB 1만 원 결제 유형(자동이체)으로 가입 시 월 1만 원 이용 요금 증감되며, '프라이빗클럽 매월 1종목 중정 이벤트'에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프라이빗클럽 매월 1종목 중정 이벤트' 공지 참조) *PRIME CLUB 무료 회원 가입 시 별도 비용 없이 계속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KB증권

교정상담학회, 20일 ‘교정현장과 교정상담’ 온라인 학술대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상담학회 교정상담학회(회장 전오섭)는 오는 20일 오전 9시부터 ‘교정현장과 교정상담’을 주제로 온라인 춘계학술대회를 ZOOM을 통해 개최한다. 이날 발제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교도소인 소망교도소장 김영식 박사의 ‘수형자 및 출소자 재범예방 프로그램’, 국립법무병원장을 역임한 조성남 교수(울지대학교 중독재활복지학과)의 ‘마약류 중독의 실태와 이해에 대한 강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김영식 교도소장은 20여년간 법무부 교정본부 및 군산, 부산교도소장 및 구치소장 등을 역임하면서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교정교육 및 상담을 담당해왔다. 특히 김 소장은 교정관련 법학박사를 취득해 이론과 실무에 대한 전문역량을 갖춘 교정전문가다. 그는 재범 예방에 대한 연구에 몰두해 개발된 독특한 상담기법을 급변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성남 교수는 신경정신의학과 전문의로서 법무부 치료감호소를 비롯해 정신질환 수형자를 치료하는 국립법무병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마약류 중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국내 대표적인 학자다. 현재 대한법정신의학회 회장으로 봉직

하고 있다. 또 울지대학교 중독연구소장을 맡고 있다. 그는 그간 중독에 대한 연구와 임상 등을 거쳐 확보된 이론과 기법을 교정상담과 접목해 발표할 예정이다. 학회의 사전등록기간은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6일 오후 6시로 학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학술행사 신청란에 들어가면 등록신청 할 수 있다. 등록비는 회원 40,000원, 비회원 45,000원이다. 기타 문의사항은 이메일이나 문자로 가능하다.(kcca21002@counselors.or.kr, 010-3211-6100) 노형구 기자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찬양 평생 기억 되도록...”

세시봉 윤형주 장로, 최근 뉴저지온누리교회서 간증

1960~1970년대 송창식·조영남·김세환과 같이 세시봉에서 활약한 대한민국의 포크 가수이자 작곡가 윤형주 장로(한국해비타트 이사장)가 최근 뉴저지온누리교회(담임 Marc Choi)에서 간증했다.

윤 장로는 “어릴 때부터 찬송을 접하고 좋아했다. 저는 6.25 전쟁을 기억하는 마지막 세대이다. 우리집 현관이 폭격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고, 포성이 들리는 부산으로 피난 가는 길에 저를 꼭 껴안고 귓전에 찬송을 불러주시는 분이 있다”고 했다.

이어 “그분의 찬송이 제가 자라면서 저의 찬송이 되었고, 결혼하면서 제 아내의 찬송이 되었고, 아이들의 찬송이 되었다. 그리고 2003년 뉴욕 카네기홀에서 최초로 가족공연을 하기도 했는데, 이 곡을 마지막에 불렀다”며 “이 곡은 바로 어머니이신 김귀순 권사가 불렀던 곡이다. 제가 찬양을 좋아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은혜를 알았다면 나가서 전하라는 말씀이 들렸다”고 했다.

그는故 하용조 목사님에 대해서도 말했다. 윤 장로는 “만 27세의 전도사님일 때 저는 알게 되었다. 하용조 목사님은 조직신학에 강하셨다. 성경을 쉽게 설명했다. 그로 인해 많은 연예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제 목소리는 제 것으로 알고 살아왔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하나님이 하나씩 주신 것”이라며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을 때는 노래하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목소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를 생각하길 바란다”며 어머니가 들려주시고 자신이 첫 번째로 불렀던 찬송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곡을 불렀다.

윤 장로는 “가나안 혼인잔치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처음으로 기적을 베푸신다.



윤형주 장로. ©뉴저지온누리교회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빈 독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 가져다주라’고 말씀하셨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다”며 “또, 바디매오라는 시각 장애인이었다. 그의 평생소원은 눈을 떠서 세상을 한 번 보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모든 병자를 치유하시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는 간절한 마음으로 크게 외쳤다. 그때 예수님의 한 마디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말이었고, 바디매오는 눈

을 뜨게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만 하셨다”고 했다.

이어 “저의 인생이 그러했다. 저는 물 같이 살았다. 주님이 말씀으로 물 같았던 저의 인생을 그분은 포도주처럼 값지게 만드셨다. 그리고 좌충우돌과 같았던 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셨다”며 “그분은 내가 알지도 못했던 지난 나의 인생에 깊이 개입·간섭·동행 하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했다.

또 “250명의 연예인이 연루된 대마초 사건에 저도 대마초 소지죄로 잡혀 갔을 때, 제 인생의 결론은 죽음이었다”며 “왜 연예인들이 자살을 하는가? 연예인이 박수 받던 자리에서 손가락질 받는 자리로 간다는 것은 파멸이며 저주인 것이다. 그때 그분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나를 죽음에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셨던 것”이라고 했다.

윤 장로는 “예수 믿게 된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바란다. 꼬여 있는 실타래와 같았다. 안 풀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분

(주님)이 주신 것은 평화였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놀라운 삶의 비결을 깨달았다”며 그때 자신이 만든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를 불렀다.

그러면서 “부모님들께서 이 찬양을 부른다면 꼭 아이들에게 이 찬양이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설명해 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아이들의 귓전에 어머니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찬양이 평생 기억 될 수 있도록 찬양하시는 어머니들이 다 되길 바라며, 또 기도해주시길 바란다. 말씀은 능력이 있고, 찬양은 힘이 있다”며 찬양 주 내 맘에 모신 후예를 불렀다.

그는 “집 없는 가정들에게 안락한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운동’에 30년 동안 섬겼고, 현재 한국해비타트 이사장으로 있다”며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001년에 한국에 왔을 때, 한 기자가 수많은 정적을 살피었던 지미 카터에게 말년에 편한 삶을 택하지 않고 백악관으로

돌아와 망신 당한 일을 언급하며 지미 카터의 제일 아픈 부분을 지적했다. 이어 지미 카터의 말은 제 인생에 중요한 좌표가 되었다”고 했다.

이어 “지미 카터는 ‘하나님이 나를 미국의 대통령으로 삼아 주신 것은 나를 대통령으로 사용하시기도는 대통령 이후의 나의 삶을 사용하시고자 그분은 나를 대통령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했다”며 “지미 카터는 대통령 이후에 그의 삶이 빛을 바랬다. 그는 고향에서 주일 예배 때 아이들을 가르치며 섬김의 삶을 살았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평화 전도사’라고 했다.

아울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것이 섬김이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것이 섬김”이라며 “우리는 그분을 닮으려고 애를 쓴다”며 끝으로 찬양 ‘왜 날 사랑하냐’를 불렀다. 노형구 기자

예장 국제연합총회, 오는 10일부터 한국에서 첫 정기총회

2004년 미국에서 창립... 현재 전 세계 26개 노회·560여 교회

미주 한인교회들이 중심이 된 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UPCA)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파주시 오산리회자실기념급식기도원에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라’(엡 6:19)라는 주제로 제 21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UPCA는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이번 총회를 앞두고 8일 오전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에 교단을 소개하는 시

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총회장인 김윤식 목사, 부총회장 김영민 목사, 증경총회장 황의춘 목사가 참석했다.

UPCA 측은 “그동안 UPCA 교단이 지역적으로는 여러 대륙이 포함되고 다양한 현지 인종들이 소속되어 있지만 교단을 인도하는 주류가 재미 한국인들이며 또한 총회 사무실도 미국에 있어 한국에는 알려지지 않은 교단이라는 교단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한국 총회에 대해 “남미 등의 현직인 회원들이 한국 개최를 원했다”며 “이를 기회로 모국 교회에 인사드리고 교단을 소개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교단 측에 따르면 UPCA는 지난 2004년 3월 24일 미국 동북부의 뉴욕과 필라델피아를 중심으로 한 동노회, 미 서부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 한 서부노회, 미 동남부의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한 동남노회, 남미의 볼리비아 노회 등 4개 노회로 시작했다.

교단의 주요 창립정신과 목표는 △글로벌 공동체로 복음 안에서 연합과 일치 추구 △교관주의, 배금주의, 물질주의, 세속주의 배격 △은혜와 경건, 영성과 선교 중시 △성경과 진리가 교단 헌법과 관례보다 우위 △총회보다 노회, 노회보다 개교회의 차리권 더 존중 등이다.

아울러 교단 측은 “1600년대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1700년대 뉴잉글랜드의 대각성 영적운동 및 존 웨슬리 부흥운동, 1800년대 무디의 부흥운동과 세계선교 부흥의 역사, 1900년대 웨일즈 부흥운동과 CNMA(Christian and Mission Alliance) 선교운동, 1907년 평양 부흥운

동의 신앙정신을 표본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UPCA는 교단 창립 후 21년이 지난 현

재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등에서 총 26개 노회와 560여 교회가 회원으로 있다. 국내에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신교회), 총회장 차동욱 목사와 제휴를 맺고 있다.

황의춘 증경총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UPCA는 개혁주의 신앙 정체성을 가

지고 있고, 복음주의 신앙을 공유한다”고 했고, 김윤식 총회장은 “우리 교단은 세계교회협의회(WCC)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동성애를 배격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한국에서 열리는 총회에는 100여 명의 총회대의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예수교장로회국제연합총회(UPCA) 관계자들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한국 총회를 앞두고 8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왼쪽부터) 증경총회장 황의춘 목사, 총회장 김윤식 목사, 부총회장 김영민 목사. ©김진영 기자

굿피플, 광주서림교회 청년부와 저소득 가정 여성청소년 도와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광주서림교회(담임목사 최용화) 청년부가 사순절 나눔 캠페인으로 마련한 후원금 350만2천원을 동백꽃 선물함 캠페인에 후원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서림교회 청년부는 2024년 사순절을 맞아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 ▲40구절 성구 암송 ▲4복음서 통독 ▲새벽기도회 참석 ▲매일 1천원씩 적립하는 444 챌린지에 참여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 광주서림교회 청년부가 모은 후원금은 총 350만2천원에 달한다. 광주서림교회 청년부는 지난 7일 열악

한 환경에 놓인 여성청소년을 돕기 위해 후원금 전액을 굿피플의 ‘동백꽃 선물함’ 캠페인에 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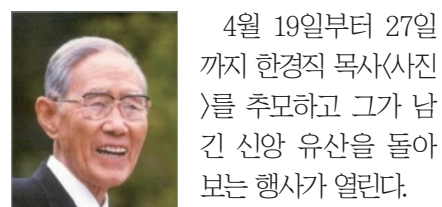
동백꽃 선물함 캠페인은 열악한 환경에 놓인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캠페인이다.

동백꽃 선물함에는 생리대, 파우치, 여성청결제, 속옷 등 위생용품 및 생필품이 담겼다. “그 누구보다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동백꽃의 꽃말처럼 여성청소년이 선물함을 통해 위로를 받고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최승연 기자



굿피플은 광주서림교회 청년부가 사순절 나눔 캠페인으로 마련한 후원금 350만2천원을 동백꽃 선물함 캠페인에 후원했다고 밝혔다. ©굿피플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19일부터 故 한경직 목사 추모 행사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한경직 목사(사진)를 추모하고 그가 남긴 신앙 유산을 돌아보는 행사가 열린다. 한경직 목사를 기리는 행사는 사단법인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이사장 김운성 목사) 주최로 영락교회와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의 영락공원묘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故 한경직

목사의 24주기를 기념하는 것으로 ‘그 사랑에 빛진 자(요 3:16)’를 주제로 추모예배, 전시회, ‘한경직상(賞)’ 시상식 등이 예정되어 있다.

4월 19일에는 영락공원묘원에서 한경직 목사 추모예배가 열릴 예정이다. 이어 4월 19일부터 27일까지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 기념관 2층 전시실에서 ‘한경직 목사의 템플턴상 수상’을 주제로 한 전시회가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는 한경직 목

사의 삶과 신앙 여정 중에서 템플턴상 수상의 업적을 되짚어보는 자료들을 전시할 예정이다.

특히 4월 21일 주일에는 영락교회 본당에서 ‘한경직상(賞)’ 시상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경직 목사의 삶과 신앙을 기리고 이를 후대에 계승하고자 만들어진 것으로 이 상은 초교파적으로 교육·선교·봉사 부문에서 활약한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노형구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페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총 개선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페' 채널 판매처 | 전국 아리따움 및 올리브영 매장
※이상 7일 후, 인체 적용 시험 결과 (시험기간: 2023.01.26~2023.03.10 [시험대상] 성인 여성 30명 [시험기관] [전립선]연구소)

그렉 로리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가 되려면”

미국 하베스트크리스천펠로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을 이끌고 있는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가 최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이라는 칼럼을 크리스천포스트에 기고했다.

로리 목사는 칼럼에서 “몇 년 전 한 설문조사는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1981년부터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표가 부와 명성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 세대 가운데 4명 중 1명은 유명해지기 위해 현재 직장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6명 중 1명은 자녀를 갖는 것보다 명성을 선택한다. 그리고 놀랍게도 12명 중 1명은 유명인이 되기 위해 가족을 버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팔로워들을 향한 이 강렬한 열망은 왜일까?”라며 “우리는 우리의 삶이 중요해지기를 원한다. 세상에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꿈을 꾸고, 알려지고 싶고 영향력을 갖고 싶어한다”고 전제했다.

그는 “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매일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있다. 우리에게 세계적인 명성이나 놀라운 재산이 없었지만, 친구, 가족, 동료들을 정기적으로 볼 수 있는 플랫폼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당신이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다. 그 영향력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은 좋은 영향력인가, 나쁜 영향력인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그렉 로리가 제시한 하나님 나라의 인플루언서가 되기 위

해 고려할 4가지이다.

1. 세상의 빛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주제에 대해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5장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태복음 5:14-16 NLT).

왜 예수님은 이 그림 언어를 위해 “빛”을 선택하셨을까? 그것은 우리 주변의 세상이 어둡고 부패했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화는 어둡고,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지난 세기 동안 인류는 과학, 의학, 역사, 교육, 심리학, 기술 지식에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을 바꾸지 못했다. 우리는 평화나 마음의 평안을 찾지 못했다. 우리는 사회를 부패시키고 파괴하는 더 많은 방법을 고안했을 뿐이다.

국가들은 아직도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다.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 도덕적 타락은 정도를 넘어섰다. 부패는 더 큰 부패로 이어진다. 우리는 계속 나선형으로 하향곡선을 그리며 내려가고 있으며,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생각할 때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이 좋아지기 전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렉 로리 목사 ©CP

악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빛은 이 상황에서 어디에 들 어맞을까?

2. 가장 작은 빛이 주목받는다

한여름의 밝고 화창한 날을 떠올려 보라. 하늘은 맑고 푸른색이다. 눈을 가늘게 떠야 볼 수 있다. 그리고 촛불을 켜보라.

그 촛불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까? 매우 적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빛을 알아차리지도 못할 것이다. (결국 그들은 햇빛 때문에 눈을 가늘게 뜨고 있다)

이제 당신이 밤에 거대한 창고 지하실에 있는 어두운 옷장 속에 있다고 상상해 보라. 창문도 없고, 전등도 없고, 아무 것도 없다. 그것은 가장 깜깜한 어둠이다. 그런 다음 촛불을 켜보라.

그 촛불이 주목을 받을까? 물론이다! 어두운 곳에서는 예기치 않은 빛의 근원

을 향해 몸을 돌릴 수밖에 없다. 당신은 숲으로 캠프를 가서 밤에 모닥불을 피운 적이 있는가? 그것을 쳐다보지 않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세상은 빛이 필요한 어두운 곳이며,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주목을 받는다. 작은 빛이라도 항상 도움이 된다. 당신은 기독교인들이 우리 문화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자주 듣는다. “세상은 점점 엉망진창이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예언했기 때문이다! 나는 디모데후서의 완전한 유대인 성경 번역의 명쾌함에 감사드린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디모데후서 3:13 CJB).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참으로 정확하게 묘사했다!

어둠은 빛을 필요로 한다. 여러분은 단

지 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가장 어두운 곳의 작은 촛불일 수 있지만, 당신의 빛은 주목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빛을 숨길 수 없다.

3. 문화로 침투하라(피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목표는 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좋은 소식인 복음의 빛으로 세상에 침투하는 것이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이 점을 매우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비유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 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요한복음 17:15,18 NLT).

신자로서 우리는 적의 영토에 살고 있다는 것과,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세상에 빛을 비추길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이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복음의 메시지와 대조하여 문화를 충분히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

종종 신자로서 우리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아 좌절감을 느낄 때가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과 다른 언어로 말하기 때문이다! 길모퉁이에 서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겼습니까?”라고 외쳐도 별로 반응을 얻지 못한다고 해서 놀라지 마라.

우리 신앙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사실, 그들은 아마 그 말을 거부할 것이다.

그 대신, 우리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로 번역해야 한다. 마스 언락에서 바울은 믿지 않는 청중들에게 말했다고, 그들의 이교도 사인들과 종교적 관습에 대한 지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친숙함을 사용하여 구원의 진리를 가르쳤다.

4. 극적인 차이

당신은 명성이나 부를 갖지 못할지 모르지만, 분명히 당신은 영향력 있는 사람(influencer)이다. 세상은 당신의 빛을 보길 원한다. 그러나 감추지 마라. 우리 주변의 어둠으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으로 문화에 침투하라. 어두운 곳에서 이것은 분명히 주목을 받을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경건한 남자나 여자라도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극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세상이 당신의 선한 행동을 보게 하라.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 주라. 그들에게 문화에 대한 당신의 이해뿐만 아니라, 그것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하는 당신의 능력을 보여라.

우리의 세상은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만 일어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말하고, 보여주고,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어떻게 알겠는가? 당신의 빛을 비추라! 유진 김 기자

민족학교 “민족학교 장학금 신청하세요”

민족학교(사무국장 김진우)가 한인 청소년을 비롯한 아시아 태평양계 청년들을 위한 ‘2024 민족학교 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민족학교(KRC) 장학금은 민족학교 창립자 중 한분이자 전통문화 유산과 민주화 운동을 통해 청년들을 일깨우는데 앞장섰던 (고) 정봉 최진환 박사를 기리기 위해 매년 실시되며 올해는 뿌리, 흥이, 드림 장학금 3명에게 각 2000 달러를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한인 또는 아태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대학교 재학생 또는 2024년 가을학기 입학 예정자다. 특별히 드림 장학금은 서류미비 학생을 위해 별도로 배정되어 있다. 미전역 어디에서나 신청할 수 있으나 모든 수상자는 5월 18일로 예정된 장학금 수여식(직접 또는 온라인)에 반드시 참석



2018년 5.18 민주항쟁 38주년 기념식 및 정봉 장학금 수여식에서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민족학교

해야 한다.

장학금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추천서, 에세이를 포함한 모든 신청서류를

오는 4월 15일까지 온라인(영문: <http://krcla.org/scholarship>)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센터메디컬클리닉 3번째 정기 건강 세미나, 뜨거운 호응

센터메디컬클리닉 가든그로브 지점이 ‘역류성 식도염’ 주제로 지난 4월 4일 건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시간 임유일 내과 전문의는 한인 시니어들에게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위험성과 그에 따른 역류성 식도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식습관과 올바른 식단 등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설명했다.

로컬의 많은 시니어들이 위와 식도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모습을 안타까워했던 센터메디컬 클리닉의 임유일 내과 주치의는 이번 세미나 주제를 통해 많은 시니어들이 정보를 알아가기 위한 마음을 담아 이와 같은 주제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건강 세미나에 참여한 시니어들은 평소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역류성 식도염과 위 식도 질환을 속 시원히



센터메디컬클리닉 정기 건강 세미나

해결했다며 기뻐했다.

서른명 가까이 클리닉이 꼭 차게 참여한 이번 세번째 건강 세미나는 뜨거운 호응 속에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으며, 벌써 다음 세미나가 언제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이날 센터메디컬 그룹은 건강 세미나에 참석한 시니어들에게 주제에 맞는 위 건강을 위한 양배추즙과 정성스러운 떡, 그리고 다양한 선물이 들어있는 구디백을 전달함으로써 더욱더 풍성한 건강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김민선 기자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쓰세요!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비정액형 일반저축 상품명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공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보험보안) 노란우산은 예금보험보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액 지급에 필요한 채권확보를 위해 매 결산마다 납부공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한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중랑구교구합, 중랑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담·토론회 개최

중랑갑 서영교·김삼화 후보, 중랑을 박홍근·이승환 후보 참석

중랑구교구협의회(회장 조희서 목사)가 지난 30일 서울씨티교회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을 비롯하여 차별금지법, 교회와의 협력 방안 등 각 이슈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었다.

중랑구교구협의회 상임위원장 문영용 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대담·토론회에는 중랑갑에서 서영교 후보(더불어민주당), 김삼화 후보(국민의 힘), 중랑을에서 박홍근 후보(더불어민주당), 이승환 후보(국민의 힘)가 참여해 각 주제에 대해 발언했다.

조희서 중랑구교구협의회 회장(서울씨티교회 담임목사)은 “전국 시도에 대개 20% 내외의 기독교인이 분포돼 있는데, 중랑구만 30%를 넘어간다”며 “중랑구는 교회의 표심이 마지막 당락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는데, 아모스 선지자의 말처럼 공의와 정의를 물 같이 흐르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정치, 행정, 국민을 섬기는 일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랑구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공약
서영교 후보(중랑갑)는 이날 발전하는 중랑구, 교육의 메카 중랑구, 교통의 요충지 중랑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 후보는 “10여 년 전 중랑구 예산이 3,200억 원에서 1조 700억으로 늘면서 중랑구가 좋아지고 있다. 더 많은 예산을 만들어 중

랑구를 발전시켜 내겠다”고 말했으며 “또 교실 첨단화를 통한 스마트한 학교를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랑구 공동체개발이 서울에서 최대 면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중랑구를 발전시켜 자랑스러운 중랑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삼화 후보(중랑갑)는 주거, 경제, 교통을 통한 중랑구 발전 공약을 밝혔다. 김 후보는 “주민이 원하는 대로 신속하게 해결하여 중랑구 노후주택 정비를 통해 주거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랑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중랑 지역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패션복제업을 발전시키고 소상공인, 전통 시장 상권 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박홍근 후보(중랑을)는 신내 첨단미래도시, 상봉-망우 교통허브, 중화-목동 명품주거도시 조성을 3대 축으로 대규모 개발 등을 통해 중랑구를 동부권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SH 조기 완공, GTX-B 조기개통, E노선 신내역 정차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체통합개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신내 택지 재건축, 광역형 교통허브 망우역, 상봉-망우 복합개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와 철도지상구간 지하화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중화-목동 노후 주거지 재개발, 동부간선도로 조기개통 및 생태수변공원 착공, 공공복합청사 건립 등을 밝혔다.



중랑구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담·토론회가 서울씨티교회에서 열렸다. ©서울씨티교회

이승환 후보(중랑을)는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여 중랑구 주민의 자부심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 계획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40대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하이브리드 근무제, 시차 출퇴근, 근무마일리지 제도 등을 만들어 한다”고 말했다. 또 “신내차량기지 이전, 망우복합역사 개발, 면목선 경전철 추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등 대형 현안 사업이 이야기 나온 지 10~20년이 지났는데, 이 큰 과제를 위해 서울시와 정부 여당이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견해
서영교 후보(중랑갑)는 성적지향이나 성적정체성에 대한 의견의 차이로 인해 누군가를 차별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성적지향이나 성적정체성에 대한

발언과 주장은 할 수 있으나, 차별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모두 동의하는 내용”이라며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을 다르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차별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도 차별금지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삼화 후보(중랑갑)는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평등 이념에 따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데, 차별금지법안에 성적지향을 포함하면서 이후 처벌까지 할 수 있는 조항 때문에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많은 반대가 있었다”라며 “성적지향을 포함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반하는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모든 사

회구성원이 동의하면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선불리 허용하면 종교적, 사회적 혼란을 더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홍근 후보(중랑을)는 차별금지법 논의 과정에서 국회의 갈등 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정 역할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는 “대한민국 헌법상 규정하는 평등의 조항이 예외 없이 적용되고 각 분야에서 당연히 실현돼야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에 없던 성별 정체성이 명시되며 걱정을 자아내게 만들었다”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하는 측면이 있어 교회의 큰 우려와 걱정이 있고, 인구 초저출산의 우려까지 잘 알기 때문에 당에서 원내 대표를 할 때 이 논의가 급진적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조정했고, 이후에도 잘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환 후보(중랑을)는 차별금지법이 소수자 보호를 넘어 오히려 다수를 억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성적지향을 포함하여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에 동의해야만 정당한 사회구성원인 양 몰아가는 정치적 행태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보고, 오히려 억압받을 때는 대다수 일반 국민이 보호받을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교회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서영교 후보(중랑갑)는 중랑구 교회들이 아동센터, 노인대학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중랑

구와 교회와의 관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는 “나라와 학생, 민족의 영웅들을 위해 애쓰는 교회 목사님들과 중랑구교구협의회, 성도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교회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삼화 후보(중랑갑)는 교회가 영혼 치유와 봉사활동, 복지를 통해 지역사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교회가 지역 발전과 복지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하는데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드리는 많은 기도가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원동력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교회의 역할을 높이 평가했다.

박홍근 후보(중랑을)는 “중랑구교구협의회를 중심으로 나라와 지역 발전을 위해 합심 기도도 하지만, 중랑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함께 협력할 일이 많을 것”이라며 “중랑구 사회복지를 통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공헌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환 후보(중랑을)는 그동안 교회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과 헌신을 높이 사면서 정치권에서 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를 향한 교회의 열정이 중랑구와 대한민국의 다음세대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 코로나 이후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국교회를 위해 정치권의 막힌 뚫고, 지역사회에 갇혀 있던 허들을 치우겠다”고 밝혔다. 이희희 기자

안보칼럼 9

국가보훈과 국립묘지(3)



이범희 목사

동작동은 한양과 과천을 오가는 동계기 나루에서 유래되었는데 겹겹이 구리 빛깔의 돌이 쌓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동작동 국립묘지는 우리나라

의 첫 기역과 추모의 터이다. 민족사의 혈맥을 이은 분들과 만나는 장소이다. 정문에 들어서면 충성분수대를 만난다. 각 군을 대표하는 여섯 명의 병사들이 사방을 응시하고 있다. 멀리 현충문 뒤로 현충탑이 보인다. 중앙의 현충탑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 묘역에 5만 4천 여기가 질서 있게 들어서 있다. 봉안된 위패와 안치된 유골을 포함하면 총 19만 1천여 위에 이른다.

서울 현충원의 전체 면적은 143만 제곱미터(약 432천 평)이고 ①국가원수 묘소 ②임시정부묘역 묘소 ③독립 유공자 묘역 ④국가 유공자 묘역(3개소) ⑤장군 묘역(3개소) ⑥장병 묘역 ⑦경찰관 묘역 ⑧외국인 묘소로 구분되며, 그중 장병 묘역이 56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충훈당 2개소, 무후선열제단과 위패 봉안관(무명용사 유골안치 봉안실)이 있다.

추모탑은 ①호국영령 무명용사비 ②현충탑 ③충열대 ④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위령탑 ⑤제일 학도의용군 전몰용사 위령비 ⑥경찰 충훈탑 ⑦육탄 10용사 현충비 ⑧학도의용군 무명용사 탑 ⑨유격부대 전적위령비 ⑩파월 전몰장병 추모비 ⑪충성 분수대 ⑫호국 승천상이다.

이렇게 서울 현충원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의 유쾌이자 안식처이다. 자유대한민국의 건국과 호국의 밑거름이 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영혼을 위로하고 감사를 드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경건한 장소이지만 일상에서 선열들을 만나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립묘지는 집단 기억을 통해서 국가와 국민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단합과 통합에 이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국립묘지는 무명용사의 묘와 함께 자유민주국가의 최고의 상징이다. 전제 왕조국가는 왕실의 존귀함을 과시하며 국민을 존중하지 못했다. 하지만 전사한 병사들을 국가가 주관하며 전 국민이 추모의식을 행하고 존경하는 것이 근대 국가의 공통점이다. 국립묘지는 계례의 혼과 민족의 정기가 서린 곳이다. 자유 대한민국은 이미 치러진 희생과 치를 준비가 되어있는 희생의 옥구에 의해서 구성된 거대한 결속이요 공동체이다.

매년 6월 6일은 현충일로서, 전 국민이 일손을 멈추고 정각 10시에 오늘의 나와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존중하고 추모하는 목념을 한다. 목념의 뜻은 그분의 정신과 마음속에 내가 들어가서 그 뜻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충일은 1953년 6월 6일 육, 해, 공군 합동 전몰장병 추모식에서 시작되었고, 1956년 현충기념일로 승격해서 새로 개장된 현 서울 현충원에서 거행되었다. 그날 이승만 대통령 담화문의 일부이다. “이날을 국경 공휴일로 하여 관공이 사업을 정지하고 순국의사를 추모하며 일편으로는 우리나라 역사에 영광스럽고 빛나는 영예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니 다른 나라에서 지켜오는 메모리얼 데이 가 되는 것이다.”

6월은 6.25가 들어있는 달이라 상징성이 있고, 그해 6월 6일은 24절기 가운데 망종이었다. 망종은 한 알의 씨앗이 새싹을 틔우는 것처럼 재생의 뜻이 있다. 호국

용사들의 값진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이날을 현충일로 정한 것이다.

영국의 현충일은 검은 옷을 착용하고 시종 엄숙한 분위기에서 전사자에게 추모의 초점을 맞춘다. 미국은 일상복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대령이나 합참의장의 연설을 들으며 국가에 대한 긍지와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우리 국립묘지의 현충탑은 31m 높이로,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키는 십자(+) 형태로 되어있다. 왼쪽 석벽에는 5인의 애국투사상이, 오른쪽 석벽 끝에는 5인의 호국용사상이 있다. 제단 앞에는 “여기는 민족의 얼이 서린 곳 조국과 함께 가는 이들 해와 달이 보호하리라”는 문구가 있다.

현충탑 아래 지하에 위패 봉안관이 있다. 중앙에 순백색 영현 승천상과 호국영령 무명용사비가 서있고, 벽면에 유해를 거두지 못한 전사자 10만 3천여 개의 검

은 색 위패가 빼곡히 걸려있다. 호국영령 무명용사비 아래 지하에는 무명용사 봉안실이 있다. 봉안실에는 6.25 전사자를 대표하는 무명용사 1위와 무명용사 5,870위가 합점으로 모셔져 있다.

서양에도 나라마다 수도의 중심부에 무명용사의 묘를 세웠다. 영국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역대 왕들 사이에 무명용사를 안치하여 국왕의 반열에 올랐다. 프랑스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가 무명용사의 묘에 꺼지지 않는 불꽃을 설치하고 불멸의 충혼을 기리고 국가의 영원함을 기원한다.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의 무명용사의 묘는 국가 최고의 성소이다. 의장병을 배치하여 1년 내내 24시간 경계를 서게 하고 있다.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은 누가, 어떻게, 건국하고, 지켜내고, 발전시켰는가? 따뜻한 봄날에 우리에게 양지를 내준 분들을 만나보자!

이범희 목사(6.25역사기록연대 부대표, 6.25역사위원장)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오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홍콩 가톨릭 신자들 “새로운 보안법 통과... 종교 자유 침해 우려”

홍콩에서 새로운 보안법이 통과된 이후 현지 가톨릭 공동체가 신앙의 핵심 교리 중 하나가 위협 받는다는 우려를 제기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제23조는 '타인의 반역죄를 알리지 않은 행위를 형사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장기 징역형을 선고될 수 있다.'

인권 단체와 교인들은 이것이 가톨릭 교리에서 불가침적이고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고백서의 봉인 아래 공유된 비밀을 폭로하도록 사제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영국 옹호단체 홍콩워치(Hong Kong Watch)는 홍콩 입법부 통과 과정에서 법률이 제기하는 위협을 경고하는 서한을

발행했으며, 이는 개인의 종교적 자유와 권리를 지지하는 세계인권선언 제18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많은 종교 전통,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고해성사(화해성사)로 알려진 의식의 실천은 절대적으로 중추적이고 신성불가침한 종교적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고해성사의 핵심은 비밀 유지라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원칙에 있다. 사제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참회자가 그 범죄를 당국에 자백하도록 권장할 수 있지만, 사제는 이를 스스로 신고할 수 없으며 결코 구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중국 정부 대변인은 이 단체가 "반중국적이며 고의적으로 허위 진술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반역죄와 반역죄로 인한 죄

는 종교인이나 추종자를 표적으로 삼지 않으며 종교의 자유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며 "어쨌든 종교의 자유는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법적 제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부들은 보안군이 신부들을 투옥하겠다고 협박하거나, 구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원들을 고해소에 보내거나, 심지어 교회에 정취 장치를 설치하는 등 고해소의 신성함을 침해하기 위해 법을 사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한 신부는 영국 매체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이 법은 머리 위의 칼과 같다"고 묘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신부들은 "이 법안이 회중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을 충실하게 유지하는 데 어려



2019년 9월 6일 홍콩 시민들이 중국 본토에 범죄인에 대한 소환 권리를 인정하는 '홍콩 범죄인 인도법'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던 모습. ©Joseph Chan/ Unsplash.com

움을 줄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또 다른 신부는 "우리 참된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실제로 우리는 온전한 복음을 전파할 수 없고, 온전한 진실을 말할 수 없으며, 공산주의의 악과 그것이 역사에 끼친 해악에 대해 우리 국민들에게 경고할 자유가 없다"라고 했다.

홍콩 가톨릭교구는 새로운 법안에 대해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이 고백성사(화해성사)의 기밀성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은 국가적 보호를 받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은 교화에 새로운 법안을 비난하는데 있어 보다 확고한 입장을 취할 것을 촉구했다.

홍콩워치는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친민주주의를 지지한다면서 이 법안이 은밀하게 홍콩의 종교를 탄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홍콩 당국의 목표는 종교에 대한 물리적 탄압 대신, 종교 지도자와 종교인들이 그들이 누리는 기본적인 예배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 검열, 타협, 굴복할 의무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 “나는 문화적 기독교인”

무신론자로 알려진 리처드 도킨스 박사가 자신을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칭하며 유럽에서 신앙의 문화적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도킨스 박사는 부활절을 맞아 영국 언론인 레이첼 존슨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영국은 기본적으로 기독교 국가이며, 기독교에서 나온 종교를 믿지 않지만 여전히 개인적으로 기독교 정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진화론자이자 '만들어진 신의 저자인 그는 "난 스스로를 문화적 기독교인이라고 부른다. 난 신자는 아니지만 믿는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문화적 기독교인이 되는 것에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난 찬송가와 크리스마스 캐럴을 좋아하고 기독교 정신에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영국에서 기독교를 실천하는 사람의 수가 급감하고 있어 "행복하다"면서도 기독교가 쇠퇴하며 유럽에서 이슬람교



리처드 도킨스 박사. ©네이티브 킷

은 근본적으로 여성과 동성애자에게 적대적이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 신앙의 단 한 마디도 믿지 않지만, 문화적으로 기독교 국가에 살고 싶다"고 했다.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문화적으로 지배적인 이슬람이 군주제와 같은 영국 제도에 미칠 영향에 관한 예측에 대해 묻자, 그는 "내 생각엔 끔찍한 일이 될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기독교를 이슬람에 대한 보루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난 그것이 매우 좋다고 생각한다. 두 종교의 선교사들이 활동하는 아프리카에서 나는 '팀 기독교인'(Team Christian)에 속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킨스는 동성녀 탄생이나 부활과 같은 기독교의 근본적인 주장을 일축하고, 그러한 초자연적 주장이 말도 안 된다며 자신의 무신론적 신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적 관점에서 기독교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이미경 기자

기시다 “지정학적 긴장 고조가 일본의 안보정책 크게 변화” CNN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오는 10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세계를 '역사적 전환점'으로 몰아넣었고 일본이 방위 태세를 바꾸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7일 도쿄 총리공저에서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계속되는 중동 정세, 동아시아 정세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일본이 방위 능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한 이유이며 우리는 이러한 전선에서 일본의 안보 정책을 크게 변화시켰다"고 말했다.

점점 가중되는 안보 문제에 직면한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미국의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 견해를 워싱턴에서 초당파적 지지를 얻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기시다-바이든 정상회담은 북한의 무기 실험과 러시아와의 관계 확대부터 중국의 남중국해 및 대만에 대한 침략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위협을 모두 주시하면서 양국이 동맹을 현대화할 수 있는 역사적인 기회라고 미국은 평가해 왔다고 CNN이 전했다.

일본과의 파트너십은 오랫동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전략의 중심이었

지만, 세계 및 지역 안보에서 일본의 존재감 높은 기시다 총리 하에서 국방 관계가 확대됐다.

기시다 총리는 2021년 취임한 후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부과한 평화 협회에서 벗어나 일본 방위태세의 대대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국방비를 증액한 것과 관련,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 일본을 둘러싼 주변의 "심각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 주변에는 탄도미사일과 핵무기를 개발하는 나라도 있고, 불투명하게 국방력을 키우는 나라도 있다. 또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모두에서 무력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일방적인 시도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필리핀과 일본 모두와의 영토 분쟁과 관련된 중국의 해상 침략을 명백히 언급한 것이라고 CNN이 지적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역지력과 대응 능력을 구축하는 것도 미국과의 동맹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이를 이해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개선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 방문을 통해 미국과 일본이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것임을 전세계에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NN은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 지 1

년도 되지 않아 마일-필리핀 정상회담이 11일 개최되는 것을 두고 "두 정상회담 모두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중심과 지역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동맹국 및 파트너와의 협력 강화를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대선 유력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를 우려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대신 그는 미일동맹의 중요성이 "당파에 관계 없이 널리 인식되고 있다"는 믿음을 피력했다고 CNN이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미국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다"며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미국 국민이 일본과 미국 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일본 정부가 '미해결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 간의 안정적인 관계를 촉진하기 위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위해 "고위급 접근"을 취하고 있다고 CNN에 말했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북한의 공격적인 무기 시험 프로그램의 최전선에 서 있으며, 북한의 시험 미사일은 정기적으로 한반도와 일본 부근 해역에 떨어졌다. 수십 년 전 북한에 의해 납치된 일본인 문제도 특히 감정적인 논쟁거리로 남아 있다.

박준호 기자

‘美 샌더스 사무실 방화’ 30대 남성 체포...동기 불분명

미국 정계의 대표적인 진보 주자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 사무실에 방화한 혐의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7일(현지시간) AP,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연방감찰은 이날 버몬트주 벌링턴에 위치한 샌더스의

원의 버몬트 사무실에 방화한 혐의로 산트 소고모니언(35)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관계자가 확보한 폐쇄회로(CCTV)에 녹화된 영상에는 피의자가 지난 5일 오전 샌더스 사무실 문에 촉매 역할을 하는 인화성 액체를 뿌린 뒤ライター로 방화한

뒤 계단으로 도주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스프링클러가 화재를 진화한 덕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건물 일부와 집기류 등 일부 피해가 보고됐다.

이동명 기자

인천환경공단
INCHEON ENVIRONMENTAL CORPORATION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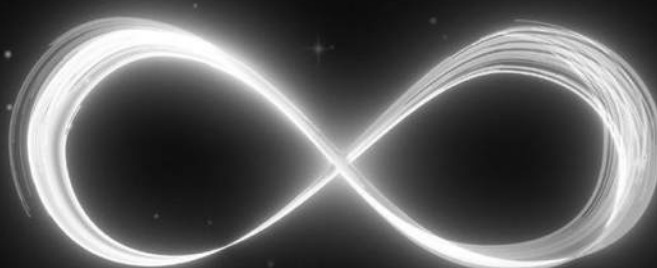
환경도 경민도 도시활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질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OPEN Hana Infinity Seoul

국내를 넘어 글로벌 No.1으로 도약하는 뉴하나 딜링룸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5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2488호(2024.04.01) / CC브랜드 240401-0017

“자유통일당, 윤석열 지키고 보수 성공 뒷받침할 것”

[인터뷰] 자유통일당 석동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석동현 자유통일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 자유통일당

석동현 자유통일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410 총선 목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보수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석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유통일당은 범우파 세력을 결집해 보수 정권인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 성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중도 좌파 성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견제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석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꼽히는 인물이다. 자유통일당은 석 위원장을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하고 비례대표 후보 2명에 배정했다.”

그는 “자유통일당은 좌파 연대에 맞설 수 있는 정통 보수 가치 정당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보수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저도 자유통일당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석 위원장은 자유통일당 1호 법안으로 ‘518유공자 명단 공개’를 예고했다. 그는 “518과 무관한 인사들이 명단에 다수 포함되어 있고 그 중에 많은 수가 정치인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는 도태우 변호사 공천 취소 등을 거론하면서 “중도 좌파 노선을 택하고

말았다. 4년 전 황교안 대표의 실패를 그대로 학습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석 위원장과 일문일답. -자유통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지기로 꼽히는 위원장을 비례대표 순번 2번에 배정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자유통일당은 좌파 연대에 맞설 수 있는 정통 보수 가치 정당이다. 이 연장선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보수 정부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저도 자유통일당의 뜻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그 가치에 비해 지명도 있는 정치인이 상대적으로 적은 우리 당으로써는 현재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목표에 가장 부합한 부분이 있다고 봐준 것 같다.”

-자유통일당과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자유통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보수 정당으로써 원내에 진입하면 현재 좌파 연대 체제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왔던 보수세력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다. 윤석열 보수 정권 성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노력할 것이다. 국민의힘과는 힘을 합칠 때와 뜻을 달리하며라도 보수 세력의 민의를 반영해야 할 때

를 구분해서 협조 체제를 이루나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우리 당의 입장을 알리고 이해시켜드리는 일들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저의 목표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자유통일당과 위원장의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은 무엇인가.

“자유통일당이 준비하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1호 법안을 꼽자면 ‘518유공자 명단 공개’ 추진이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자유통일당은 518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시민들을 기리겠다는 해당 법안의

취지에서 벗어나 현재 518과 무관한 인사들이 명단에 다수 포함되었고 그 중에 많은 수가 정치인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추후 논란의 여지가 크다고 본다. 이 문제는 민주당 등에서 더 이상 진영 논리에 기대 회피할 문제가 아니고, 명백하게 명단을 밝히고 필요하다면 수정해야 한다. 공정과 투명성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무시하고 비정상을 합법화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진영 논리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다.”

-자유통일당과 위원장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자유통일당은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권의 유력 인사들 대부분이 실정을 이미 받았거나 또 예상되고 있음에도 오히려 검찰을 압박하고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민주 질서 위반으로 보고있다. 자유통일당은 원내 진입 후 정치인들의 부당한 수사 회피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자유통일당의 410 총선 목표와 선거전략은 무엇인가.

“자유통일당은 원내 진입 외에도 과거 국가 전복을 꾀하다 해산명령을 받았던 통진당 계열의 인사 등 주사파 세력이 포함된 야권 연대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범우파 세력의 총 결집을 목표로 활동해왔다. 앞으로 남은 기간도 범우파 결집을 이룩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선명성 있는 보수 정당으로써 국민의힘이 중도 좌파 성향으로 흐르는 것을 견제할 것이다. 또한 자유통일당이 당시 기울어진 운동장 상황에서 조국탄핵집회를 비롯한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윤석열 보수 정권 창출에 기여해왔고 현재도 기독교적 보편 가치를 함유

한 보수 우파 정통 정당으로써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의 시장 경제 발전을 이끌어갈 정당임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자유통일당을 향해 ‘아스팔트 보수’, ‘극우 정당’이란 우려도 존재한다.

“먼저 ‘아스팔트 보수’라는 말을 우리 보수 정치권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 보수 정당이 국민의힘은 유리할 때는 광화문에 나와서 연설하고 불리할 때는 광화문을 향해 극우라고 손가락질을 해 왔다. 그러나 광화문집회는 아무 사건 사고 없이 평화롭게 매머드한 집회를 장기간 이어가고 있는 자체로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록적인 광경이다. 조국 탄핵, 문재인 좌파 정부 종식을 이끌었음 뿐 아니라 그간 광장에서 대보수정부 강력 투쟁에만 앞장서 온 노조집회를 현저히 줄이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 무엇보다 광화문 자유 세력과 자유통일당은 폭력을 수반하지 않으며 이것은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때문에 폭력을 수반한다는 개념이 담긴 ‘극우’라 부른다면 모든 국민들이 다 극우가 될 수 있다는 말이나, 우리 당에는 대신 ‘보수 선봉 정당’이라는 선거 슬로건과 함께 ‘정통 보수’, ‘가치 보수’ 등의 용어가 있다. 이런 단어들로 대체 되는 게 맞다고 본다.”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잘한 점과 못한 점을 각각 꼽는다면.

“윤석열 정부의 중요 치적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을 북극, 강화시킨 점을 들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기존의 해양 동맹을 축소시키고 중국, 러시아를 위시로 한 대륙동맹과 친북 노선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심각한 경제 안보적 고립상황에 놓일 뻔 한 것을 오히려 강화시킨 것은 국

제 관계의 매듭을 잘 맺어야 하는 전략적 위치에 놓은 우리나라로서는 너무나 다행한 일이다. 다만 바라는 점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최근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통과로 구속 위기에 놓인 영세 사업주들에 대한 대안 마련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 어려운 경제 시국을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일이기 때문에 대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 초반 이번 선거의 의미를 ‘운동권 정치 퇴출’이라고 제시한 것은 진영논리로 국민을 이분화시킨 채 개팔 등의 극렬 비호 세력에 의지하고 있는 좌파 정치인의 퇴출을 말했다는 면에서 잘한 일이다. 그러나 잘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실제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이상민 의원 영입을 비롯해 함운경 같은 좌파 인사는 등용하고 도태우 공천을 취소하는 한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도 여론의 항배를 따라 거리두기로 일관하고 있어 말과는 전혀 다르게 중도 좌파 노선을 택하고 말았다. 4년 전 황교안 대표의 실패를 그대로 학습하고 있어 안타까울 뿐이다.”

-국민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

“자유통일당은 기독교 보편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만을 위해 봉사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의 정신적 기반이 된 기독교의 자유, 인권, 정의, 평등, 사랑 등의 인류 보편 가치를 사회에 구현해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고 국민께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하는 일이다. 궁극적으로 자유통일당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시장 경제 발전을 이끌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진 국가로 발돋움 하는 시대적 사명을 이루기 위해 매진하고 이 자유를 북한 동포들에게까지 확대시켜주기 위해 힘써 나갈 것이다.” 이재우 기자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

다양한 체험이 가득한 경북 농촌으로 오이소!

경북농촌체험관광 통합포털 **오이소**는 농촌체험·관광·여행·음식·숙박 관련 다양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생동감 있는 여행 및 관광지 정보 제공

여행객의 목적지, 여행 기간, 소요예산, 여행 목적, 여행 방법, 최적의 Package Tour 스케줄 안내 등 여행정보를 제공합니다.

상호 커뮤니케이션이 가득한 소통창구

SNS 공유, 리뷰 등록, 오이소 기자단 운영 등 다양한 콘텐츠의 공유가 가능한 소통의 창구를 제공합니다.

경북농촌체험관광 홍보 콘텐츠 제공

경북농촌체험관광 통합포털에서는 영상, 사진, 글, 그림 등 다양한 정보 및 홍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체험·관광상품 판매

최신 트렌드, 감성, 테마, 스토리가 반영된 체험·관광·음식·숙박 축제 등의 체험상품을 판매합니다.

www.gboiso.kr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재명 “수도권 31곳 접전지... 투표로 심판해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 총선을 이틀 앞두고 수도권 접전지역 31곳을 직접 점검하며 투표 독려에 나섰다.

이 대표는 8일 자신의 SNS에 “서울-경기 인천 등 수도권 접전지역”을 소개하며 “전국이 접전이다. 투표하면 이긴다”고 강조했다. 그는 “심판은 여론조사가 아닌 투표로 한다”며 “가족, 친구, 지인 등 모든 분께 투표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에서는 중성동을, 용산, 양천갑, 영등포를, 동작을, 서초을, 강남을, 송파 3곳 등 11곳을 접전지로 꼽았다.

경기에서는 성남분당 2곳, 동두천양주-연천, 포천가평, 여주-양평, 수원평, 의정부-부곡, 고양병, 하남갑, 용인 4곳, 파주을, 이천, 안성, 김포 2곳 등 17곳을 열거했다.

인천에서는 중구-강화-옹진을 비롯해 동미추출을, 연수갑 등 3곳을 거론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지역구 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서울 동작구 송실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천 계양을을 시작으로 동작을, 영등포갑, 동대문갑, 종로, 중성동을, 서대문갑, 양천갑 등 접전지를 돌며 유세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인천 동미추출을에도 지원

유세를 펼친다. 그는 “이제는 백방전”이라며 “대한민국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라고 역설했다. 박용국 기자

한동훈 “이재명, ‘척’ 한 두 번이 아냐... 쌍방울·김문기 사건도 모른 척”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하는 척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 안성 지원 유세 현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이 북한에 돈을 준 것도 모른 척했다”며 “김문기 씨 사건에서도 모르는 척했고, 모든 게 이런 식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일하는 척하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길 것인가, 일하려는 사람에게 미래를 맡길 것인가”라며 “이재명 대표가 착한 건 한두 번이 아니지 않냐”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유세 후 차량 탑승 중 “일하는 척했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오전 경기 안성시 한경대사거리에서 열린 ‘국민의힘으로 안성 살리기’ 지원유세에서 김학용 안성시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시스

한 위원장은 “이번 선거가 정말 중요하다. 분투표에 나가 달라”며 “대한민국을 지킬 유일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분투표를 위해 힘을 아끼고 계신 분들이 많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후회할 것”이라고 했다. 박용국 기자

군, 북한 전역 촬영 가능한 세계 최고 성능 SAR위성 발사 성공

우리 군이 8일 오전(한국시간) 군사정찰위성 2호기인 SAR(영상레이더)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EO/IR(전자광학/적외선) 위성에 이어 SAR위성까지 보유하며 날씨와 상관없이 북한 전역을 정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다.

국방부는 “오전 8시 17분경(현지시간 7일 19시 17분) 우리 군 정찰위성 2호기를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스페이스센터에서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발사 약 45분 후 위성은 목표 궤도에 진입했다.

군 관계자는 “위성 상태가 양호하고 궤도에도 성공적으로 안착했다”며 “검보정과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본격 임무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군정찰위성 2호기 발사로 독자 정보감시정찰 능력을 더욱 확보했다”며 “한국형 3축체계 기반 구축과 길체

인 역량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AR위성은 레이더 신호를 활용해 기상과 무관하게 주야간 고해상도 영상을 얻을 수 있다. 1호기 EO/IR위성과 상호 보완적으로 운용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탐지 및 전략표적 감시가 강화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국내 최초 개발한 이 SAR위성은 현존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자랑한다”고 밝혔다. 영상 정밀도가 매우 높아 북한 전역을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AR위성은 1호기 EO/IR위성과 달리 경사궤도를 돌며, 하루 4-6회 가량 한반도 상공을 지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 지역 정밀 관측에 유리한 궤도다.

우리 군은 연내 SAR위성 1기를 추가로 발사할 계획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우리 군 군사정찰위성 2호기가 7일(현지시간) 미국 케네디스페이스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다. ©spaceX

“내년까지 후속 호기와 초소형 위성까지 압도적 정보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이나래 기자

정부 “내년 의대 정원 물리적 변경 가능… 의협 증원 유예안 수용 어려워”

정부가 이미 배정된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이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모집요강 확정 전까지는 물리적인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제안한 의대 증원 1년 유예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미 학교별 배정을 해서 발표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도 “모집요강 확정 전까지는 물리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의협의 1년 유예 주장에 대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추가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내부 검토는 하겠지만 수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결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박 차관은 전날 대한응급의학회가 사태 미해결 시 응급실 의사 사직을 예고한 데 대해 “환자 목숨을 불모로 한 집단행동 행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의협, 전공의, 의대 교수 등이 총선 후 합동기자회견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대표성 있는 협의체 구성에 진일보한 형태로 평가할 수 있다”며 “더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 주요 내용과 비상진료체계 상황 등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활성화되면 만나 대화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에게도 “정부 의료개혁의 목표는 여러분이 더 좋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열린 자세로 여러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4월 첫주 평균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수는 2만2304명으로 전주 대비 1.4% 증가했지만 응급실 97%, 중환자실 근무의사는 전주 수준을 유지 중이다. 정부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 2차 병원 역할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군의관 파견, 소아수술 가산율 인상 등 보완책도 시행 또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나래 기자

“이재명 배우자 요청으로 수내동 자택에 음식 배달”

법인카드 유용 제보자 법정 증언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주요 증언을 했다.

8일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조씨는 “경기도청 별장지 공무원 배모씨의 지시를 받아 피고인(김씨)에게 음식 배달 등 업무를 했다”고 말했다.

조씨는 검찰 질문에 “이재명 대표 수내동 자택에 샌드위치 세트, 과일, 세탁물 등을 가져다놓는 업무를 했다”며 배씨가 김씨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아 이를 조씨에게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8일 경기도 수원지법 형사13부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배씨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과 통화녹취를 제시하며 “피고인이 배씨에게 직접 음식 배달을 지시했고, 배씨가 이

를 전해 받아 증인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이냐”고 묻자 조씨는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조씨는 이같은 업무 과정에서 비용 처리도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부 작성 후 법인카드로 계산하거나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법인카드로 바꿔 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씨가 법인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었고, 법인카드 사용도 배씨의 지시를 받아 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측 변호인은 “도지사 자택에 음식 배달한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무슨 관련이 있느냐”며 반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는 22일과 다음달 2일 계속 진행할 예정

이다. 김씨 변호인은 법정 증언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우려를 나타냈다. 이나래 기자

사과값 한 달 만에 20% 내려… 정부 가격안정 노력 ‘성과’

정부의 과일 가격 안정 노력으로 급등했던 사과 가격이 한 달 만에 20% 가까이 하락했다. 최근 3년간 평균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5일 기준 사과 10개 소매가격은 2만 4286원으로 한 달 전보다 18.3% 떨어졌다. 1년 전보다는 4.6%, 평년보다는 2.6% 높은 수준이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부터 긴급가격안정 자금 1500억원을 투입해 사과 납품단가를 kg당 2000원에서 4000원으로 높이고, 대형마트 할인행사를 지원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사과 가격은 지난달 7일 3만원을 넘어 서며 고공행진했지만 최근 전반적인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생산량이 전년보다 30% 이상 줄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반면 배 가격은 전월 대비 0.4% 상승한 4만3312원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년보다 62.2%, 평년보다 21.7% 비싸다.



24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사과를 구입하고 있다. ©뉴시스

딸기와 토마토 가격도 전월보다 각각 23.2%, 16.9% 내렸다. 딸기는 평년보다 21.4% 높고, 토마토는 7517원이다.

정부가 이달까지 집중 공급키로 한 수입과일 가격도 하락세다. 바나나는 전월보다 17.2%, 오렌지는 9.1% 내렸다.

다만 작황 부진으로 양배추 가격은 전

달보다 25.4% 올랐다. 농식품부는 제주 수확 정상화와 납품단가 인상으로 가격 안정세를 전망했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직수입 과일 공급처를 중소마트까지 확대하고 납품단가 지원을 이어가며 물가 안정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나래 기자

중국 직구 제품서 발암물질 다량 검출

서울시, 소비자 안전 대책 마련

서울시가 중국 이커머스 업체를 통해 들여온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치를 수십 배 초과하는 인체 발암 가능 물질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고 해외 직구 상품 안전 확보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31개 생활밀착형 제품을 검사한 결과, 8개 어린이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허용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8

일 밝혔다.

특히 어린이용 가죽가방에서는 불임 유발 등 생식독성이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5.6배나 검출됐다. 이 중 DEHP는 국제암연구소 지정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이다.

물놀이 튜브, 연필, 목재 장난감 등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다량 검출됐고, 보행기와 치발기 등은 질식이나 낙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시는 상시 안전성 검사와 함

께 전담 피해신고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이달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저렴하다는 이유로 쉽게 직구 제품을 소비하면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안전 관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직구 시 개인정보도 유출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치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나래 기자

동아보감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감 경옥고는 동의보감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안전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반의약품 |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처방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美, 북한인권재승인법 통과 시급”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CEO 칼럼 기고

미국의 기독교 박해 감시 단체 회장인 데이비드 커리(David Curry)가 북한 인권법 공백으로 지하교회 성도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고 경고했다.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Global Christian Relief, GCR)의 회장 겸 CEO인 커리는 최근 크리스천포스트(CP)에 '북한의 통일 거부'가 비밀 기독교인들의 운명을 봉인할 지도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다.

커리 회장은 칼럼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에 참석해, 남한과의 통일에 대한 희망을 상징하는 기념비적 조형물인 '통일 염원 기념탑(Arch of Reunification)'을 '눈엣가시'라고 불렀다"면서 "며칠 만에 그 거대한 시설물이 위성 사진에서 사라졌고, 김정은 정권에 의해 빠르게 철거됐다"고 말했다.

커리는 "김정은은 이남 연설에서 더 이

상 남한과의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며,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도록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그는 "현시점에서 김정은의 선동적인 발언이나 행동은 특별히 놀랄 일은 아니다. 그는 오랫동안 잘 알려진 무력 위협,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자국민을 잔인하게 탄압한 전력이 잘 알려져 있다"며 "그는 수년 동안 남한과의 통신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고, 심지어 두 나라의 서신 교환을 돕기 위한 공동연락 사무소를 폭파하는 장면까지 공개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의 행동은 그가 결코 통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아무리 협상을 해도 그의 마음은 단 하나의 단순한 이유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신이라고 믿는 불량국가의 최고 지도자이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 특히 기독교인과 신앙인들은 계



글로벌크리스천릴리프(GCR, 전 오픈도어 USA)의 CEO 겸 회장인 데이비드 커리. © 글로벌크리스천릴리프

속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커리는 김정은이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알려진 이념을 강요하는 조선노동당의 수장이다. 김정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이름을 딴 이 신앙 체계는 독재자들의 말과 가르침을 따른다"며 "북한 주민들은 어려서부터 김씨 일가와 당의 노선

과 정책이 제시하는 '지시 이행에 절대적인 복종'을 엄격하게 강요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탈북자이자 인권 운동가인 박연미 씨의 사연을 소개하며 "그녀는 학교에서 김정일이 인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신이라고 배웠다고 말했다. 아이들은 또한 김일성이 전투에서 총알을 피하기 위해 회피 기술을 사용한 초자연적인 존재라고 배웠다"고 했다.

그는 "이 강요된 철학에 반하는 신념은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되며, 투옥, 고문, 심지어 처형까지 포함된다. 어떤 형태로든 종교 활동을 하는 사람은 '적대 계급'에 속하며 국가의 적으로 간주된다. 기독교와 같은 대안적인 신념 체계는 설 자리가 없으며, 실제적인 위협으로 간주되어 북한의 지속적으로 악질적인 종교 철폐로 이어진다"며 "이는 북한을 기독교인에게 전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국가 중 하나로 만들었고, 몇몇 추산에 따르면 현재 5만 명에서 7만 명에 이르는 신자가

잔인한 노동수용소에서 가혹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미국 정부가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North Korea Human Rights Reauthorization Act)'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했다. 미국에서 2022년 9월 북한인권법이 만료된 이후 이 법을 연장하기 위한 법안의 의회 통과는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커리는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을 통과시켜 이산가족 상봉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인권 특사에게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북한 관리들에게 표적 제재를 가할 수 있다"며 "하지만 현실은 법안이 통과되어 어느 정도 변화를 이끌어내더라도, 우리는 불량국가와 마주하고 있다. 이 나라는 75년 이상 자발적으로 세계와 단절하고 다시 합류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것은 또한 (북한) 기독교인들

도 세상과 단절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교회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교회와는 다르다. 이 교회는 적진 뒤에서 살아가는 교회이다. 비밀리에 신앙을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매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서 "우리는 동료 신자로서 위협을 무릅쓰고 성경, 영적 훈련 및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며 이 형제자매들을 지원할 때, 반군(Insurgents)처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커리는 "북한의 신자들은 부르짖고 있지만, 그들의 외침은 들리지 않을 때가 많다. 미국 교회로서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은 마이크가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의 교회, 가족, 성경공부 모임들이 그러한 마이크가 되어야 한다"며 "글로벌 크리스천 릴리프는 기독교인들이 혼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믿는다.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어떤 목소리도 내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을 방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진 김 기자

바이든 행정부, 시민권 신청서에 'X' 성별 표기 허용

미국 연방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이 귀화 신청자들이 증빙 서류 없이도, 남성이나 여

성이 아닌 'X'라는 제3의 성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연방이민국은 지난 1일 귀화 신청서인 N-400 양식에 'X' 성별 옵션을 추가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혜택 신청자들은

성별 옵션에서 남성(M), 여성(F) 또는 다른 성 정체성(X)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해당 기관은 또한 정책 매뉴얼의 지침을 업데이트하여 변경 사항과, 남녀 이외의 성별 옵션이 포함된 기타 "향후 양식 수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민국은 "양식 N-400은 현재 X 성별 옵션을 제공하는 유일한 USCIS 양식"이라며 "X 성별 옵션을 추가하는 양식 수정이 완료될 때까지 귀화 증명서는 X 성별을 반영할 수 있는 USCIS에서 발행하는 유일한 보안 신분 문서"라고 소개했다.

이 기관은 신청자가 선택한 성별이 출생증명서, 여권 또는 신분증과 같은 다른 문서에 기재된 성별과 일치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민국은 성명서에서 "이는 이러한 옵션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들에게 상당한 장벽을 만들었다. 또한 혜택 신청자들 두 가지 성별 옵션으로 제한하면 M이나 F가 아닌 성별로 출생증명서 또는 기타 정부 발행 문서를 받을 때 USCIS에 행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기관은 세 번째 성별 옵션을 추가함으로써 보안 신분 증명서 및 인적 자료의 정확성을 보장하고, 외부 이해관계자 및 개인 혜택 신청자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월 CP의 질의에 대해 연방이민국의 답변은 "현재 X 성별 옵션은 N-400 양식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성별 수집이 혜택 심사에 필요한 USCIS 모든 양식에서 X 성별 옵션이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이민국은 "이 변경으로 USCIS의 심사 및 성별 정책이나 절차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며 "USCIS는 이민 시스템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생체 인식 제출 및 사기 방지 절차와 같은 주요 신원 확인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국은 이 변경 사항이 운전면허증에 자신의 성별을 'X'로 표시할 수 있는 주들과, 미국 시민은 여권에서 성별 표시로 'X'를 선택할 수 있다는 발표한 2022년 국무부의 발표와 일관된 것이라고 주

장했다. 정책 업데이트는 최근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의 유입이 급증하자,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 방식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발표되었다.

앤디 빅스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애리조나)은 지난 1일 엑스(X) 게시물을 통해 "행정부가 국경을 확보하는 대신 우오크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성별 정책을 시행하는 데 초점을 더 맞추고 있다"라며 "라켄 라일리 가족이 이제 이민자들이 'X' 성별로 등록할 수 있다는 소식이 안도할 것 같은가? 국경을 폐쇄하리"고 촉구했다.

라일리는 지난날 조지아 대학교 캠퍼스에서 조깅을 하던 중 사망한 22세 간호학과 학생이었다. 이 젊은 여성의 살인과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는 수용 공간 부족으로 구치소에서 풀려난 불법 체류자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였다. 26세의 베네수엘라 국적의 이 남성은 2022년 9월 텍사스주 엘파소를 통해 불법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유진 김 기자

국가고래만족도 (NCSI) 아웃도어부문 10년 연속 1위 (2014~2023)

방수기능 완성하다

MOUNTAIN JACKET

Waterproof

Breathable

THE NORTH FACE

GORE-TEX

M'S GTX MOUNTAIN 3L JACKET 559,000

제품 문의 대리점 (02) 940-1158 백화점 (02) 940-1169 ■ 공식 온라인 스토어(www.thenorthfacekorea.co.kr)는 인터넷에서 '노스페이스'를 검색하세요.

美남침례교, 2022년에 1200개 교회 떠났다

미국 최대 개신교 교파인 남침례교단(Southern Baptist Convention, SBC)이 2022년에 1200개 이상의 회원 교회를 잃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라이프웨이 리서치(LifeWay Research)가 SBC의 2022년 연례 교회 프로필을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253개의 교회가 더 이상 교단에 속하지 않았다.

2021년에는 5만 423개의 활동 중인 SBC 교회 중 2%가 문을 닫았으며, 0.5%가 2022년 데이터가 집계될 때까지 교단을 떠났거나 탈퇴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는 2022년의 손실이 이전 2년 동안의 손실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교회 폐쇄 및 해산으로 인해 1003개의 교회가, 2020년에는 1002개의 교회가 감소했다.

라이프웨이 리서치 전무이사인 스킷 맥코넬은 성명을 통해 "매년 한 번씩, 우리는 현재 남침례교 교회를 포착하여 전국 통계를 보고한다. 추후에 연간 교회 목록을 분석하면,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고 전했다.

2023년 5월, SBC 산하 연구 부서인 라이프웨이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교단은 약 45만 7000명의 회원 감소를 기록했는데, 이는 한 세기 만에 가장 큰 회원 손실이었다.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SBC 회원 수는 2021년 약 1368만 명에서 2022년 1322만 명으로 증가했다. 보고서는 "45만 7371명의 회원 손실은 100년여 만에 연간 최대 회원 수 감소"라고 밝혔다.



남침례교단 연례 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투표 카드를 들고 있다. ©배티스트프레스

지난해 보고서는 SBC가 1253개가 아닌 416개의 회원 교회를 잃었다고 밝혔는데, 이는 보고서가 해당 연도에 개척한 교회를 포함시켜 폐쇄 또는 해산된 교회의 수를 상쇄했기 때문이다.

맥코넬은 당시 성명에서 회원 수 감소의 원인으로 SBC 소속 교회의 회원 기록 업데이트를 꼽았다. 그는 "회원 수의 감소 추세의 대부분은 몇 년 전에 개별 교회 참석을 중단한 사람들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록 관리가 마쳐내 따라잡고 있다"고 했다.

또한 "교회의 총 회원 수는 추가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망이나 회원 탈퇴와 같은 감소를 즉시 반영한다. 그러나 많은 교회는 더 이상 출석하지 않는 다른 회원을 제외하는 데 느리다"고 했다.

보고된 SBC 회원 수는 2022년에 1322만 명으로, 비록 최고치인 2006년 1630만 명에 비해 크게 낮지만, 1950년에 보고된 700만 명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회원 수 감소는 SBC만의 현상은 아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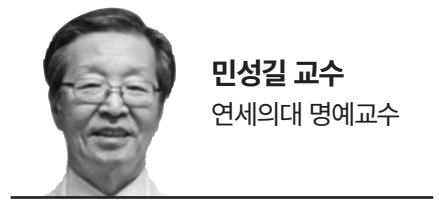
다. 많은 주류 개신교 교단들이 수십 년 전에 비해 회원 수가 크게 감소했다.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Presbyterian Church USA, PCUSA)는 2022년에 100개 이상의 교회와 5만 3000명의 회원을 잃었다. 미국 연합그리스도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UCC)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8만 6000명 이상의 회원 감소와 500개 이상의 교회를 잃었다.

이전 라이프웨이 리서치 분석에 따르면, 2019년 미국에서는 약 4500개의 개신교 교회가 문을 닫았으며, 동시에 약 3000개의 새로운 교회가 개척되었다.

최근 갤럽(Gallup)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명 중 3명만이 정기적으로 종교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 거의 모든 종교 단체에서 출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인 개신교인의 43%가 '가' 또는 '전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가톨릭 교인 중 50%가 동일하게 답했다. 유진 김 기자

동성 커플의 문제점



민성길 교수
연세의대 명예교수

크리스천이 본 섹슈얼리티

모든 사회에서 결혼과 가족은 법적 보호는 물론 복지적 혜택을 받는다. 그 이유는 결혼과 가족이 인류사회를 유지하는 근본 기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러한 가치를 "동성혼 가족"도 누리기를 원한다. 가족이라면 당연히 자식이 있게 마련이다. 그래서 동성 커플들도 "양자"를 기를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한다. 그 모든 근거는, 동성에는 유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이며, 따라서 당연히 "가족적" 행복을 누릴 인권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동성에 유전자는 발견되지 않음으로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동성혼이 합법화된 서구사회에서는 동거인으로서 시민연합(civil union)을 신고하면 배우자로서 권리가 인정된다. 시민연합도 결혼처럼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 복지혜택(의료보험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배우자가 입원한 병원을 방문 할 권리, 등등을 보장해 준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동성혼은 헌법상 불가능하고 시민연합 제도도 없다. 그런

데 지금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시민연합이나 동성혼 합법화로 가는 우회로가 된다는 의미에서 이번 재판 결과가 우려된다. 복지혜택이나 병원 방문 권리 같은 것은 대수롭지 않게 보겠지만, 동성혼을 통한 재산 상속이나 가문의 성씨를 물려주는 문제는 전통뿐 아니라 현재 국민정서상 간단하지 않다.

동성혼 합법화 주장의 배경에는, 동성애자들의 사회적 약자로서의 행복권이라는 통념이 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은 소수이기는 하지만, 인구통계학적으로는 이성애자보다 경제적 수준도 높고 학력도 높다. 굳이 "결혼"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동성혼 제도를 주장하는 것은 "가족"을 이름으로 동성애를 더욱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으로 동성혼에 대해서 사회적 관점, 다수의 관점, 종교적 관점, 경제적 관점, 건강관련 관점 등등에서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은 정부가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거나 커플을 이름으로 더 행복해지고, 신체건강이나 정신건강이 개선되고 자살율이 감소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혼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연구들이 연구 방법상 신뢰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동성 커플의 문제점들과 동성 커플의 양자들이

겪는 문제점들을 연구를 통해 밝혀내고 있다. 이에 필자는 논문들을 통해 드러나는 동성 커플의 문제점들을 요약적 문제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지면상 참고문헌 생략)

① 동성혼에는 책무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를 들어 동성애가 합법화된 국가들에서 실제 다수 동성애자들이 결혼하거나 시민결합을 신고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마도 동성애자들은 혼인서약에서 보는 헌신이나 정절 같은 "제약"을 싫어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들은 순간순간 원하는 대로 행동하려 한다.

② 동성 커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조만간 헤어지는 경우가 많다. 즉 이혼률이 높다.

③ 동성 커플은, 일부일처제적 정절을 지키지 않는 편이다. "불륜"이 흔하다. 예를 들어 McWhirter 및 Mattison(1984)에 의하면, 이성 결혼 남성은 75.5%가 정절을 지킨다고 말하고 있으나, 동성 결혼 남성들은 4.5%만 정절을 지킨다고 한다. 즉 동성 커플은 결혼이라는 위장 아래 각자 다수의 섹스파트너를 두고 각자의 삶을 즐기는 것을 서로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처럼 보인다.

④ 동성 커플도 성병 감염에 더 위험할 수 있다. 정절을 지킨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성병 감염 방치책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⑤ 이성 커플보다 동성 커플간에 언어

적어든 신체적이든 폭력 행사가 더 심하다.

⑥ 동성 결합 이후에 건강이 나쁜 것은 여전하다. 대표적으로 Liu 등(2013)의 연구는 1,634명의 레스비언 혼인자, 1,659명의 게이 혼인자들을 조사한 결과, 사회경제적 요인을 통제해도, 동성 혼인자들은 이성 혼인자보다 건강이 더 나빴다.

그럼 동성 커플의 양자들은 건강하게 잘 자랄까?

아빠 엄마 아래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두 아빠 또는 두 엄마 아래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성격, 행동, 학교 성적, 성정체성, 성지남 등등을 비교한 연구들이 많다. 동성애 옹호론자들의 연구들은 동성 커플이 키우는 아이들이 이성 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에 비해 더 잘하면 잘하지 못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편의 연구들은 동성 커플이 키우는 아이들은 이성 커플이 키우는 아이들보다 행동문제들이 많고, 학교성적이 나쁘다는 연구도 있다.

발달심리학 이론들은, 아이들은 자라는 동안 부모를 동일시(identification)함으로써 여자로서 또는 남자로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역할을 배운다고 본다. 그래서 어린아들은 "엄마와 아빠를 가질 권리"가 있다. 따라서 동성 커플의 자녀들에게 성적 지남이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있다. 즉 잠재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동성 커플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 심지어 아이들이 어른들의 동성애적 소아성애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염려한다.

이제 현대 진보적 사회에서는 "결혼"과 "가족"의 개념을 수정하여야 될 판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인류학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가족 형태들을 발굴하고 있다. 그 철학적 근거는 결혼도 사회구성주의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사회구성주의적 철학은, 절대적 진리란 없고 그때그때 다수 사람들이 합의하면 그게 진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해 다수가 합의해 주고 있는가? 소수 동성애 옹호 엘리트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이성 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에 비해 더 잘하면 잘하지 못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편의 연구들은 동성 커플이 키우는 아이들은 이성 커플이 키우는 아이들보다 행동문제들이 많고, 학교성적이 나쁘다는 연구도 있다.

발달심리학 이론들은, 아이들은 자라는 동안 부모를 동일시(identification)함으로써 여자로서 또는 남자로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역할을 배운다고 본다. 그래서 어린아들은 "엄마와 아빠를 가질 권리"가 있다. 따라서 동성 커플의 자녀들에게 성적 지남이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있다. 즉 잠재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아이들이 동성 커플의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본다. 심지어 아이들이 어른들의 동성애적 소아성애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염려한다.

이제 현대 진보적 사회에서는 "결혼"과 "가족"의 개념을 수정하여야 될 판이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문화인류학자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다양한 가족 형태들을 발굴하고 있다. 그 철학적 근거는 결혼도 사회구성주의적 산물이라는 것이다. 사회구성주의적 철학은, 절대적 진리란 없고 그때그때 다수 사람들이 합의하면 그게 진리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애나 동성혼에 대해 다수가 합의해 주고 있는가? 소수 동성애 옹호 엘리트들이 키우는 아이들이 이성 부모가 키우는 아이들에 비해 더 잘하면 잘하지 못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한편의 연구들은 동성 커플이 키우는 아이들은 이성 커플이 키우는 아이들보다 행동문제들이 많고, 학교성적이 나쁘다는 연구도 있다.

발달심리학 이론들은, 아이들은 자라는 동안 부모를 동일시(identification)함으로써 여자로서 또는 남자로서 성적 정체성과 성적 역할을 배운다고 본다. 그래서 어린아들은 "엄마와 아빠를 가질 권리"가 있다. 따라서 동성 커플의 자녀들에게 성적 지남이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있다. 즉 잠재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성경은 확고하게 동성애를 금하면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일치하기를 요청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主)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고전 12:4-6).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전 1:10).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잠 18:1).

총선, 견고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바른 선택을



최선 박사
삼백만부흥운동본부
상임대표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재외국민과 국내 국민들은 사전투표 선거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본 투표가 진행된다. 자유대한민국에서 투표하는 국민이 진정한 애국자이며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반드시 참여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입법부가 건강하려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헌신의 봉사 정신이 있어야 한다. 애국심이 강하며 분명한 국가관을 가진 능력 있는 자가 당선되어야 한다. 국가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인물이 선출되어야 4년 동안 국민을 섬기는 진정한 국회의원으로서 임무를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이처럼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총선과 시대적인 국가의 긴급함을 인식하면서 삼백만부흥운동본부(상임대표 최선 박사)는 다음과 같이 국민들과 함께 바른 행동으로 나아가자고 권면한다.

1. 정치적인 안정과 견고한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바른 선택을 하라.

이제 선거가 끝나면 우리나라의 방향이 어디로 가는지가 결정이 난다. 혼돈으로 치닫게 될지, 아니면 안정과 견고한 자유대한민국을 세워갈 것인지는 지켜보아야 한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에서 국민이 주인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해 주면서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22대 총선은 참여, 공정, 화합을 위하여 한 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거가 되어야 하겠다. 그렇게 되어야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한다.

2. 국민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행동하라.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로 그리고 여러 위성 정당들이 공약을 앞세워 자신들을 선택해달라며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중차대한 위기의 순간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애국하는 국민들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으로 주권을 준수해야 한다. 누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발전과 정쟁에 관한 뜨거운 계속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면 어떠한 결과가 나왔는지 간에 국민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은 국민화합을 위해 앞장 서야 할 것이다.

3. 전쟁 중 해외에 있는 자국민들의 안전과 우리나라에 미칠 악재를 사전에 차단하라.

지구촌 한편에서 아직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이다. 이스라엘이 하마스 그리고 레바논과 시리아 이라크, 이란의 무장 군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 대만에는 대지진으로 거대한 피해를 보았고 사회적으로 국민들이 고통 중에 있다. 이를 위하여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 국가와 민간인 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제 정세를 감안하여 외교적인 밀접한 소통을 가지고 해외에 있는 자국민들의 안전과 우리나라에 미칠 악재를 사전에 차단하는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의 세계에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 가뭄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지구촌에 평화를 위협하는 각국에서는 전쟁 중지와 철군을 염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중동과 나토군 개입과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대폭적인 포격을 하고 있으며 양측의 교전으로 국가 시설과 선량한 백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4. 다양한 시대 속 강대국들의 열강들의 외교, 국방, 정치적인 강화 통해 대처하라.

세계 역사에는 19세말과 20세기를 거치면서 세계열강들이 약소국들에게 정치, 경제, 문화, 외교, 종교 등의 이유를 내세워 식민지 확장에 열을 올렸다.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서 36년의 국권 상실의 아픔을 잊지 않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기간 동안은 말로 표현 못할 끔찍한 탄압이 있었으며 말과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생활의 연속이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강제노동과 최소한의 인권을 말살된 채 태평양전쟁의 총알받이로 징집되는 큰 아픔을 겪게 되었다. 심지어 일본 총독부에서는 우리나라의 고유문화 풍습을 왜곡하고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만들었고 한글사용을 금했으며, 일본어를 배우게 하는 등의 문화 말살의 정책을 강력하게 감행했다.

5. 건국 자유대한민국의 가치와 헌법정신을 바로 세워 공산화와 사회주의를 막아라.

건국 당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간의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은 북한과 다른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함으로써 지금의 번영을 가져 올 수 있었다.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사수하고 진정한 자본경제체제, 평화통일이 오기까지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펼쳐 가야만 할 것이다.

미국, 소련이 중심이 된 2차 대전은 연합군의 승리로 말미암아 일본 천황은 두 손 들고 패배를 선언을 했으며 우리나라는 자력이 아닌 외세의 힘으로 1945년 8월 15일 자유를 얻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해방되기 전부터 좌우의 이념의 싸움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국제 정세의 변화는 러시아 붉은 혁명, 중국의 공산화 등 동남아시아가 사회주의로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다. 동시에 사회 곳곳에 좌익 이념을 갖고 있던 인사들이 다양한 계층에 들어가 국민들은 신음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러나 우리 조부모, 부모세대들의 인내, 근면과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지금의 대한민국은 세계경제 대국으로 발전하였다.

6. 사회적인 전반과 후대에게도 공범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흐르게 하라.

대한민국 사회가 현재 겪고 있는 위기와 관련하여 역사적인 각종 사건들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와 6.25한국전쟁으로 전국토가 황폐화 되었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다. 70여년 만에 경제부국을 이루었다.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발전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지만 우리는 해내었다.

이렇게 저력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하여 더욱 나라를 굳건히 세우고 민의를 대변하여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 지기를 희망한다. 모든 국민들이 건설하는 대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나라사랑과 이웃사랑으로 우리 사회 전반과 후대에게도 공범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 같이 흐르게 하자. 바라기는 금번 총선을 통하여 바른 정치가 형성되고 헌법 가치에 맞는 국가관을 지니고 지역생활에서 겸손히 낮은 자세로 성숙하고 분별력 넘치는 정치지도자와 국민들이 되기를 기대한다.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5가지 서비스로 튼튼하고 든든하고 탄탄하게

트든타

고객케어

유용한 보험
보험료 할인부터
플리자(예약까지)
편리한 보험 생활의 시작

쉽고 빠른 청구
보험금 청구의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해결

특별한 케어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와 자산 관리

빈틈없는 보장
꼭 필요한 보장을
빠짐없이 점검

솔솔한 혜택
건강과 생활까지
챙기는 혜택

1588-3114

삼성생명 홈페이지/모바일 앱 「트든타 고객케어」 메뉴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구원론: 나 대신 피 흘리신 예수님(1)

최더함 박사
Th.D. 바로선개혁신교회
담임목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뱀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삼 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막 10:32-34)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45절)

1. 인생의 의미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는데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이라면 어떤 심정으로 그 일을 하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면 그에 따른 소득이나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보장이 없는 일을 한다면 신이 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자신의 기쁨과 안위와 관계없이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어 주셨습니다. 오늘을 우리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가까이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이야기에 집중해 봅시다.

3년간의 공생애가 서서히 최종 단계에 이를 즈음 예수님은 드디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 출발하셨습니다. 이 장면에서 특기할 것은 사복음서 기자들의 관점과 기록형태가 사뭇 다르다는 것입니다. 먼저 마태와 마가는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마 20:17, 막 10:32)고 보도합니다. 그러나 누가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가매”(눅 9:51)라고 보도합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동생들의 사정을 배경으로 깔고 예루살렘 행을 보도합니다. 다시 말해, 동생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요 7:5). 그런데 예수님이 매우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형님 덕을 좀 보자는 것입니다. 그들은 대놓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는 길인데 동생들은 시골에 묻혀 있지 말고 화려한 도시로 나가 이름을 떨쳐보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들의 관심은 오직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라는 성공은 그저 잘 먹고 잘사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목적과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런 부류를 세속주의자라 합니다. 이들은 과거나 미래에 관심이 없고 오직 현실에만 관심을 두고 삽니다. 이들은 또 하늘의 일에 무지합니다. 오직 땅의 일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모든 인간은 주어진 인생 안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은 아무런 목적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 인생이 주어졌고 누군가의 뜻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보낸을 받은 것입니다. 아무도 목적 없이 사는 존재는 없습니다. 물론 인본주의자들과 자유주의자들은 목적 따윈 없다고 주장합니다. 특별히 허무주의로 불리는 회의주의자들은 무에서 왔다가 무로 돌아갈 뿐이라 말합니다. 창조주의 개념 없이 무에서 어떻게 유가 나오는지 설명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럴듯한 언어유희를 하는 것입니다. 에피쿠로스 같은 쾌락주의자들은 인생은 단순히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부추겼습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무신론자는 기금을 모아 “하나님은 없다.

그러므로 인생을 즐겨라”는 광고물을 만들어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산길에 놓여 있는 돌맹이 하나도 창조주의 의도에 따라 그 자리에 위치했다고 노래했습니다. 시인 김춘수는 ‘꽃이라는 시를 통해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하나의 의미다”고 노래했습니다. 모든 존재는 의미를 가지고 태어나고 살도 의미를 완성하는 것으로 생을 마감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목적 없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존재이자 하나님으로부터 각자 수행해야 할 목적과 의무를 받고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보금자리도 아니고 우리가 영원히 살 곳도 아닙니다. 세상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곳입니다.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영은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사코 놓아주지 않으려 술수와 계계를 다 획책하며 방해합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은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음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희소식을 공포하고 그들이 스스로 응답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계속>

안광문 박사와 함께 떠나는 에베소서 일주 여행

안광문 목사
달라스 생명교회



에베소서의 저자(3)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입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노예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살 수 있는 곳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 대도시 로마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는 로마로 도망갔고 마침 로마에 죄수의 몸으로 왔던 바울과 운명적인 만남을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오네시모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바울과의 교제를 통해 성숙한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권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오네시모를 받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담은 편지를 빌레몬에게 썼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 살았던 곳은 골로새였고,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리더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단의 문제 가운데 있던 골로새 교회를 위한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이 편지가 바로 골로새서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 혼자 보내지 않았습다. 혹시 오네시모가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바울이 오네시모와 골로새로 보냈던 사람이 두기요입니다(골 4:7).

손왕원 교수는 아마 두기요는 에베소가 고향이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에베소는 로마에서 골로새로 갈 때, 골로새에서 로마로 돌아올 때 지나가야 하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썼을 것이고 이 편지를 두기요 편에 보냈을 것입니다(엡 6:21). 이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학자들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울 신학의 중심은 “이신칭의”이나 에베소서에서는 2장 8절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이신칭의” 신학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합니다. Lincoln은 바울은 주로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 강조하고 있지만 에베소서는 2장 16절을 빼면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 다루지 않고 예수의 부활, 승천, 우주적 주재

권에 대해서만 다룬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Lincoln의 의견이 맞다고 해도 바울 서신에서 신학과 에베소서의 그것이 대립적이거나 모순적이지는 않습니다. 한 쪽은 구원론, 다른 쪽은 교회론에 대한 말씀이라고 본다면 상호 보완적입니다.

또한 대부분 학자가 바울 저자를 인정하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기록 시점이 바울 사역 초기라는 점에서 에베소서 기록 시기와는 시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Lincoln의 주장처럼 양쪽 간의 신학적 차이는 다른 저자 때문이 아니라 기록 시기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바울 서신과 신학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서의 저자가 아니라고 확언할 수 없습니다.

Gorman은 20-30% 정도의 학자들만이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다고 인정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신약학자들 중 70-80%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에베소서를 기록했다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Lincoln은 이전에는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였다는 의견에 동의했지만 연구를 할수록 바울의 다음 세대, 즉 1세기 후반이나 2세기 초 바울의 제자나 추종자가 기록했다는 의견에 기운다고 말합니다. Gorman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한 점과 에베소서과 빌립보서에서 두기요를 통해 소식을 전한다는 점(엡 6:21-22; 골 4:7-9, 16)을 볼 때 바울이 에베소서를 썼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저자가 누구라는 사실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손왕원 교수는 서신서는 그 서신서를 기록한 사람의 신학과 사상, 그 당시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아닌 바울의 제자 또는 제3의 인물이 에베소서를 썼다면 에베소서는 바울의 배경이 아니라 바울의 제자나 제3의 인물의 배경을 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Bruce는 만약 바울의 제자 중에서 바울의 이름을 사용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다면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엡 3:8, 새번역) 같은 표현을 쓸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손왕원 교수는 바울의 제자나 제3의 인물이 에베소서를 썼다는 주장은 에베소서의 정통성을 훼손하기 위한 계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지 않았다면 에베소서는 바울 신학, 특히 교회론을 담고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하는 선교적 과제,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

안승오 교수
영남신학대학교 교수
선교신학



로잔이 추구할 선교와 윤리의 바람직한 관계(下)-2

◆요약과 전망
본 장은 선교에 있어서 윤리의 위치를 세 가지 입장으로 정리하였다. 첫째는 윤리적 과제를 선교를 위한 다리 또는 선교의 열매로 생각한 전통적 입장, 둘째, 윤리적 과제를 선교의 목표로 생각한 에큐메니칼 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교적 과제와 윤리적 과제를 하나로 보면서 동등한 위치로 놓는 통전적 입장 등이

그것이였다. 이제는 양 진영 모두 공히 윤리적 과제를 선교의 개념에 포함하면서 윤리적 과제 수행이 선교적 과제와 나뉘어 생각될 수 없고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로잔 진영 안에는 여전히 이러한 통전적 입장 그리고 그러한 입장과 연관된 포괄적이고 확대된 선교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런 이유로 로잔 안에 일정 부분 혼동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이 장은 선교 수행에 있어서 윤리적 과제의 바람직한 위치가 어디일까를 고민하여보았다. 가장 먼저 윤리적 과제는 선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신중하게 고려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선교 자체가 무너질 수 있음을 살펴 보았다. 하지만 윤리의 과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해도 선교와 윤리는 처음부터 다른 개념이고 다른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로 윤리적 과제는 선교의 개념에서 분리되어 고려되어야 하며, 우선순위의 상실로 인한 효율성 저하를 막기 위해서라도 두 과제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고려되어야 함을 살펴보았다.

물론 이러한 관점은 오늘날 이미 두 과제가 동일하게 중요하고 분리될 수 없다는 통전적 관점이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쉽게 이분법적인 접근 또는 과거 회귀적인 접근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논리적으로만 보면 두 가지의 과제를 통합적으로 동등한 위치에서 보는 통전적 입장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 입장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전적 입장은 서로 다른 요소들을 하나로 만들면서 개념의 혼동을 줄 수 있고, 우선순위를 놓치면서 효율성의 약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점에서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별히 오늘

날 기독교가 심각하게 약화되고 있는 반면 이슬람과 같은 타종교들은 왕성하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도 할 수 있는 윤리적 과제에 많은 힘을 쏟으면서 전도의 과제를 약화시킬 수 있는 선교관을 가진다면 기독교가 과연 21세기 말에도 여전히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 우려된다. 물론 여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이며 이런 점에서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의 우선적인 과제라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주장은 여전히 교회 중심적 시각에 불과한 것으로 비칠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교회가 있을 때에 세상을 섬기는 신학적 논의와 실천 등도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여전히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그것이 세상 섬김으로 이어지는 선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끝>

세상에 행복을 물 놓다.
World Top K-water

물로 더 행복한 세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임사체험, 소생, 그리고 부활



민중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목사

제가 어렸을 때 고모할머니께서 종종 종가인 우리 집에 오셨습니다. 종손인 저를 귀여워해 주시며, 옛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어린 시절에 들었던 죽었다가 소생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어떤 사람의 시체를 묻으려고 지게에 지고 가다가, 언덕에서 쉬는 중 지게가 흔들리고 사람이 움직여서 동네 사람들이 놀라 도망했다가 후에 전해 들은 저승 이야기입니다. 소위 '임사체험(NDE: near-death experience)'의 오래된 사례를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들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게 된 이후로 영적 호기심을 가진 저는 임사체험을 다루는 여러 종류의 책을 읽었습니다. 플라톤의 『공화국』 마지막 권에 나오는 임사체험 이야기를 비롯하여 『죽음 저편』, 『사후생』, 『죽음의 저편에서 나는 보았다』 등 여러 권입니다. 최근에는 7일 만에 뇌사에서 살아 온 하버드 신경외과 의사의 임사체험을 그린 『나

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다시 읽었습니다. 두뇌 과학자인 이븐 알렉산더(Eben Alexander III)는 죽음 저편을 경험하기 전까지 철저히 경험과학적인 차원에서 임사체험을 다루었습니다. 그는 모든 환상, 영적 체험과 임사체험과 소생을 뇌에서 발생하는 기능으로 즉 "과학적 환원"이란 관점에서 파악하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이븐의 입장이 변한 이유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임사체험과 소생 때문입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과학과 인생과 종교를 새롭게 보는 시각을 획득하였습니다. 그가 기적에 가까운 뇌사 상태에서 육체뿐 아니라 영적인 시야가 열리는 체험하고 난 이후, 그는 오히려 임사체험을 연구하였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그는 인생을 더욱 진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식이나 정신세계가 물질이나 과학으로 완전히 설명될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과학적 세계관으로만 하는 인간 연구는 '자신을 골방에 가둔 채로 연구'하는 편협한 방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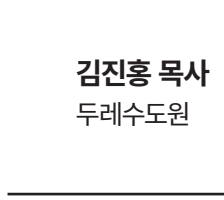
사람이 임사체험과 소생을 경험하여도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은 소생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완벽한 죽음을 체험하셨습니다. 그는 온몸의 상처와 십자가의 고통으로 체액을 다 쏟으셨고, 소생의 소망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강이

뼈를 쥐지 않을 정도로 일찍 돌아가셨음을 로마 군인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사 체험자의 소생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죽음에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육체, 변화된 육체, 영광스러운 신체를 덧입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소망은 소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변화된 육체로 영원하게 사는 예수님의 부활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맞이할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임상적으로 죽었다가 빛과 영광의 천국을 체험하고 돌아와서 한 이야기도 우리가 무시하지 않는다면,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체험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는지요. 예수님의 말씀뿐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 부활과 승천 그 자체가 궁극적인 계시이자 우리의 소망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소망은 우리의 영육의 구원, 영원한 구원, 하나님을 대리하여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의 회복과 완성, 영광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과 같이하는 위안, 그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하는 찬란한 미래, 하나님의 통치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즐거움, 대적 사탄과 그의 악령들로부터 벗어나 승리를 향유하게 된다는 미래가 곧 우리의 영광스런 소망의 내용입니다.

사람 만들기



김진홍 목사
두레수도원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의 첫째는 안보도 아니고 경제도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들이 흔들리고 있는 위기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첫 번째입니다. 건강한 사회가 그러하지만 건강한 교회 역시 건강한 가정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근 세계적으로 뜨고 있는 학문이 가족학입니다.

가족학은 가정학과 다릅니다. 종래의 가정학은 음식, 주거, 의복, 가사 등을 중심으로 다루었지만 가족학은 가정에서의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다룹니다. 미국의 가족학의 권위자인 버지니아 사티어(Virginia Satir) 교수가 쓴 『Peoplemaking』이란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람 만들기』란 제목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서두에 쓰기를 자동차는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지고 TV는 TV공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가정에서입니다.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입니다.

자동차 공장에서 불량 자동차를 만들어 내면 불량 자동차가 길거리를 다니게 되고, TV 공장에서 불량품을 만들어 내면 불량 TV가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불량 청소년들이 만들어집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그 가정의 자녀들은 당연히 건강하게 되고, 가정이 불행하면 그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 역시 불량 청소년이 됩니다.

사티어 교수는 가정이 지나는 온갖 문제를 다음의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 첫째는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관입니다. 둘째는 가족들 간의 인간관계입니다. 셋째는 가정에서 가족들 각자가 지켜야 할 규칙입니다. 넷째는 그 가정이 외부와 맺는 관계입니다.
- 이들 4가지가 균형이 잡히고 아름다울 때에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나 이들 4가지 중에 벗어나고 균형을 잃어버린 점이 있을 때에 그 가정은 병든 가정이 되고 가족들은 불행하게 됩니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구독신청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구독문의 02-6085-8166
광고문의 02-6082-8165
대표구좌
농협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社說

4·10 총선,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율

제22대 국회의원을 뽑는 본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지난 5·6일 실시된 사전선거 투표율 31.28%가 말해주듯 지지세 결집이 적극적인 표심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띠고 있어 역대 어느 국회의원 선거보다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교계는 이번 총선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린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며 한 사람도 빠짐없이 투표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5일 은혜와진리교회에서 '2024년 4월 총선을 위한 1,200만 성도 기도대성회를 개최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올바른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며 "저출생 극복, 의대 정원 확대 문제, 대한민국 경제 안정, 국가 안보와 평화 등을 놓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했다.

앞서 1일 총선 관련 특별담화문을 발표한 한국교회연합도 "이번 총선은 자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미래를 향해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휘둘려 비참하게 추락하느냐 갈라질 선 중대한 선거"라며 "기권하지 말고 반드시 투표에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교계가 총선에 이처럼 비상한 관심을 두는 건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느 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최대 쟁점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 각종 악법 시도가 재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다수 국민의 인권을 희생시키는 역차별법이란 교계의 거센 저항에 막혀 발의만 된 채 끝났지만 2007년부터 거의 매회마다 단골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과 같다.

교계는 그동안 범 조항에 포함된 '성적 지향'을 지목해 절대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21대 국회에서 4건의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자 거의 한 주도 빼놓지 않고 시위에 나서는 등 반대 여론을 사실상 주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가 커질수록 친 동성애 진영의 압박 또한 집요해지는 양상이다. 지난해 1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걸 계기로 친 동성애 진영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는 목표 아래 총선에서 진보성향 후보에 표를 몰아주기 하는 등 적극적인 세 결집에 나섰다.

그런데 소위 진보진영이 22대 국회에서 제정하려는 게 '차별금지법' 하나만이 아니다. 기본소득 당 용혜인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생활동반자법'도 예외는 아니다. 혈연 및 혼인 관계가 아니어도 생활을 공유하면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의 이 법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혼인평등

법'과 함께 사실상 동성혼을 법제화하려는 시도여서 22대 국회 원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준폐가 달랐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5년이 지났다. 국가가 대체 입법을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수많은 태아의 생명이 죽어 나가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권인숙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 등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고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나 소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만약 22대 국회에서 이와 유사한 법률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가 태아 살인을 합법화한 '낙태 전국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다.

총선을 앞두고 교계 반동성에 단체들이 총선에 출마한 각 당 후보들을 대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찬반을 묻는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응답자 중 반대 79%, 찬성 6%, 답변 유보 15%로 나왔는데 총 696명 중 불과 15%만이 답변한 결과치라는 점에서 표본자료로 삼기엔 미흡하다. 다만 정당별 찬반율에서 국민의힘 88%, 더불어민주당 53%, 개혁신당 67%가 반대하고, 비례정당인 새로운미래와 자유민주당, 자유통합당은 100%가 반대한 반면, 녹색정의당 등 진보계열 정당 모두가 찬성했다는 건 정당 선택 시 참고할만하다.

이번 사전선거 투표율이 역대 총선 최고치를 찍는 것을 놓고 여야의 분석은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투표율만 가지고는 어느 쪽의 유효불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정책 대결에 온 힘을 쏟아야 할 공당들이 투표일이 가까울수록 저급한 발언과 상대에 대한 흑색선전을 일삼는 등 공명선거의 물을 흐리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이번 총선에서 허무맹랑한 거짓말과 흑색선전을 남발하는 자격 미달자와 파렴치한 범죄자가 과연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감옥에 가 있어야 마땅한 자들을 총선 판에 불러내고 누가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찍어주겠다고 하는 강성지지층의 소위 '묻지마' 투표가 이번 선거판을 어떻게 뒤 흔들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들의 열화같은 지지로 국회의원 배치를 단 자들이 22대 국회에서 무슨 일을 벌일지를 생각하면 벌써 눈앞이 캄캄하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나라의 위기 앞에서 "똥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외치며 국민의 흩어진 마음을 한데 모았다. 투표하지 않으면 악한 세력의 준동을 막을 길이 없다. 대한민국의 앞날이 심히 걱정돼 밤낮없이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해 온 1천만 성도들이 4월 10일 반드시 투표소에 가야 할 분명한 임무가 여기에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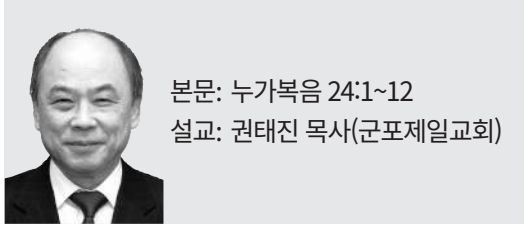
KDIC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생활하자



본문: 누가복음 24:1-12
설교: 권태진 목사(군포제일교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호흡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켰습니다. 예수님이 임종 전 마지막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누가 보아도 저주의 사건이고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3일 후 일어나는 부활의 사건을 보면 승리와 영광의 역사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람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이다”(요17:25-26)

요한복음에는 십자가의 사건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임종하실 때 성전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파가 제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눅23:44-45)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고 숨지셨습니다.

“백부장!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눅23:47)

예수님의 십자가 형틀은 저주의 상징입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산 위에 형틀을 세운 이유는 예수

님이 죄인임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따르지 못하게 할 의도입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신21:23)

예수님의 죄는 조작되었습니다. 로마의 법으로도 재판할 수 없었으나 숨어서 군중을 조종하는 이들이 여론을 부추겨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임의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마15:10-11)

1.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와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다”(눅23:51-54)

예수님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준비해 놓은 빈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장례 행렬에는 평소와 예수님과 함께했던 여인들도 따라갔습니다. 안식일은 현재의 토요일이며 안식 후 첫날이 우리가 지키는 주일입니다. 장례 행렬에 따라갔던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누가 돌문을 열까 걱정하며 도착해보니 이미 무덤이 열려 있었습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눅24:2-3)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보고 누가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근심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아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눅24:4-5)

천사 앞에서 인간은 두려워 앉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선지자들도 하나님께 보낸 천사를 대할 때 그 앞에 앉드렸습니다.

2.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시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눅24:6)

예수님의 예언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고 대속 사역이 완성됨으로 많은 것이 달라졌습니다. 저주받은 자를 처형하는 십자가가 구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고 안식 후 첫날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부활의 증인이자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마 28:8)

부활의 현장에서 천사들을 만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라는 부탁을 받은 후 여인들은 무서움과 기쁨의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인들 앞에 나타났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마 28:9)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요, 보고 말하고 만질 수 있는 완전한 부활입니다.

3. 부활을 전하고 부활의 신앙으로 생활해야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 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눅24:8-10)

여인들이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을 열한 사도에게 전했으나 그 말을 들은 사도들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눅24:11)

사도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천국 백성이 되어 천국 복음을 받고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말을 들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인들의 말을 허탄하게 여겨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부활의 신앙이 없고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 현장을 목격하러 갔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러 들어가 보니 세마포만 보이느니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눅24:12)

예수님은 예언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시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삼판주로 오십니다.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집으로 리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

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니”(눅24:13-15)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눅24:32)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예수님은 모인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눅 24:33)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눅24:36)

예수님은 평강을 주러 오셨으나 무덤을 지키는 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마28:4)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 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마28:11)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덮기 위해 군인들의 양심을 돈으로 사고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려 부활의 진실을 덮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덮이지 않습니다. 부활도, 간국도, 우리의 선행도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도 복음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나 권력에 눈먼 자들은 돈과 명예로 여론까지 덮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생활합시다. 다가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복음의 정신으로 한 표를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복된 지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군포농업협동조합, (사)성민원에 '사랑의 쌀 1000kg' 전달

결식 청소년·노인 및 소외계층 위해 사용

군포농업협동조합(조합장 이명근) 임원진이 사단법인 성민원(이사장 권태진 목사)에 결식 청소년 및 어르신과 소외계층을 위한 쌀 1000kg(300만원 상당)을 지난 4월 5일 군포제일교회 예루살렘에배당에서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성민원 이사장 권태진 목사와 산하 시설장, 군포농업협동조합 이명근 조합장과 임원진이 참석했다.

성민원은 후원받은 쌀을 성민무료급식센터를 통해 결식 청소년 및 어르신들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지역의 소외계층에게도 전달할 예정이다.

군포농협은 시민들의 신뢰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한 지역 환원사업으로 (재)군포사랑장학회 등 장학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10억1000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는 등 지역 우수인재 육성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이밖에도 농업인을 위한 농촌일손돕기, 자연재해로 인한 복구비 지원은 물론 지역사회에 독거노인·소년소녀 사랑의 쌀 전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환경정화운동 등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명근 조합장은 “성민원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쌀 전달행사를 준비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는 군포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성민원 이사장 권태진 목사는 “성민원에 관심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후원해주신 군포농협에 감사드립니다”며 “사랑의 쌀이 소외된 이웃이 필요로 하는 곳에 의미 있게 사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민원은 1998년 군포제일교회 부설 사회복지기관으로 설립돼 26년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에 전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성민무료급식센터는 2010년부터 100% 기부담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내 결식 청소년과 어르신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오고 있다. 이우리 기자



군포제일교회 예루살렘에배당에서 (사)성민원과 군포농협이 쌀 전달식을 진행하고 있다. ©이우리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도 교회로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교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은 오직 복음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미복지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섬김으로 맞이하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영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에서 열여덟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설교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전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창 3:9절)

매주(화, 수, 목, 금) 저녁 8시에 특별영성 집회가 있어 여러분을 초대 합니다.

특별영성 집회는 말씀 듣다가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문제가 해결되며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집회입니다.

“내 영혼이 잠들 같이 내가 밤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3서 1장 2절)

특별 기도

1. 은혜를 사모하며 은사를 체험하고자 하는 분
2. 임지가 없어서 주일예배가 부담스러운 분
3. 교회 다니다가 쉬고있는 분
4. 교회나 기도를원 개척하고자 하는 분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와보세요!
(산 속의 기도원같은 집회) ※ 반주자 구함

◆ 집회안내 : 매주(화, 수, 목, 금) 저녁 8시
◆ 장소 : 주영광교회
경기도 평택시 서정역로 36번길 7
연락처 : 010-6327-8297

◆ 찾아오시는 길 : 서정리역 출구에서 직진하여 도보 3분거리(서정리 지구대 뒤) 송탄 신장 육교 4거리에서 2번 버스 승차 후 서정리역 하차 도보 3분 소요

영적찬양신유은사대성회

• 총회신학교 졸업
• Midwest 신학대학교 졸업
• Midwest 신학대학원 교회음악 석사과정
•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졸업
• (사)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중앙위원
• 감서성결교회 음악목사 역임

특별 기도

- 손발이 찬 분
- 독감으로 고생하는 분
- 성령충만 받기를 원하시는 분
-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

최바울 목사
백석총회 동남노회

핸드폰 : 010-3742-9191

너희는 마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전도용 사랑의 건빵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다니엘서2장3절)

믿을 수 있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금풍제과 제품입니다!

심희승 대표(화창)
010.9289.2442. 02.2273.7247.
신한은행.110.191.288484.

문의: 010 9289 2442

3대머슴출신 조삭개오 목사는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왜 9번의 앵클방송을 방영했을까?

생생히 살아있는 굼벵이간증을 통해 성도들의 성경적 경제 부흥과 현금 관이 확실히 바뀌어질 겁니다

조삭개오 목사 검색해보시고 은혜되시면 물지도따지도 않고달려가는 머슴 조삭개오 불러주세요

주간에서 승리하세요 건강잘챙기세요 기도합니다

조삭개오목사올림
010-9603-0691

CTS 내가매일기쁘게 출연
C채널 회복플러스 출연

1000회 이상 간증 집회 인도

1995~2024 /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교회복지연구원

교회복지학과 신입생 모집

2024년도 불학기 신입생 모집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 교육기간 : 2024년 5월부터 12주
서울(화요일), 대전(목요일)
- 교육장소 :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강의실(3층, 4층) 및 분원 강의실
* 서울은 단 1명이 등록해도 개강합니다.

• 등록비 :
- 50만원(점심식사 제공, 국내 교회복지 실습비 포함)
- 500만원(호주 & 미국으로 교회복지 실습 희망 시)
* 등록비는 개강식 이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며 분납도 됩니다.

• 등록방법 :
010-9643-6356 문자로 성명, 직분, 등록 지역을 보내시거나 www.cws95.net 신청에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기재하시고, 신청 내용에 신청(예/서울 신청)이라고 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상담문의 : 010-8011-9191(서울/김성덕 박사)
010-5115-9104(대전/정바울 박사)

[특전 및 진로]

- 2년 4학기 수료자는 본인 졸업증서 및 교회복지사 자격 취득(자격 발급비 없음)
- 목회자의 경우 1학기 수료 이후 소정의 자격시험 합격 시 교회복지사 자격 취득
- 목회자의 경우 국내외 교회 및 기독교 관련 복지기관 및 시설 교회복지 전문 목회자로 활동
- 평신도의 경우 국내외 교회복지 기관 및 시설, 기독교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설치 및 운영

www.cws95.net

양봉선교회 양봉무료교육

농어촌 목회자에게 무료 양봉 교육을 통해서 교회자립과 목회자 생활 안정을 위한

대상 : 농촌.어촌.초교파 목회자

접수 : 24년 4월 30일 오후6시까지
010-8813-0191
>> 문자접수 << (지역,교회,목회자 성명)

인원 : 접수순 20교회(1교회 목회자 부부도 가능함)

설명회 : 24년 4월 27일 (토) 오전 9:30

장소 : 대전충신평생교육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5 (대덕구청 정문 앞)

수업일 : 5월 4일-7월 6일 (10회예정)
매주 토요일 오전 9:30-오후5:30

특전 : 교육비 전액 장학.
1차 교육 후 양봉관리지도사 3급 자격증 취득 가능.

주관 : 한국양봉선교회

기타 : 전화 상담 사절함, 설명회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려줌.

문의 : 042-633-8311, 010-8813-0191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 생수같은 말씀
- 강력한 축사
- 우울증해결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 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교회건축의 모든 것
교회건축포럼

교회건축&리모델링 세미나

주제 _ 바라보는 교회건축

2024.04.30(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B1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 앞 위치]

2024.05.07(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3F 포럼 2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 2호선, 동백역 1번출구 도보 15분]

참가비 : 30,000원(중식 및 기념품 증정)
• 우리은행 _ 1005-604-628807 [예금주 : 교회건축포럼]
• 문의 및 등록
• 전화등록 : 070-4355-3308
• 문자등록 : 010-3966-1463
[문자등록시 (1.교회명 / 2.등록자명(직분) / 3.참석인원 / 4.핸드폰번호)]
• info@cbuild.co.kr

설계
(주)아인건축사사무소 최두길 대표
- 팬데믹 이후의 교회성장을 위한 설계
- 뉴노멀로서의 교회공간 역할의 복합화
-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적 공간전략
- 신재생 녹색 환경의 교회

미디어
(주)크리스시스템 박정민 실장
- 더 나은 유튜브 예배송출 노하우
- 방송장비 운영인력의 솔루션
- 대형 led 구축과 운영의 실제
- 알스 스튜디오 융합기술
- 연무대교회 7000여 조명 리뉴얼 사례
- 기독교 뮤지컬투어 방송 사례(수영교회/ 호산교회)

인테리어
에스프리글로벌 최종민 대표
- 강력한 효율을 얻는 리모델링 사례 분석
- 예배를 돕는 공간 연출의 기준
-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활용
- 건축환경에 맞는 인테리어의 중요성
- 라운지의 카페, 레스토랑 솔루션
- 3D 시각화를 통한 아이디어 적용 방법

CM
(주)라미건축사사무소 이범구 대표
- 교회건축 전문가가 사제를 통하여 전하는 교회건축의 올바른 방향
- 교회건축, 교회가 우선이다
- 교역자가 알 필요, 건축원리가 알 필요
- 설계자의 업무, 사교자의 업무
-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열왕기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열왕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레이몬드 달라드는 WBC 성경 주석 시리즈 중 <역대하>를 집필한 성경학자이고(솔로몬, 2005), 이번엔 좋은씨앗에서 출간된 <열왕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와 함께 단 두 권의 책이 국내 보급되었다. 출판사는 달라드에 관하여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데 정평이 난 학자로 알려졌다"고 소개했는데, 그의 책을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싱클레어 퍼거슨과 D. A. 카슨, 모세스 실바 등 건전한 성경적인 교리를 가르치는 데 헌신하고 있는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서, 다소 생소한 달라드 역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을 이 책을 통하여 전달해 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저자 달라드의 가장 큰 관심은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 것이다. 그는 십대 초반에 성경 읽기에 관심을 둔 이후로 구약 성경을 통해 개인을 위한 격려와 교훈을 얻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교수들을 통하여 새로운 성경 읽기 관점을 배우게 됐다. "나를 위한 교훈 찾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찾기'에 관심을 두는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 성경 읽기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보다 더 큰 성경 읽기의 유익은 없기 때문이다. 저자는 구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조화롭게 이해하는 방식을 배웠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을 구약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려 했다.

"그리스도 중심"을 잘못 이해하고 오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스도의 예표나 상징을 찾아보기 힘든 본문에서 억지로 찾아내려고 할 때 잘못된 해석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냈다고 강조하는 주일학교/학생부 교재나 일반 신앙 사적에서 종종 발견한다. 가령 성막의 여러 기구와 도구를 그리스도의 여러 성품과 사역과 억지로 연결 지으려고 한다. 이렇게 잘못된 방식으로 발견한 교훈들은 신실하고 흥미로운지는 몰라도 성경이 주장하는 내용과 거리가 멀다. 하나님 계시하시고 있지 않은 내용이라는 말이다. 레이몬드 달라드가 풀어낸 열

왕기에서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열왕기 본문 해설과 그리스도에 관한 설명이 절묘한 조화를 이룬다. 저자는 이 책이 1) 경건한 독서 길잡이, 2) 소그룹 성경 공부, 3) 설교 준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성도 개인부터 성경 공부 인도자, 주일학교 교사 및 목회자에게 두루 유익을 끼치기를 바란다.

엘리아와 엘리사 이야기를 다루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시도는 어떤 독자에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 직소 퍼즐이 착착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퍼즐 전체가 보여주기 원하는 큰 그림을 발견할 수 있다. 그 큰 그림이 저자가 원하는 하나님의 계시라면, 우리는 저자가 어떤 퍼즐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하려 하는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충분히 납득될수록, 퍼즐이 맞춰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여 주는 큰 그림을 통해서 깊은 감동과 교훈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독자는 저자가 설명하는 열왕기 본문을 이해하는 지식(저자가 충분히 잘 설명해 주기 때문에 쉽게 얻을 수 있는 지식)과 함께 저자가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신약 성경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것이 부족한 만큼 혼란이 가중된다. 그럼에도 이런 방식의 성경 읽기와 성경 강해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것

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방식이고, 또한 제자들이 복음서와 사신서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그분의 가르침을 제시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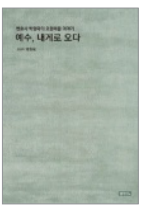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절 중 하나인 분열 왕국 시대, 가장 강력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악한 왕과 백성이 우상에게서 돌아와 하나님께 회심하기를 원하셨다. 오늘날 교회가 속한 시대는 말세로, 갈수록 암울해지는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영적으로는 더욱더 우상숭배에 빠지기 쉬울 때고, 그래서 더욱더 강력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심을 선포해야 한다. 레이몬드 달라드가 어떤 메시지를 이 악한 세대에게 전달해야 할지 <열왕기,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통하여 그 모델을 보여준다. 이 책을 통해 예수님에 관하여 증언하고 있는 성경을 바르게 읽는 법을 배우자. 이 책을 통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시는지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법을 배우자.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이제 도덕적 교훈적 설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이 배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성도들에게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뚜렷이 보여주자.

조정익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유포교회

신간

예수, 내게로 오다

『예수, 내게로 오다』는 독특한 책이다. 부제가 말하듯이 신학자가 아닌 법률가, 변호사가 읽은 <요한복음>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저자 박현욱은 변호사로서 법조인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저자는 자신을 현대의 니고



데모로 표현하며 요한복음을 통하여 만난 파스한 예수,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이 책에 풀어냈다.

이 책은 한 평신도의 예수 경험에 대한 신학적 성찰의 이야기이며 1세기의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삶에서 재현하고 싶어하는, 21세기 한 그리스도인의 뜨거운 예수 사랑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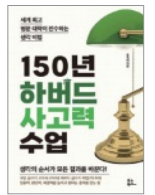
야기다.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 랍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엄격하고, 전통적인 유 대교는 그의 삶이었고, 문화였다. 거기서 그는 아버지처럼 엄격하고 권위적인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은 무한한 힘을 가졌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였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를 판단하고 심판했다. 하지만 초월적이고, 거부적적인 하나님에게서 니고데모의 마음은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크고 작은 고통이 모여서 우리의 심장을 조여오면, 우울증에 시달리게 된다. 침묵을 강요당하면서 타인의 힘과 권력 앞에서 무력하게 끌려다녀야 하는 가슴 아픈 경험들이 쌓이면 모멸감과 무력감이 허우적대게 된다. 우리의 일상은 이런 경험의 연속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험이 차곡차곡 쌓이면, 우리는 스스로를 경멸하게 된다. 감정은 무너지고, 기계처럼 자동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하버드대 150년 전통 '비판적 사고력' 교육법 공개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 대학교가 150년 동안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핵심 역량인 '비판적 사고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책으로 출간됐다. '150년 하버드 사고력 수업(유노북스)

은 1636년 개교한 하버드대에서 150년간 학생들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해온 비판적 사고력 프로그램을 정리한 책이다.

저자는 AI 시대를 맞아 스스로 탁월하게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춘 이들이만이 인정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책에 소개된 '3차 포맷 사고법'은 관찰, 성찰, 통찰의 3단계로 구성돼 있다. 관찰 단계에서는 즉각 판단하지 않고 사실 그대로를 주의깊게 살펴본다. 성찰 단계에서는 관찰 내용을 분석하고 추론하며 파고든다. 마지막 통찰 단계에서는 앞선 두 단계에서 일어난 생각, 느낌, 발견

등을 종합한다.

저자는 이같은 사고 과정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생각과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각의 순서가 모든 결과를 바꾼다는 점을 강조하며, 체계적 사고 훈련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나래 기자

4월, 작가들의 말말말



우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소원을 바는 도구로 이용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지만 그것 앞에서 굽신하며, 그 우상에게 나를 구원하라고 애원하는 것이다. 사람이 만든 생명 없는 물체를 향하여 나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고 소리치는 것이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우상은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사람이 우상에게 마음이 미혹되어 우상과 하나님을 분별하는 능력이 상실되어 옳지 않게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와 교회의 분리라는 침례교의 정체

성 앞에서 일제가 침례교의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허물어버리려 했을 때 침례교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하였다. 일제는 천황이라는 신(神)이 통치하는 종교 국체였고 침례교인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굴복과 저항의 기로에 서서 저항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일제의 국체인 천황에게서 국가와 종교를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일제의 통치는 국가와 종교를 하나로 합친 국체(천황)에 의해서 통치되는 신정 체제이기때 침례교와의 충돌은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침례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일제의 종교 통치방식을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김대용 '인문학적 시가 예수나 우상이'



저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7가지 독특한 방식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주로 예배 인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로 인도하기 위해 노력할 때, 그 분이 제 삶을 통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몇 가지 계절을 가지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동안 그분이 행하신 여러 가지 일들을 배웠습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예배할 때 일하십니다. 예배할 때 우리는 진리를 선포합니다. 진리가 선포됩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기억 중 하나는 제가 5살 무렵에 얼마가 야기용 그랜드 피아노로 찬송가를 연주하고 계셨을 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족들이 모여서 찬송가를 부르곤 했고 잠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랜드 피아노 아래서 평화롭게 찬송가 소리를 들으면서요, 하나님 말씀의 진리가 어렸을 때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깊이 심겨 있었다는 것을 저는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나 모일 때, 우리를 인도하는 그토록 중요한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어지고 있습니다. 티미 워커 '나는 주만 높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수많은 선물을 누리고 산다. 너 무나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설계 주신 것이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비밀이 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 엄청난 비밀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 비밀을 알려주신다.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게 사는 이유가 하나님의 비밀

을 모르기 때문이다. 인생은 여행이다. 여행을 마치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무슨 약속이 필요하겠는가? 에베소서 3장 9절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엄청난 비밀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라" '경륜'이란 '일정한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함'이란 뜻으로 하나님께서 포부를 가지고 준비하신 계획을 말한다. 이 비밀은 인생의 영원한 행복을 위한 신비로운 비밀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준비하신 최고의 축복이지만 많은 사람이 관심이 없는 것이 문제이다. 배창돈 '서명'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수를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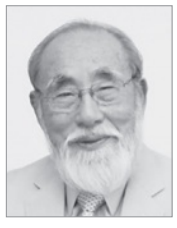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제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오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바이블칼럼 성직자와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면류관”을 자기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



故 이장식
한신대 명예교수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 성직자들(목사, 신부)도 바울이 기대하고 있던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쓸 것으로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국 갤럽 조사에 따르면, 오늘날 한국개신교 성직자들의 자질이 미달한다는 의견이 87%라고 한다.

바울이 말한 “의의 면류관”이란 것은 어떤 면류관을 말하는가? 그가 쓴 “의”라는 말은 ‘공정하다(upright)’란 말이다. 즉, 자기가 기대하는 그 면류관은 자기가 받을 자격이 있는 면류관인데 그 이유는

자기에게 면류관을 주기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정한’ 재판관이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직을 맡을 때에 공정하다. 그리하여 그의 공정한 성격이 재판관으로서 그의 신분을 보장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신분에 부합 또는 일치된 성품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수행하신 분이시다. 그분은 자기의 근본적인 신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명했다. 그리고 아들의 신분에 일치하는 효성(sonship)의 성격을 가지고 사명을 완수했다.

그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기신 일을 완성했고, 아버지에게 영광을 세상에서 돌려 드렸다고 했다. 또, 그가 십자가의 쓴 잔을 앞에 두고 아버지께서는 이 잔을 피할 수 있게 하시려면 능히 하실 수 있는 줄 압니다만, 아

문) 귀하는 요즘 우리 주변에 품위가 없거나 자질이 없는 성직자가 얼마나 많다고,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 24)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매우 많다	16	22	16	25	22
어느 정도 있다	(65) 49	(71) 49	(79) 63	(87) 62	(87) 65
별로 없다	15	12	16	12	12
전혀 없다	2	2	1	1	1
모름/응답거절	18	16	3	0	-

○ 종교별 품위나 자질이 없는 성직자가 ‘매우 많다+어느 정도 있다’ (%)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불교인	66	71	80	88	88
개신교인	64	71	72	83	85
천주교인	60	64	69	79	89
비종교인	66	71	84	88	87

·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pp.95-96. 한국갤럽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출처=한국갤럽

바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의 신분을 아들다운 성품, 즉, 효성을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여서 입증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신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천명했다. 종은 사나 죽으나 주인의 뜻대로 주인을 섬기는 순종과 희생의 성품을 가져야 한다. 그는 말하기를 “죽으나 사나 자기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영화롭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의 몸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신분을 드러낸다. 신분이 종이면 종의 성품을 가져야 그 신분이 인정을 받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신분이 상실되고 주인에게 쫓겨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의 신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어떤 성품으로 사역하였는지 그의 서신들에서 읽을 수 있다.

그는 “나팔은 나팔다운 소리를 내야 하며 그리스도의 종이나 사도는 종이나 사도다운 성품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신분도 중요하지

만, 신분에 일치하는 성품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약성경에는 교회의 성직자가 가져야 할 성품과 자질에 대한 교훈이 많다. 또 교회 직분자들이 가져야 할 성품에 대한 설명도 많다. 예수님은 그 당시 유대 나라의 제사장이나 율법 선생이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신분에 어긋나게 가르치고 지도하여 자기들과 함께 그 백성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책망했다.

오늘날 한국개신교 안에는 성직자나 일반 신자들이 각자의 교직에 어긋난 성품을 가지고 사역을 하거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개신교의 사회적 위상이 격하되고 있다. 물욕, 성욕, 명예욕, 권력욕 등의 종의 되어 신성한 신분을 상실하여 자질이 없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것이다. “의의 면류관”은 공정한 재판관의 공정한 재판을 통과해야 얻게 될 것이다.

베리타스 제공 <https://veritas.kr/>

바이블지식IN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떻게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가? (2)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4:4-8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을 경험하기 위한 몇 가지 지침을 제공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옹호하며 무엇에든지 절제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쁨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의 중요성을 발견합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염려에 대해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집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찬양할 때,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 기쁨이 온다고 기록하였습니다(시편 19:8).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기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나 불만족스러운 것들에 집중하기 보다는 경건한 것들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 또한 기쁨에 관한 몇 가지 교훈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에 관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9-11). 기쁨을 누리는 비결 중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공동체를 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안식을 주시고 엘리사를 보내어 그를 돕게 하셨습니다(열왕기상 19:19-21). 우리 역시 상처와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전도서 4:9-12). 히브리서 10:19-25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담담함으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히브리서 10:19). 우리의 죄가 씻겨진 것을 우리는 압니다(히브리서 12:22).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공동체, 믿는 자들의 권속에 속하여졌습니다. 우리는 동료 신자들과 함께 믿음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또한 서로 격려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요한복음 17:14-16; 빌립보서 3:20).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고대하며, 마침내 원래의 설계대로 회복될 것을 바랍니다. 삶은 고독하고 절망적일 수 있습니다. 그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진리를 상기시켜 주고, 우리와 함께 짐을 나누어지며,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10; 골로새서 3:12-14).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의 열매이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진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를 통해 그분과 교제하며, 주께서 마련하여 주신 신자들의 공동체를 의지할 때, 이 선물을 가장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 lack: 부족하다, ~이 없다
 - should: ‘조언(advice)이나 의견(opinion)을 전달’하기 위한 조동사
 - generously: 아낌없이, 후하게
 - find fault: 잘못을 들추어내다
 - it: 앞에 나온 wisdom을 받

갓케스천스 제공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Psalm 118:6 NIV

The Lord is with me; I will not be afraid. What can mere mortals do to me?

- afraid: 두려워하는, 겁내는
 - mere: 겨우 ~의, 한낱 ~에 불과한
 - mortal: (특히 아무 힘없는 일반

보통) 사람, 인간

(시편 118편 6절)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낱 힘없는 인간들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James 1:5 NIV

If any of you lacks wisdom, you should ask God, who gives generously to all without finding fault, and it will be given to you.

- lack: 부족하다, ~이 없다
 - should: ‘조언(advice)이나 의견(opinion)을 전달’하기 위한 조동사
 - generously: 아낌없이, 후하게
 - find fault: 잘못을 들추어내다
 - it: 앞에 나온 wisdom을 받

는 대명사

(야고보서 1장 5절)

여러분 중에 누구라도 지혜가 부족하다면, 잘못을 들추어내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품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침향의 정수 침향추출에센스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침향 16%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선착순 500명 한정!}

※ 증정품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희의 진화 정성, 광동 쌍희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몰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보상 위해 선한 일 했다면? '두 마음' 품은 것

키에르케고어를 만나다

특별한 때를 위한 강화 (13) 보상

먼저 쉬운 것부터 이야기해 보자. 보상을 받기 위해 선을 품은 사람은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것이다. 선은 한 가지일 뿐이고 보상은 별개다.

이런 식으로 선의 길을 가려 한다면,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연한 것을 행하기보다, 양쪽 눈을 사용하여 한 가지를 바라보기보다, 한 쪽으로는 한 측면을, 다른 한 쪽 눈으로는 다른 측면을 보고 있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다.

이것은 절대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이것은 사려에 혼란을 줄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마음을 품은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

선과 보상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보상을 탐하게 된다면, 선은 고상하고 거룩한 요소이며 보상은 유혹하는 요소다. 그러나 유혹은 절대 좋은 것이 아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보상은 세상의 보상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선과 함께 결합시킨 보상은 의심스러운 어떤 것도 없고 확실하기 때문이다. 현존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다가올 것도, 높음이나 낮음도, 천사나 악마도 선과 보상을 분리할 수 없을 것이다(롬 8:38-39).

그러나 세상이 가장 깊은 내면에서 선이 아니라면, 성서가 말하듯이 세상이 악한 자의 권세 아래에 있다면(요일 5:19), 반면에 선을 품지 않는 자가 결코 드문 예가 아니라면, 세상의 보상은 정말로 의심스럽다.

그 때 세상은 자기가 선으로 간주하는 것에 보상할 것이다. 선과 닮은 것에

보상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보상은 정말로 유혹하는 요소다.

이 문제는 어렵지 않다. 만약 남자가 소녀를 돈 때문에 사랑한다면, 누가 그를 애인이라고 부를 것인가? 결국 그는 소녀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것이다. 그는 재산 사냥꾼이지 애인이 아니다. 그러나 그가 말한다.

"내가 사랑한 건 소녀요. 그 소녀가 돈을 가지고 있을 뿐이요."

그가 이렇게 말했다면,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므로 그가 우리에게 의견을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마도 이렇 것이다.

"이 돈이 문제를 만드는군요. 돈은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들 말하죠. 그래서 쉽게 오해받을 수 있죠. 아이고, 안타깝게도 돈 때문에 진정한 자기 자신을 알리기 어렵게 되었네요."

이 문제로 인해 그가 깊이 격정하고 있다면, 그의 사랑이 시험받을 수만 있다

면 돈이 사라지기를 바랐을 것이다. 진정으로 연인이었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소녀는 단 하나의 결점이 있지. 그것은 그녀가 돈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그녀는 뭐라 말할까? 만약 그녀가 "내가 꼭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를 부자로 만들 수 있는 장점이 내게 있기를 바라는 거지"라고 말했다면?

그녀를 진정한 애인으로 부를 수 있는 것인지 나는 그것이 궁금하다. 결국 그녀 또한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하지만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들에게 장애물이었던 이 돈으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합한다면, 그들은 사랑만을 마음에 품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완전해, 어떤 사람이 이 지점에서 "인생이 이 두 사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이 아름다운 생각의 순수한 상상을 방해하는

일에 분주하지 않도록 하소서.

슬프다. 비참한 지식, 현실과의 어떤 야비한 진분이 존재한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고 부러워한다. 이렇게 선을 행하고 보상을 받는 일이 큰 명예가 되었다.

방방곡곡에 있는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가 보라. 어떤 설교가 들려오는가? 선을 행하고 보상을 설교하는 소리뿐이다.

주님이 비판한 사람이 누구인가?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은 의를 행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하고, 구제할 때 역시 영광을 받기 위해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을 좋아한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이미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신다(마 6:1-2). 하늘에서의 보상은 없다.

결론을 짓자. 한 가지만 가장 확실하다. 선과 보상은 분리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선과 보상을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은 그건 세상의 보상일 뿐이다. 그것은 진실하지 않다.

선과 보상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은 선 자체가 보상이란 말이다. 이렇게 선을 품는다는 것은 품은 그 순간 선에 머물게 된다. 그 이상 무엇을 구한단 말인가!

하나 덧붙인다면, 착한 일을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고 뜻밖의 보상이 올 수도 있다. 물론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좋고 완전한 선물로 받아들이라. 하지만 이것은 다르다. 보상을 받기 위해 선한 일을 하지 말라.

보상 때문에 선을 품는 것은 두 마음이다. 따라서 한 마음을 품은 것인 "보상을 위해 보상 없는 선을 품는 것이다."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인 선을 품지만 세상에서 선을 위해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이창우 목사(키에르케고어 <스스로 판단하라>, <자기 시험을 위하여> 역자, <창조의 선물> 저자)

송태훈 칼럼

이드로와 교회행정

행정의 달인, 모세의 장인 이드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살고 있던 주전 15세기 미디안 땅에 '이드로'라 불리는 인물이 있었다. 이드로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풍부함, 돌출, 초월'이라는 의미다. 고대 사회에서 이름이 갖는 문화적 특성상 그는 미디안 족속들을 이끌고 있던 탁월한 민족 지도자, 국가를 풍요롭게 만든 복된 사람으로 생각된다.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 이드로는 '르우엘'이라는 명칭으로도 세간에 알려졌다(출 2:18). 르우엘은 친구를 의미하는 '레우와 하나님(또는 신)을 의미하는 '엘'의 합성어로 '하나님(신)의 친구'라는 뜻을 지닌 히브리어다. 아마도 그것은 본명이 아니라, 당시 미디안족속 정부가 이드로에게 부여한 직책명이었을 것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미디안 종족 사회에서 상위계층에 속한 사람으로, 르우엘이라 칭해지는 직책을 지니고 있었을 것이다. 르우엘(신의 친구)이라는 말은 고대사회 당시 미디안 종족을 이끈 최고 종교 지도자에게 부여한 직책명으로 보인다.

이드로는 미디안 종족의 최고 영적 지도자 제사장이었으며, 겐 출신 사람으로 전해진다(사 16). 이스라엘 민족 제대 족장 아브라함 당시 겐 사람은 갓문 사람 및 그니스 사람과 함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선진 문화족속 중 하나였다(창 15:19). 당시로서는 선진 유목민이었던 미디안 사람과 깊은 관련이 있었으며, 그들과 동일시되기도 했다. 겐 사람을 포함한 보다 넓은 족속의 개념이 미디안이었는 것이다. 경기도 사람 속에 일산 사람이 포함된 것과 같은 이치다.

겐 사람의 일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과 행동을 함께했고, 결국 이스라엘 족속에게 동화됐다. 여호수아 시대부터 겐 사람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에 주로 거주했으며(삼상 15:6), 우수한 금속세공(金屬細工:metal worker) 기술을 지니고 있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당시만 해도 이드로는 모세의 정권과 다르게 우수한 선진문물을 가진 민족의 최고 통치자였던 것이다. 이드로는 모세의 아내인 실보라 외에 여섯 딸을 슬하에 뒀으며(출 2:16), 호박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들을 둔 것으로 보인다(민 10:29). 그는 미디안 족

속 중 품위있는 엘리트였으며, 미디안 최고 상위에 있는 가문을 이룬 유명인사였다. 이드로는 분노한 이집트 황제를 몰래 피해서 아반도주한 나그네, 모세를 환대하며 자비를 베풀 온유한 지도자요 명품 인간이었다. 명품 인생은 가난한 고아 과부 및 이방 나그네를 사랑으로 돌보는 신앙의 사람을 의미한다. 소망 없게 보이는 무일푼의 이방 나그네를 사랑하는 딸과 결혼시켜 한 가족을 이루게 한 폭넓은 성품의 소유자요, 열린 마음을 지닌 세기적 지도자였다.

출애굽 8개월 이후 미디안 광야에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초라한 장막을 방문, 양국 간 싸움을 종료시킨 평화의 사도이기도 했다. 이스라엘 본진을 방문한 목적은 장인으로서 사적인 것도 있었지만, 공적으로 양국간 '불가침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데 있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 양자 간의 전쟁을 막고 정치, 경제 및 군사적 평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선한 외교사절이었다.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탁월한 행정 조직가였다. 오랜 행정경험을 토대로 선진 통치원리를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그대로 가르쳐준 마음이 넓은 인물이었다. 타민족타국가라 할지라도 상대방이 발전하도록 자신의 지혜와 귀한 자료를 감춤 없이 제공했다. 자업자득인물에

서 벗어나 국제적 마인드를 지닌 당대에서는 보기 드문 탁월한 인물이었다.

모세가 출로 300만 이스라엘 민족을 하루 내내 재판하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목격한 이드로는 소위 '사역의 위임화 원칙'을 그에게 제시했다. 훈련된 사람들 중 개인 능력에 따라 십부장, 오십부장, 백부장 및 천부장 등 중간 지도자를 세워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수립하라는 제안이었다. 단계별 행정조직은 제사장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들의 통치에 이미 사용했던 검증된 통치기법임에 틀림없다.

단계별 조직을 통한 사역의 위임화 원칙은 모세 시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 시대에도 크게 활용됐다. 주전 1406년 이후 여호수아를 수장으로 한 가나안 공동체는 이드로가 가르쳐 준 행정 원리를 그대로 준용해 성공한 고대 사회의 통치모델이 됐다. 여호수아는 단독으로 가나안 공동체를 통치하지 않고, 다양한 중간 지도자들을 달란트에 따라 세우므로 아름다운 민족 분권 국가를 이뤘다. 7년간 가나안의 이민족들을 복속시켰고, 8년간 지파의 능력과 적성에 맞게 가나안 땅을 민주적으로 분배해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통치를 효과적으로 완성했다. 이드로의 지혜와 권고는 고대 이스라엘 민족국가 형성을 하는 중요한 지렛대가 됐다. 탁월한 21세기 지도자는 지역, 민

족을 뛰어넘어 우주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다. 내 지역, 내 나라만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지도자로서 함량이 부족한 사람이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범국가적 및 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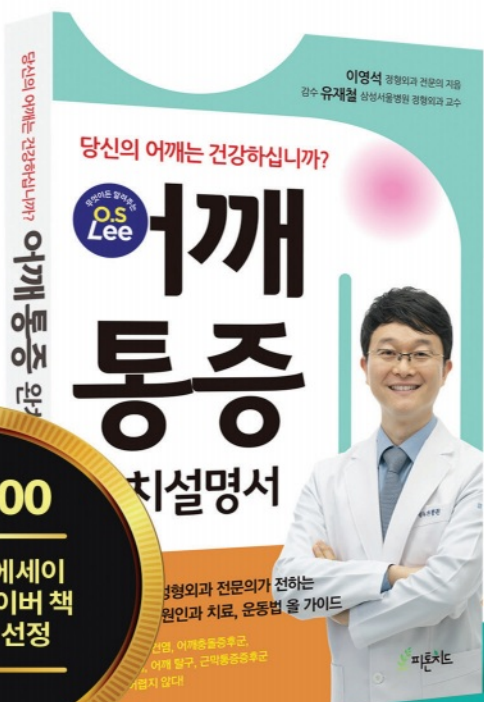
적인 유익을 생각하며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복잡한 현대사회를 리드할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이드로 같은 폭넓은 가슴을 지닌 정치, 경제 및 종교지도자를 바라고 있다.

은혜 한 장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능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을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이야기하늘나라 시어머니

시어머니는 차매에 걸렸지만, 나만은 알아본다. 딸도 아들도 알아보지 못한다. 5년 동안 시어머니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하였다.

“여보, 이제 되었어. 그만큼 하였으면 은혜에 보답은 다 한 거야. 이제 집에 와서 자.”

남편은 종종 간병인에게 말기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임종을 내 손으로 수발하려고 한다.

“여보, 당신에게 미안해요. 그러나 내가 이렇게라도 해야 마음이 편해요. 당신도 내게 어머니가 어떤 분인 줄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어디 세상인심이 그런가? 몇십억 유산 물려받고도 내팽개치는 사람이 많은데, 당신은 유산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 그 정도 했으면 되었어.”

“신의가 밥 먹여 주는 것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어머니 끝까지 모셔야 해요. 당신은 몰라도 집안 식구 모두가 우리 결혼 반대할 때 어머니가 나에게 2천만 원짜리 통장 주면서 혼수품 해 오라

고 했어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나는 없어요.”

나의 결혼을 시집 식구들은 모두 반대했다. 가정 형편이 좋지 않다는 이유였다. 아버지는 살인죄로 감옥에 가 있고 어머니는 자살을 하였다. 동생 둘을 돌보며 가장으로 살았다. 결혼은 생각지도 않았다.

남편은 같은 교회학교 교사로 활동하면서 나를 좋게 보았다. 나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지만, 남편은 집요하게 결혼을 요구하였다. 가정 형편을 남편에게 다 털어놓았다. 그래도 남편은 결혼을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 부모님 허락을 받으세요. 내가 성찬 씨 부모님이라도 이 결혼은 허락해 주지 않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누가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싶겠어요.”

“부모님은 내가 설득할 터이니 염려 말아요.”

그러나 남편의 말과는 달리 아버지와 동생들은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성찬 씨 어머니가 만나자고 하였다.

“내가 결혼 문제로 기도하였는데 하나님은 효순 선생님을 며느리로 맞이하실 원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겠어요. 믿는다는 것은 자기희생이 아니겠어요. 뭐 그리 가정환경이 중요해요. 그런 것은 다 순간적이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뭘 못하겠어요.”

“권사님, 저는 자격이 없습시다. 성찬 씨를 잘 설득하여 없던 일로 하지요.”

“무슨 자격, 효순 선생님 충분히 자격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 문제가 뭐 효순 선생님 잘못인가요? 배다른 동생들 돌보는 효순 선생만큼 마음씨 고운사람 어디 있겠어요. 나는 효순 선생님을 하나님께 보내주시길 선물로 맞이하기로 했어요. 내 며느리가 되어 주어요. 아니, 나는 딸로 생각할게요.”

그날 어머니는 혼수 준비를 하라고 통장을 주었다. 시아버지와 아들딸을 설득하여 결국, 결혼을 하였다. 어머니는 정말 천사였다. 남을 흥보고 비난하면서 은근히 자신의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그런 권

사가 아니었다. 그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도 굶은일은 마다하지 않고 말았다. 매주 이들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해 나가셨다. 자신의 입장보다는 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셨다. 교회 권사님들이 집에 와서 잔치를 하였다. 나는 실수로 반찬을 태워 버렸다. 어머니는 접시에 담아가시고 가시다가 거실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늙으면 어쩔 수 없어. 이렇다니까. 며느리가 정성을 다해 만든 반찬인데 내 힘이 없어 떨어뜨렸어. 야, 미안하다.”

나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왜 반찬을 일부러 떨어뜨렸는지를, 나는 그때 눈물이 글썽이어서 참기 힘들었다. 어머니는 탄음식을 만든 나를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 며느리 음식 잘하지, 나는 우리 며느리 음식이 최고라고 생각해. 어때 맛있지, 다 우리 며느리가 만든 거야.”

사실은 대부분 어머니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어머니는 나의 가정 형편을 알고

있는 다른 권사들의 비난거리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 애를 썼다.

“응, 맛있네. 서권사님, 며느리 잘 얻었어. 나도 저런 참한 며느리 있었으면 좋겠어. 요즘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서권사님은 복 받은 거야.”

“그럼, 나처럼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결혼하여 아무에게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시어머니로부터 받았다. 어릴 때 아버지는 술만 먹고 오면 어머니를 때렸다. 때로는 머리를 잡고 끌고 다녔다. 나와 동생들은 아버지만 들어오면 숨어야 했다.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랐다. 그런데 부모의 따뜻한 사랑뿐 아니라, 말로만 들었던 예수님의 사랑을 어머니를 통해 체험하였다. 어머니는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해 주었다. 그렇게도 천사 같은 어머니에게 차매가 찾아왔다. 하나님을 원망하였다.

“왜 이렇게 착한 어머니에게 차매를 주십니까? 직분만 권사지, 자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 옮기기를 밥 먹듯 하며,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끌만 보며 비난을 업으로 사는 사람들도 건강하게만 사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저희 어머니 차매를 고쳐 주십시오. 못된 인간들은 건강한데... 왜 못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놓아두고 아름다운 기억들을 다 없애 버리는 것입니까?”

어머니는 말이 없어졌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다. 나는 어린아이를 돌보듯 어머니를 돌보았다. 목욕을 시켜 드리고, 기저귀를 채워 주었다.

“효순아 용서해 달라. 나를 용서해 줘.” 차매 3년째부터 나를 보면 반복하여 용서를 구했다.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천국에 갔다. 그날 밤 내 손을 잡고

“사랑한다 딸아, 용서해줘. 내가 네 친엄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었듯이 너도 나를 용서해 줘. 아버지 마워하지 말고.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야.” 마치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처럼 말했다.

열린교회/김필곤목사/콩트집 하늘 바꾸니

향유옥합

기도 응답의 권능

죽방촌에 매주 나가게 된 계기는 12년 전 뇌경색으로 누운 70대 노인이 “내가 이렇게 더 살아서 무었하겠습니까?”

“빨리 죽어버리면 좋겠다” 하는 절망적인 호소 때문이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었하나? 죽고 싶습니다!” 하는 절망적인 호소 때문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한 주 후에 찾아가니 무더위 속에 기저귀를 찬 채로 잠들어 깨워도 인사불성이었다.

도시락과 과일을 놓아 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하였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를 영접하고 주의 자녀된 권세로써 치유함을 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할 자리마저 여의치 아니하지만 함께 간 전도사님과 주께 간구하였다.

그 후 한 주가 지나는 동안 때때로 증보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의료 봉사하는 날 내과 의사 이 선생님(서울의대)과 찾아갔다.

다행히 누워 있지 않고 문밖까지 나오셨다. 이 선생님도 그의 처지를 심히 염려하여

위로의 말을 전하였다. “얼마나 힘이 드세요? 어려우시지요, 고생이 많으세요!”

그러자 노인이 말씀하였다. “본래 사는 것이 고생이지요.

고통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요!” 하며 웃음을 띤 환한 얼굴이 되어 있었다.

진료 후 손을 잡고 기도하자 하였다. 전심으로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아멘으로 화답했다. 곁에 있던 노인도 평안이 임한 환한 얼굴로 아멘으로 화답했다. 자신이 제일 아픈 데가 많은 사람이라고 불평하며 염려 근심 속에 있던 분이였지만!

기도는 놀랍다! 은과 금으로, 빵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로 풀려나가는 것이었다.

산마루서신 제공



《산마루서신》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성경상식

불과 유황

[fire and brimstone] 지옥의 핵심은 불. 영어에서 유황은 보통 'sulfur'라고 표기하는데 'brimstone'이라면 뭘까?

중세에 유황은 불타는 돌, 즉 burn-stone이라고 불렀다. 이 말이 나중에 brimstone으로 바뀐 것이다.

창세기에는 신이 타락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파괴했다고 되어 있다(창세기 19:24).

아마 화산 폭발이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세상의 종말에 사탄과 신앙 없는 자들이 불과 유황의 호수에 던져져 영원히 불에 탈 것이라고 말한다(요한계시록 14:10, 19:20, 21:8).

그러므로 '불과 유황'이란 '불지옥'의 다른 표현이다.
 들녘출판사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금의 정의, 용도, 원리 4



조정의 목사

오늘날 헌금은 무엇입니까? 헌금은 세금이나 회비가 아닙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두려움으로 가지고 나오는 예물입니다.

신약 헌금의 용도도 구약의 원리와 오늘날이 같습니다.

첫 번째 구제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행 2:45)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팔고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행 4:34-35)” 헌금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모든 사람들을 다 도와주었을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은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육십이 될 때까지 아니하고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혹은 환난 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딤후 1:10)” 가족이 돌볼 수 있는 사람은 가족이 돌보게 하라는 원리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는 사람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60세 이상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사람은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선한 행

실을 가진 사람, 구원받은 열매가 드러나고 과부를 도우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아서 열매가 드러나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구제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돕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제의 광범위한 사역의 첫 번째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용도는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의 필요를 돕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샅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딤후 5:18)” 구약의 레위인들의 필요를 공급한 것처럼 신약에서도 교회의 인도자들의 필요를 돕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스스로 먹고 살면서 교회의 일을 했습니다. 그러자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고전 9:13-14)” 모든 정직한 인도자들은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되도록 스스로 필요를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그런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의 헌금은 어려운 성도를 구제하는데, 인도자의 필요를 공급하는데, 교회의 예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시대 헌금의 원리도 구약의 그것과 동일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6-7)”

신약시대 헌금의 첫 번째 원리는 일정 부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로 각자의 소득에 따라 그것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 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고전 16:2)” 구약은 특정한 비율이 있었고 강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세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신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각 영역에 모두 균형 있고 충성스럽게 재물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재물을 가지고 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야니와와 삽비라 같이 거짓된 마음으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경외함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들린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 원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껴둘 것도 인색하게 드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

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린 아이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아이가 용돈을 모아서 부모님께 선물을 사준다면 어떻까요? 얼마나 기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선물을 준다면 부모는 전혀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정기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은 선심 쓰듯 한 번씩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일어나는 삶의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찬양으로 예배드리고 설교를 들음으로 서로 교제함으로 예배드리듯 주님께 재물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바구니를 돌리는 교회에서는 전 성도가 헌금을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매주 하나님께 재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참 기쁘고 우리 삶에서 익숙해져야 할 부분입니다.

구약의 원리와 신약의 원리가 동일합니다. 그 정에 있어서 용도에 있어서 원리에 있어서 같았습니다. 구약은 강제성이 있었고 신약은 자발적으로 마음에서 우러나 한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재물을 얻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네 가지 정도의 유익이 있

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부요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부자는 소출이 많아 창고를 짓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자이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서기 원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를 부요케 하신 그분을 위해 그분 앞에 부요한 자가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내를 위해 돈을 쓰지 않고 아내가 뽀글을 사는 것을 아가워하면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어떻까요? 가상적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헌금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재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면서 한 손에 재물과 한 손에 주님이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인 것입니다.

셋째, 헌금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행 20:35)”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들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 건강,

평안, 모든 축복들 그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넷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눅 6:38)”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보상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에 원하는 모습으로 되신 것을 것입니다. 이것을 드림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당한 때에 우리가 원할 때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살펴본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인도자를 위해, 예식을 위해, 가난한 자들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소득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헌금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원하는 것과 가장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후 9:7)” 그분의 사랑을 강하게 경험하기 원하고 그분께 사랑을 표현하기 원한다면 즐겨내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즐겨내는 자가 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부요한 자라는 평가를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유흥교회 조정의 목사

주님의 아름다운 빛 안에 엮드리기

“준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시 96:6)



켄트 헨리

주님의 빛 앞에 나와 예배합시다. 주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당신을 드리십시오. 빛나는 성품 앞에서 성결함으로 정렬되어 더욱더 깊이 예배합시다! 아멘!

주님의 빛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저는 주님의 아름다움에 대한 실제적인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히브리어는 우리 주님의 성품이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차 있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빛의 자녀

들이 주님의 광채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며 (사 4:2)

아름다움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쉐비(TSEBIY)입니다. 쉐비의 주된 정의는 ‘영화로움(화려함)’이며 빛을 품고 있거나 빛 자체와 직접 연관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어 DPLENDEUR와 라틴어 SPLENDOR에서 유래된 ‘영화로움’은 문자 그대로 ‘밝음’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빛 앞에 나와 예배합시다. 주님의 찬란한 영광 앞에 당신을 드리십시오.”

주님의 아름다우신 빛

시편 96편 6절은 주님의 아름다우신 빛을 묘사하는 가장 뛰어난 성경 구절입니다.

당신이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된다면 무엇을 발견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구성요소들은 무엇일까요?

“준귀와 위엄이 그분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분의 성소에 있도다”(KJV)

◆ 켄트 헨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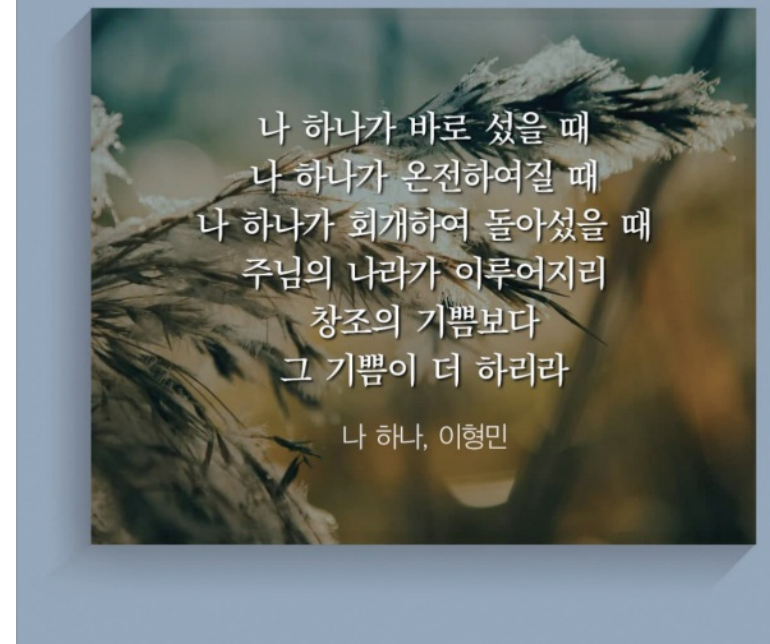
현재 큰딸 제시카와 사위 짐 스텐이 섬기는 세인트루이스 데스티니 처치의 합동 리더로 섬기고 있다.

“엄위와 위엄이 그를 따르며, 광채와 능력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Moffatt)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를 호위하며, 예배와 위엄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Knox) 셀라: 잠시 멈춰서 이 내용을 묵상하십시오. 히브리어 파아르(PAAR)는 미광(GLEAM)을 의미하며 아름다움에 대한 정의 중 하나입니다.

“주님의 빛나는 광채 앞으로 나아오라. 그 빛의 영광을 보라. 그 놀라운 임재하심의 아름다움 안에 머무르라.”

찬양한표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3~4세기 작성된 기독교 서적 '크로스바-쇼엔 코덱스' 경매 앞뒤

이집트 파피루스에 콥트어로 작성, 집필 기간 40년, 52장, 104페이지, 베드로 첫째 서신과 요나서 포함

지난 3일 CNN은 6월 11일 런던에서 경매를 앞두고 있는, 3~4세기 경 작성된 기독교 전례서 크로스바-쇼엔 코덱스(Crosby-Schøyen Codex)에 대해 보도했다.

국제 경매업체 크리스티(Christie's)에 따르면 이집트 파피루스에 콥트어로 쓰여진 크로스바-쇼엔 코덱스(Crosby-Schøyen Codex)는 최초의 기독교 전례서로, 이집트 북부의 한 수도원에서 한 필경사에 의해 40년에 걸쳐 작성되었으며 52장, 즉 104페이지로 구성된 코덱스로 구성되어 있다.

탄소 연대 측정에 따르면 이 책의 연대는 3세기에서 4세기 중반 사이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코덱스는 기독교가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 중 하나이며, 베드로 첫째 서신과 요나서가 포함되어 있다.

이 코덱스는 플렉시글라스에 보관되며, 잠금 가능한 두 개의 나무 상자

에 보관된다. 크리스티 측은 매각 가격을 260만~380만 달러로 추정했다.

코덱스는 1950년대에 발견된 보드머 파피루스(Bodmer Papyri)의 일부로 성서 본문, 기독교 저서 및 이교 문학 본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책은 미시시피 대학교에 인수되어 1981년까지 그곳에 보관되었으며 1988년 노르웨이 서적 수집가 마르틴 슈외엔(Martin Schøyen)의 손으로 들어갔다.

런던 크리스티의 도서 및 원고 수석 전문가인 유지니오 도나도니는 이메일을 통해 CNN과의 인터뷰에서 "크로스바-쇼엔(Crosby-Schøyen)은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와 20세기 전자 출판 및 통신 분야의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의미 면에서 경쟁할 수 없었던 책의 역사와 문화적, 텍스트 전달의 발전에 대한 최초의 증인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

도나도니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이 책은 지중해 전역에서 기독교가



현존하는 최고 서적 Crosby-Schøyen Codex가 경매에 나온다. ©schoyencollection.com

전파된 최초의 증거로서 기념비적으로 중요하다. 초기 기독교 수도원에 있던 상이집트의 초기 수도사들은 이 책을 사용해 가장 초기의 부활절 축하 행사를 진행했다. 그 시기는 그리스도 이후 불과 몇 백년, 그리고 마지막 복음서가 기록된 후로부터 불과 100여년 정도 지났을 때였다.

"이 책에는 부활절 예배에 사용된 성경의 두 권의 책인 베드로전서와 요나서의 가장 오래된 두 권의 완전한 본문이 포함되어 있다."

코덱스의 잘 보존된 상태는 코덱스가 발견된 이집트의 "좋은 기후 조건" 때문이다. 이 코덱스는 현재 뉴욕 크리스티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4월 9일까지 보관된다.

정지동 기자

CTS, 국내 유료방송 채널평가에서 종교 부문 1위 선정

CTS기독교TV(회장 김경철, 이하 CTS)가 국내 유료방송(IPTV-케이블TV-위성방송) 채널평가에서 종교부문을 1위를 차지했다.

이 채널평가는 국내 IPTV, 케이블TV, 위성방송에 송출 중인 모든 채널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시청률(30점), △편성(30점), △제작역량(10점), △콘텐츠 투자비(20점), △운영능력(10점) 등을 평가 기준으로 한다. CTS는 전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2023년 평가에서 10개 종교방송사 중 1위에 올랐다.

CTS 최현탁 사장은 "순수복음방송

CTS가 종교채널 중 채널평가 1위로 선정된 것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희망을 전하는 방송사로서 선하고 우수한 콘텐츠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CTS는 한국교회를 위한 신앙 콘텐츠 뿐 아니라 초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부활절 퍼레이드와 성탄축제, 환우와 소의 이웃을 돕는 프로그램을 기획제작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CTS는 각 지역 케이블 SkyLife 183번, IPTV(KT ollehTV 236번, LG U+



CTS 전경 사진. ©CTS

269번, SK BTV 291번), OTT플랫폼 유튜브(Youtube), D'Live, CTS APP과 CTS홈페이지(www.ctstv)에서 시청할 수 있다.

정지동 기자

서양화가 김용모 작가, '화양연화展' 초대 개인전



로 초대 개인전을 진행했다. 이번 전시는 71회 개인전으로 인생의

서양화가 김용모 작가(사진)가 3~8일 서울 인사동 리더스아트리아갤러리(대표 배진한)에서 사는 이야기 '화양연화展' 타이틀

하려했던 시간을 작품으로 표현하려는 듯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천연의 색을 강렬하게 채색해 깊은 인상을 심어준다. 김용모 작가는 "인생에서 좋은 것을 추억하며 나의 미래는 즐거운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미술 작가로서 시점으로 구현했으며, 행복이라는 보편적 가치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 함께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캔버스에 녹여내고자 노력했다"고 했다.

한편작가는 (사)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역임하고 현재는 (사)국제현대미술협회 이사장, 인사동아트페어 운영위원장 활동으로 한국미술의 발전과 미술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예술인으로 알려져 있다.

이내래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CTS새벽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예배시	00 365 새벽기도 1부 40 힐링스토리 50 조경희 목사의 찬양과 나눔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30 온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다시 보는 명설교 The울림 30 TV강단 하늘빛광성(박경수)	00 성지가 좋다 30 복음강단 - 군포제일교회 권태진 목사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 당진동일-이수훈 30 생명의 말씀 예수사랑-이강평	00 365 새벽기도 2부 30 큐티 프로그램-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다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문대원 목사(대구동신교회) 50 [말씀] 권혁민 목사(씨드교회)	00 생명의 양식 신나는(이정기) 30 주만찬(16회) 50 오늘 만나는 큐티(53회)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만나 워십
7:00	00 CTS뉴스 20 생명의 말씀 대전한빛-백용현 50 생명의 말씀 영광제일-이기용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생터 대치순복음 (한 별) 50 말씀의 생터 온누리비전(김동국)	30 지선생의 감정테라피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1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30 말씀의 능력(전태식)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년대화
8:00	20 신앙예배시 30 [워킹온더비블] 성경의 땅 50 CTS아침찬양	20 훈민복음 송병현 교수 50 체인지 더 월드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규원 목사(수영로교회)	20 CBS 성서학당 (김기석)	00 비전메시지 - 청오교회 이필산 목사 3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김경만 대표 50 Miracle Moment	50 힐링송	00 [말씀] 홍민기 목사(라이프하우스무브먼트)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신약의 세계로 오실소	10 새롭게하소서	00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 차복 30 배진한 목사의 생수의 강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0:00	00 7월10 목사의 인생사건관 50 7000마라톤 예수사랑여기에 당노합병중 / 김보영 성도	00 비전설교 라이프처치 (심성수) 30 말씀의 생터 든든한 (장화희)	20 에메이징 그레이스	00 성서 700 도시여행 40 CBS뉴스	00 내 삶의 행복 50 배진한 목사의 생수의 강
11:00	40 말씀노트 50 [생방송] CTS뉴스	00 명사들의 명강 이호선 교수 30 비전설교 새문안 (이상학)	00 [말씀]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지선생의 감정테라피	00 모두의 거실 50 살롱 썰롱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50 복음강단 - 수원명성교회 유만석 목사
12:00	30 생명의 말씀 군포제일-권태진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생터 풍성한 (김성곤)	1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20 [말씀] 이인호 목사(다사랑의교회)	00 TV강단 인천제일(이제일) 30 TV강단 포이에마예수(신우민)	20 말씀의 창 - 온정교회 최상일 목사 50 비전메시지 - 큰은혜교회 이규호 목사
13:00	00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15 주성민 목사의 주의 길 30 신앙예배시 40 인생을 바꾸는 7분-예수가 길이다 50 Miracle Moment	00 비전설교 중앙성결 (한기재) 30 오해속 목사의 국제 바이블 사관학교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말씀] 박신중 목사(열마인온누리교회)	00 올포원	30 비전메시지 - 청주순복음교회 이동규 목사
14:00	00 [생방송] Calling GOD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GOODTV스페셜 로드기행 이경의 권다보연 30 리버미션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00 말씀의 힘 수원목양(유태민) 30 CBS 아카데미 숲	00 김삼환 목사의 칠 년을 하루같이 40 나의 십자가 :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5:00	40 7000마라톤 예수사랑여기에 당노합병중 / 김보영 성도	00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라디군	00 [말씀] 김한요 목사(베델교회) 40 생명의 삶	20 영혼의 양식, 구세군대한본영 30 TV강단 용인송전(권준호)	00 힐링토크 회복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6:00	30 생명의 말씀 세란-안성복	00 말씀의 생터 충만한(임다윗) 40 황덕영 목사의 비전메시지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예수가 친한 필복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이건호 목사(순복음대우교회)	00 CBS 성서학당 (신우민) 창세기 1강 50 CBS 비전특강 윤자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7:00	00 수영로의 시간 이규현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10 말씀의 생터 평택성원(박충권) 40 말씀의 생터 세계로방주(장재길)	30 [말씀] 화중부 목사(남서울교회)	40 크리스천칼럼, 일산광림(박동찬) 5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8:00	00 생명의 말씀 지구촌-최성은 30 Miracle Moment 40 CTS선교방송 아주 특별한 찬양	10 매일 주와 함께	10 바울로부터 50 저스트 덴 티닛 (달빛마을)	10 파워인터뷰 30 TV강단 여의도침례(국명호)	00 월드비전과 C채널이 함께하는 희망터치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19:00	30 사장님은 선교사	00 장상길 목사의 생명의 장막비	00 생명의 삶 특별저녁예배 <한결같은 주의 생명>	00 이영훈목사의 말씀까지 복음을 30 TV강단 용인비전(신용수)	00 비전메시지 - 개명교회 김도경 목사 30 말씀의 창 - 영광교회 윤보환 목사
20:00	20 글로벌 신앙예배시 30 생명의 말씀 송도가나안-김의철	00 명사들의 명강 30 말씀의 생터 순복음진주대 (이경은)	00 에메이징 그레이스 4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00 21일간의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2회) 40 잘 믿고 잘 사는 법	0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0 복음강단 - 오송하늘문교회 이재수 목사 40 말씀의 창 - 서울제일교회 최봉수 목사
21:00	00 CTS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00 훈민복음 30 묻고 답하고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NEWS	00 상담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 열왕기서 17강 50 CBS 뉴스	1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30 삶의 씨앗이 되는 소리 Cseed(씨드)
22:00	30 CTS특집다큐 성경의 땅, 요르단	1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40 나의 삶 너의 노래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CGN 월드뉴스 40 CGN라이프워십 (다와서 찬양해) - 온누리교회-	10 새롭게하소서 정유나 수행서 1부	0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약
23:00	20 CTS두란노 성경교실 박영호 목사 2강 50 신앙예배시	10 2023 다니엘기도회	00 카일 아이들면의 지붕을 울리는 믿음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프로젝트 (구약)	00 주만찬 20 오늘 만나는 큐티 4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24:00	00 Calling GOD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00 말씀의 생터 물땀들 (안호성)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반태호 목사(병주교회)	00 성서 700 도시여행 40 목사님 궁금해요	00 한소망교회 한별의 기도회 4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CTS두란노 성경교실 인바이블 신약	00 말씀의 생터 순복음중동 (김경문) 30 유희리용일국기기도회	00 [말씀]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40 [말씀] 윤만선 목사(은혜샘물교회)	00 소망의 말씀 (김경진) 40 CBS 비전특강 윤자복 목사의 종말론 특강	00 비전메시지 - 기쁨이있는교회 조지훈 목사 30 비전메시지 - 대를로리처치 박선관 목사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한밤의 찬양	00 명설교 지구촌 (이동원) 30 말씀의 생터 사랑살리는 (라준석)	20 [말씀]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30 TV강단 승리(박규성)	0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3:00	00 다시보는 CTS WEEK 50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00 GOODTV 특별간증	00 [Global Sermon] Kyle Idleman's Wreck The Roof 30 [말씀] 양춘길 목사(멜그림선교회)	00 모두의 거실 50 살롱 썰롱	00 사제의 재발견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 서임중 목사 20 오늘의 양식 30 TV새벽예배 한성교회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꿈의 (김학중)	10 [말씀] 박완철 목사(남서울은혜교회)	00 CBS 성서학당 (송태근) 요한계시록 10강 50 CBS 교회소식(941회)	00 다시보는 성지가 좋다 20 C채널 명설교 다시 복음으로 - 우리들교회 김양재 목사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반응하는 눈
THE RESPONSIVE EYE

2023.12.21-
2024.04.21



V I C T O R
TREASURES FROM BUDAPEST
V A S A R E L Y

주최 가우디움 경향신문 주관 지에아트 협찬 KOREAN AIR 삼문 VASARELY HUNGARIAN CULTURAL CENTER SEOUL 후원 UNIVERSITY OF FINE ARTS, BUDAPEST HUNGARIAN CULTURAL CENTER SEOUL 제작지원 VIBE NAVER Cloud 오거션 힐탑 KIPRA funderful 미디어 후원 NAVER 수사연구소 리케팅